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 김형기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 김형기

2010년 통일예측시계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8-89-8479-569-3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2010년 통일예측시계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7
1. 방법론: 미래예측방법으로서의 델파이 기법	9
2. 2009년 통일예측시계 구축 사후분석	12
3.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5
III. 2010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31
1.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33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50
3. 2010년 델파이 패널 조사 요약	77
IV.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조사	79
1. 비패널 전문가	82
2. 대북사업자	118
3.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조사 요약	155

V. 국민 여론조사	157
1. 통일예측시계: 국민 여론조사	160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국민 여론조사	165
VI. 탈북주민 조사	179
1. 통일예측시계: 탈북주민	186
2. 통일요인 설문조사: 탈북주민	196
3. 2010년 탈북주민 설문조사 요약	220
VII. 요약 및 결론	223
부록	235
1. 2010년 전문가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 요약	237
2.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통일예측시계 조사 요약	239
3. 2010년 탈북주민 통일예측시계 조사 요약	241

4. 2010년 델파이조사 설문지	245
5. 2010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조사 개방형 설문 요약	258
6.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델파이조사	264
개방형 설문 요약	
최근 발간자료 안내	271

표 목 차

[표 II-1]	2009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
[표 II-2]	2009년 통일예측시계 결정인자 상관관계분석 ..	22
[표 II-3]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판단 근거	26
[표 II-4]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9
[표 III-1]	2009~2010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	34
[표 IV-1]	비패널 전문가 합의형 통일시계 통계량	85
[표 IV-2]	비패널 전문가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89
[표 IV-3]	대북사업자 합의형 통일시계 통계량	123
[표 IV-4]	대북사업자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127
[표 VI-1]	학력과 통일시계 간의 평균비교	183
[표 VI-2]	탈북주민 합의형 통일시계 통계량	188
[표 VI-3]	탈북주민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192
[표 VI-4]	학력과 통일시계 간의 평균비교	220

그림 목 차

[그림 II-1] 제1차년도 분야별 통일시계의 분포 (100점 기준)	14
[그림 II-2] 2009년 쌍봉형 답변 사례	20
[그림 II-3] 통일유형별 인과모형(2009년)	24
[그림 III-1] 통일시계의 설계	35
[그림 III-2] 2010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49
[그림 III-3] 델파이 패널 설문조사(평균)	50
[그림 IV-1]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통일시계 비교	82
[그림 IV-2] 비패널 전문가 설문조사(평균)	93
[그림 IV-3] 델파이 패널과 대북사업자의 통일시계 비교	120
[그림 IV-4] 대북사업자 설문조사(평균)	130
[그림 V-1] 국민여론조사 통일시계 설계	160
[그림 V-2] 대국민 여론조사(평균)	165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의 각 분야별 통일시계	184

[그림 VI-2]	델파이 패널과 탈북주민의 통일시계 비교	185
[그림 VI-3]	탈북주민 설문조사(평균)	196
[그림 VII-1]	합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228
[그림 VII-2]	흡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233

I. 서론

통일문제는 남한 내부, 북한 내부,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통일의 추진과정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의 국가 목표로서 정책의 대상이며, 따라서 통일문제는 이론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의 대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합목적적인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 엄밀한 분석, 그리고 그에 토대를 둔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현상 분석이나 단기적인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뛰어 넘지 못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일 상황을 과학적으로 점검·예측하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이예측 모형(통일이예측 시계)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상 정량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구축된 지수는 지속성과 축적성이 담보되어야 본연의 정량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연구계획 구상의 산물이다. 먼저 이론적 구상은 2002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200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통일이예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에서 새로운 지식 축적 체계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식 축적을

I
II
III
IV
V
VI
VII

기반으로 2009년부터 다년 계획으로 『통일예측시계 구축』 연구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본 연구는 2009년의 연구를 보다 발전시킨 2010년의 결과물이다.

2009년의 통일예측시계 연구 진행과정에서는 1차례의 파일럿 연구와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 따라 총괄 및 하위 분야 등 총 12개 분야의 통일시계를 구축하였다. 통일시계는 크게 흡수형과 합의형 통일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부문으로 세분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성된 51명의 통일·안보분야의 델파이 조사 패널은 1차 조사에서 1,500여 개의 통일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요인들은 분류·정리되어 2차 조사에서 제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3개의 요인으로 분류·작성되어 3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되었다.

2010년의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후분석결과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50여 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조사 패널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사례수 증대와 비교집단 구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대폭 확장하였다. 첫 번째 비교집단은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학자 및 전문가 집단과 상당기간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관련 정보에 민감한 대북사업가 집단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100명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끝으로 일반 국민들의 통일관련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축약된 문항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축인 델파이 조사 패널과 각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집단의 비교를 통해 통일시계의 모형을 더욱 세련시키게 하며 정책대안 강구를 위한 의미 있는 함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 역시 각 항목별로 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별 차이와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의 사업으로 진행될 본 연구의 부가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년간의 사업으로서 제2차년도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과거에 대한 누적된 지식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지적 판단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연구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미래예측방법의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통일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가 오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산물이었듯이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도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고, 그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VI

VII

Ⅱ.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1. 방법론: 미래예측방법으로서의 델파이 기법

불확실성, 복잡성, 복잡성을 내포한 미래예측은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와 탈냉전기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과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예측 기법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9년 다양한 미래연구방법을 검토하고 그 중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델파이(Delphi) 기법을 도입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미국의 RAND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델파이 기법은 물리적 회의 장소에서 대면하는 과정을 없애고, 진정한 전문적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그룹의 견해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델파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¹

- (1)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지속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자(moderator)들이 델파이 전 과정을 파악하여 탄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다.
- (2) 반복(Iteration): 수회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이 그들의 답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3) 통제된 피드백(Controlled feedback):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 (4) 익명성(Anonymity): 참가자들에게 그룹의견에 영향 받지 않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¹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8.

델파이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며, 먼저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 1단계: - 브레인스토밍의 성격, 델파이 주제 정의를 하고,
 - 관리팀은 결과 종합·분석, 델파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2단계: - 전문가들은 설문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실현시기를 예측하며,
 - 관리팀은 예측된 결과 집계,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 제시한다.
- 3단계: - 전문가들은 예측 시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 관리팀은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응답을 분석한다. 합의되지 못한 의견도 정리한다.
- 4단계: - 전문가들은 수정된 의견이 포함된 설문을 받아 응답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관리팀은 제 4라운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주제에 대한 예측시기를 발표한다.

본 연구는 제1차년도(2009년)부터 전형적인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크게 유형별 통일의 시기와 ‘통일 영향요인’ 두 가지에 집중되었다. 통일유형은 크게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로 구별하였다. 다양한 통일유형이 제시되었으나, 포괄적으로 합의형-흡수형의 유형으로 수렴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1차년도의 델파이 조사는 파일럿 연구(pilot study)와 3차례의 델파이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6월부터 11월 13일까지 수행되었

다. 조사는 통일시계에 대한 문항과 제1, 2차 조사에서 제시된 통일 영향요인을 반복적으로 회람 후 재설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차년도 델파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제1차년도의 조사결과와 사후분석 내용이 델파이 패널에게 제시되었으며, 동일한 구조적 설문을 제시하였다. 제1차년도의 경우 통일시계 문항의 구성과 통일 영향요인의 분류로 인해 설문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경향이 있어, 제2차년도의 설문은 직관적이고 간결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조정되었다. 특히, 제2차년도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통일예측시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집단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집단 간 결과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2. 2009년 통일예측시계 구축 사후분석

2010년 2차년도의 연구는 1차년도의 요인분류와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 통일예측시계 구축의 개괄적 구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통일시간과 통일요인 간의 인과모형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통일예측시계 1차년도(2009년) 조사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예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통일유형과 통일요인 분류에 집중되었다. 총 4회의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여기에는 파일럿 연구(2009.6.11~15) 및 3차례의 델파이 패널 델파이 조사(2009.7.23, 9.10, 10.19)가 포함된다. 델파이 패널은 장기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연구한 전문가·학자로 구성된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한 유형은 크게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로 수렴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합의형 통일은 평화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이다. 반면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체제에 흡수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두 개의 통일유형은 다시 전반적인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군사분야, 사회분야, 국제관계분야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총 12개의 통일시계에 대한 문항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단순한 통일시계만으로 통일의 시기를 짐작기보다는 보다 분석적이며 설명력을 지닌 통일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별 통일 영향요인을 묻는 개방형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유형별, 분야별로 약 1,500여 개의 통일요인이 제시되었다. 거듭된 재분류 끝에 요약된 33개(하위문항 포함 37개)의 요인은 제3차 델파이

조사의 통일요인 설문문항으로 흡수되었다.

2009년 조사에서 파일럿 연구 및 제1, 2차 델파이 조사가 유형별 통일시계와 통일요인 도출을 위해 집중되었다면, 제3차 델파이 조사는 다년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라 할 수 있다. 1차년도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 11월 현재 합의형 4시 19분, 흡수형 5시 56분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09년 8월 최초 조사당시와 비교해 각각 22분, 7분 늦춰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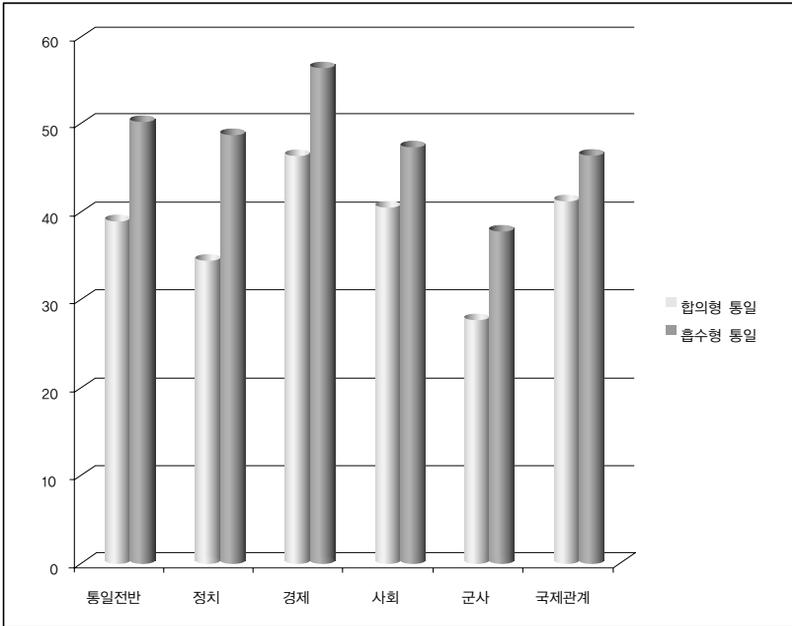
2009년 조사에서 델파이 패널은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최솟값과 최댓값의 범위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의형의 경우 5점에서 70점, 흡수형의 경우 15점에서 80점이라는 대단히 이산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이 장기간 북한·통일·안보 분야에 종사한 비교적 균질적인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기댓값이 매우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1~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전문가들의 통일에 대한 전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시계는 합의형과 흡수형 종합시계와 각 유형별로 5개의 하위분야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어 총 12개의 통일시간이 도출되었다. 분야별 통일시간은 합의형 집단(즉, 종합시간과 5개 하위분야)과 흡수형 집단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다. 합의형의 경우 각 분야별 통일시계는 흡수형보다 낮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간은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2시 51분, 23.81점).

흡수형의 경우 각 분야별 통일시계의 비중은 합의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간은 합의형보다 약 1시간 30분(약15점 내외) 가량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합의형보다 흡수형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I-1 제1차년도 분야별 통일시계의 분포(100점 기준)



통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기할 점은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에 대한 응답이 통일예측시계의 중간점인 6시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모든 분야의 통일시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패널 구성원이 경제흡수형 통일에 예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며, 여전히 다수의 응답자가 중간점(6시)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제1차년도 통일예측시계는 2차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통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1,500개의 항목을 33개의 분야로 요약·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답변한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에 대한 분야별 항목을 재분류, 서열화한 것이다. 서열화

된 통일요인은 다시 33개의 설문문항으로 작성되어 제3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되었다. 우선 통일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재검토 결과 분류의 커다란 오류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델파이 패널은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 및 5개 하위분야에 대한 통일요인에 대해 공통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분야별 세부항목에 따라 상이한 요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중 중복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통일요인은 <표 II-1>에 요약하였다.

● 표 II-1 2009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합의형 통일요인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정 치	체제 정당성 (통치 이념)	북한 체제의 변화	8(4.4%)	3	26(6.6%)	1
		북한 정권의 안정성	7(3.8%)	6	7(1.8%)	24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변화	3(1.6%)	25	6(1.5%)	26
	정치적 리더십	후계구도와 권력승계의 안착	6(3.3%)	12	13(3.3%)	12
		김정일 건강문제	2(1.1%)	30	10(2.6%)	16
	정치적 통합성	권력 갈등	4(2.2%)	18	5(1.3%)	30
		군부의 체제수호	2(1.1%)	30	2(0.5%)	36
	정책 방향 (통일 의지)	지도부의 의지	5(2.7%)	16	15(3.8%)	8
		대남정책	2(1.1%)	30	5(1.3%)	30

I
II
 III
 IV
 V
 VI
 VII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정 치	남한 요인	남한 사회의 역량	7(3.8%)	6	19(4.8%)	4
		정부의 통일 의지	2(1.1%)	30	8(2.0%)	22
		대북 정책 및 통일 전략	4(2.2%)	18	9(2.3%)	19
	남북 관계	남북한 상호신뢰	10(5.5%)	2	21(5.4%)	3
		남북한 통일 정책	3(1.6%)	25	7(1.8%)	24
		남북관계 수준	8(4.4%)	3	9(2.3%)	19
		남북한 통일 의지	3(1.6%)	25	6(1.5%)	2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3(1.6%)	25	11(2.8%)	14		
체제 이질성	2(1.1%)	30	4(1.0%)	34		
경 제	북한 요인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7(3.8%)	6	23(5.9%)	2
		북한 경제지속성	2(1.1%)	30	2(0.5%)	36
	남한 요인	남한의 경제력	3(1.6%)	25	9(2.3%)	19
	남북 관계	경제 격차	4(2.2%)	18	3(0.8%)	35
		경제사회 교류	2(1.1%)	30	6(1.5%)	26
		남북 경제협력	8(4.4%)	3	19(4.8%)	4
군사 (핵)	핵 문제		5(2.7%)	16	14(3.6%)	10
	군사적 긴장관계		7(3.8%)	6	5(1.3%)	30
국제/ 외교	주변 국의 이해 관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	11 (6.0%)	1	18(4.6%)	6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6(3.3%)	12	10(2.6%)	16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1(0.5%)	38	10(2.6%)	16
	미북관계 정상화		4(2.2%)	18	8(2.0%)	22
	국제 질서	국제사회의 협조	6(3.3%)	12	14(3.6%)	10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사 회	북한 요인	북한 주민의 의식	6(3.3%)	12	15(3.8%)	8
		북한 사회의 통제 강화	1(0.5%)	38	0(0%)	39
		남북 간 이질성	4(2.2%)	18	2(0.5%)	36
		외부정보 유입	4(2.2%)	18	6(1.5%)	26
	남한 요인	남한 국민들의 통일인식	7(3.8%)	6	17(4.3%)	7
		남한 국민들의 통일외지	4(2.2%)	18	11(2.8%)	14
	남북 관계	남북 합의	2(1.1%)	30	5(1.3%)	30
		남북교류의 수준	7(3.8%)	6	12(3.1%)	13

흡수형 통일요인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정 치	북한 요인	체제 정당성 (통치 이념)	북한 체제의 변화	10 (4.9%)	7	19 (5.1%)	6
			북한 정권의 안정성	9(4.4%)	8	9(2.4%)	19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변화	1(0.5%)	28	2(0.5%)	29
정 치	북한 요인	정치적 리더십	Post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	20 (9.8%)	2	33 (8.8%)	1
			김정일 건강악화	12 (5.9%)	4	13 (3.5%)	12
		정치적 통합성	권력 갈등	6(2.9%)	14	18 (4.8%)	8
			군부의 영향력	3(1.5%)	20	3(0.8%)	27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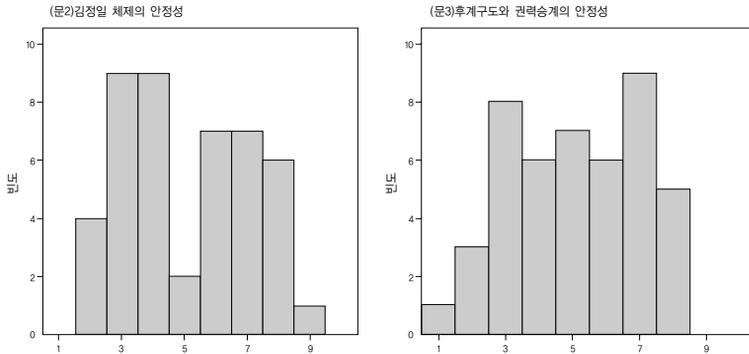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정 치	남한 요인	남한 사회의 역량	14 (6.9%)	3	23 (6.2%)	4	
		정부의 통일 의지	2(1.0%)	23	8(2.1%)	20	
		대북정책	4(2.0%)	18	7(1.9%)	21	
	남북 관계	남북관계 수준	6(2.9%)	14	7(1.9%)	21	
		남북한 국력 격차	2(1.0%)	23	14 (3.8%)	11	
		체제 이질성	1(1.0%)	28	0(0%)	32	
경 제	북한 요인	개혁/ 개방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5(2.4%)	16	11 (2.9%)	15
		경제 실태	경제위기/경제난	22 (10.8%)	1	24 (6.4%)	3
			경제격차/대남의존	2(1.0%)	23	5(1.3%)	25
	남한 요인	남한의 경제력	2(1.0%)	23	16 (4.3%)	9	
	남북 관계	남북 경제협력	1(0.5%)	28	3(0.8%)	27	
	사 회	북한 요인	사회 의식	북한 주민의 의식	12 (5.9%)	4	21 (5.6%)
사회적 통제 약화			체제 저항과 이탈	9(4.4%)	8	25 (6.7%)	2
남한 요인		사회 의식	남한 국민들의 통일의지	3(1.4%)	20	13 (3.5%)	12
			남한 국민의 의식	5(2.4%)	16	6(1.6%)	23

개념화	사 례		1차빈도	순위	2차빈도	순위	
사 회	남북 관계	남북 사회 교류	사회적 소통	1(0.5%)	28	1(0.3%)	31
			외부정보의 유입	1(0.5%)	28	11 (2.9%)	15
			남북교류의 수준	3(1.5%)	10	5(1.3%)	25
군사 (핵)	핵 문제		4(2.0%)	18	11 (2.9%)	15	
	군사적 긴장관계		2(1.0%)	23	2(0.5%)	29	
국제/ 외교	주변 국의 이해 관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		12 (5.9%)	4	19 (5.1%)	6
		중국의 정책		7(3.4%)	11	12 (3.2%)	14
		미국의 정책		7(3.4%)	11	6(1.6%)	23
	북한의 국제적 고립		9(4.4%)	8	15 (4.0%)	10	
	국제 질서	국제사회의 협조		7(3.4%)	11	11 (2.9%)	15

33개(하위문항 포함 37개)의 통일요인은 제3차 델파이 조사에서 설 문문항으로 전환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야별 통일시간에 대한 사후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33개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역시 전 문항에 걸쳐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로서, 2009년 현재 통일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현상 자체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패널 구성원이 북한-

●그림 II-2 2009년 쌍봉형 답변 사례



통일·안보 분야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면서 비교적 균등한 정보를 공유 해온 학자 군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환경에 대한 평가는 사안별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패널 내 개별 학자들의 통일과 통일 환경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요인들이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뚜렷하게 의견이 양분되고 있거나 중심 집중도가 미미한 문항은 (문2)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문3) 후계구도와 권력승계의 안정성, (문5) 북한내부의 권력갈등, (문10) 남북 경협, (문11, 문12) 북한주민의 의식, (문14) 남북 군사적 긴장, (문15) 통일에 대한 북핵의 영향력, (문17, 17_1, 17_2, 17_3, 17_4) 주변국가의 이해관계, (문21)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의 합의수준, (문23) 북한의 시장 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문25, 26) 북한주민의 체제지지, (문28) 북한의 주민통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는 피설문자의 견해가 양분된 사례 중 2개를 예시한 것이다.

1차년도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33개 요인(37개 문항)의 요약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 의거 요인분석을 동일하게 실시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각(斜角)요인회전(Oblimin, 델타=0)을 시행하였다. 사각요인회전은 요인 간 상관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대한 요인 적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요인분석 결과 가장 뚜렷한 공통성을 보이는 설문문항은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문17, 17_1, 17_2, 17_3, 17_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요인분류가 쉽지 않았다. 그 원인은 사례수 부족과 변수의 과다, 개별 응답자의 사안별 상이한 태도, 문항 구조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 중 사례수 확장과 문항구조 개편은 2010년 연구에서 재조정되었다. 또한 후술할 모형분석 결과에 따라 주변국의 시각은 요인으로 묶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개별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장기적 사업의 결과 도출될 수 있는 통일예측모형의 선행 작업으로 인과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통일예측시계가 전문가들의 통일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묻는 것이라면, 설문문항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논리적으로 통일을 향한 시간은 통일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예측시계는 통일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인이며, 각 문항은 독립변인으로 간주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간략히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다양한 전제조건과 제약을 가지고 있으나, 본 사후분석에서는 단순히 32개(1개는 명목척도임) 문항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후 일정한 유의수준을 보이는 문항을 후진(backward)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각 통일유형에 대한 결정인자를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요인 분석과 일치한다. 즉, 문항 간 상관관계가 대체로 0.1~0.5의 낮은 상관

I
II
III
IV
V
VI
VII

● 표 II-2 2009년 통일예측시계 결정인자 상관관계분석

통일합의형	r	통일흡수형	r**
8)북한경제의 개혁·개방	0.340	2)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0.355
17)주변국의 이해관계	0.322	5)북한내부 권력갈등*	0.328
17_2)중국의 이해관계	0.369	9)북한경제위기*	0.326
20)북한 개혁리더십의 등장	0.379	13)남한국민 통일인식*	0.431
23)북한 시장경제적 요소*	0.397	17_1)미국의 이해관계*	0.464
24)남북의 동질성 확보*	0.526	18)국제사회의 반응	0.398
29)군사신뢰구축*	0.354	25)북한주민 체제불만	0.568
		26)북한주민 사회주의 지지	0.434
* 회귀분석 통과 문항임.			
** 일부 문항의 상관관계는 설문문항 구조로 인해 역수로 해석해야 함.			

관계를 보이는 문항이 소수 존재하며, 문17의 5개 문항은 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항목은 유사한 속성을 묻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2010년 추가 설문조사 시 설문문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합의형과 흡수형이라는 두 통일유형에 대한 문항별 상관관계가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복되는 문항이 없다는 점은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을 위한 요건이 별개라는 것을 시사한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 북한이 개혁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남북이 동질성을 확보하고, 군사신뢰를 구축하며, 중국이 협력하는 조건이 성립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권력갈등과 경제위기를 겪어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며, 미국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북한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

우에 흡수형이, 개혁·개방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합의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I-2>는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이 중 굵은 글씨체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문항이다.

합의형 통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문8)북한경제의 개혁·개방부터 (문29)군사신뢰구축까지의 7개 문항을 독립변수로 삽입한 뒤 후진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문23)북한 시장경제적 요소, (문24)남북의 동질성 확보, (문29)군사신뢰 구축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된 회귀식이 도출되었다.² 7개 문항 전체가 포함된 회귀식의 r값은 .665이며, 최종 회귀식은 $r=.644$ 이다. 3개 변수의 설명력은 4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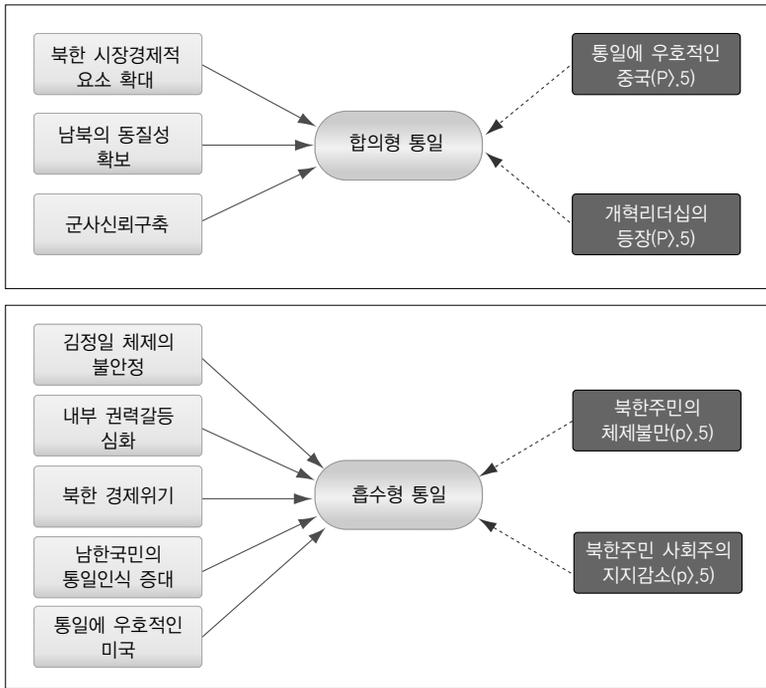
흡수형 통일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해 (문2)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등 8개 문항을 독립변수로 삽입한 뒤 후진 방법을 수행한 결과 총 5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즉, (문2)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문5) 북한내부의 권력갈등, (문9)북한경제위기, (문13)남한국민들의 통일인식, (문17_1)미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 등이다. 8개 문항 전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r 은 0.790, r^2 는 62.4%이다. 최종 회귀식은 $r=0.789$, $r^2=62.3\%$ 로 설명력 저하 없이 3개의 문항이 소거됨을 알 수 있다.³ 이를 간략히 도안으로 요약하면 <그림 II-3>과 같다.

² 도출된 회귀식은 [합의형 통일= $1.490+2.346(\text{문23})+4.345(\text{문24})+4.235(\text{문29})$]이며, 모형 전체의 유의수준은 0.000이다.

³ 최종회귀식은 [흡수형 통일= $-30.250+1.604(\text{문2})+3.306(\text{문5})+2.810(\text{문9})+3.313(\text{문13})+4.237(\text{문17}_1)$]이며, 전체 회귀식에 대한 유의수준은 0.000이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I-3 통일유형별 인과모형(2009년)



3.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가. 설문 작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2010년 통일예측시계 구축 연구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4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차년도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통일시계와 통일요인에 대한 재검토 후 보다 명료하고 축약된 형태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통일예측시계의 전문가패널 규모가 유효한 통계적 추론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수를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큰 숙려와 논의를 거쳤던 부분은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12개 문항이다. 1차년도의 경우 통일예측시계는 통일시점을 묻는 문항에서 합의형과 흡수형을 병렬⁴하였으며, 5개 하위분야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통일시간에 대한 척도(100점 척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1점에서 10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은 응답의 이산성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현재 통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은 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긍정-부정’, ‘가능-불가능’, ‘단기-장기’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복합적 문항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시간이 길어지고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델파이 조사에서 통일예측시계는 보다

⁴ 즉,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는 통일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형: ()점, 흡수형: ()점.”

●표 II-3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판단 준거

1~25	26~50	51~75	76~100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절대 불가능	다소 불가능	다소 가능	매우 가능
매우 장기간	다소 장기간	다소 단기간	통일 임박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순서와 형태를 다소 수정하였다. 우선, 유형별 통일시계의 종합점수와 각 분야별 점수에 대한 설문을 합의형과 흡수형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피설문자가 최소한의 준거를 가질 수 있도록 100점을 4분하여 1~25점: 매우 부정적, 26~50점: 다소 부정적, 51~75점: 다소 긍정적, 76~100점: 매우 긍정적으로 세분한 뒤 보다 상세하게 설문의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설문 구조를 크게 변형하지 않은 채 피설문자의 판단과 기입한 점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에서 요약된 통일요인을 묻는 설문문항의 문구와 구조를 수정하였다.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은 매우 심층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단순성과 직관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설문자의 피로도가 증대되어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설문항은 분야별로 재분류한 뒤 한 두 줄의 설문으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모든 설문은 통상적인 척도배치방식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형태를 띄도록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점을 부여하기 위해 10점 척도에서 9점 척도로 변형하였다.

셋째, 1차년도 조사대상에 대한 분석에서 당면과제로 제시되었던 사례수 부족(소위 Large vs, Small N 문제)을 해소하고 관심집단의

통일예측과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추가된 집단은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통일·안보 전문가 집단과 개성공단입주 남측 사업자이다. 이들 두 집단은 일반인보다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다. 확장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패널과 함께 각각 기술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통일시계와 통일요인을 살펴본 뒤, 계량분석 단계에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비패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회수 결과 총 50개의 사례수가 확보되었다.

나. 조사개요

전문가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에 설문은 2010년 7월 하순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다. 완료된 설문은 서울 소재 정치외교학 및 북한학과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통일예측시계 12문항, 통일요인 설문 36문항, 개방형 질문 3문항이 완성되었다.

2010년 조사는 2009년 전문가 패널(이하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를 더욱 확장하여 총 5개 집단의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추가된 집단은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일반국민, 탈북주민 등이다. 이들 집단 중 일부는 델파이 패널의 사례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새로 수행될 모든 집단에 대한 조사는 델파이 패널과의 비교집단이 될 것이다.

델파이 패널은 2009년과 동일한 집단이다. 단 2009년 3차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 4명을 새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총 51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2010년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2010년 8월 20일에서 9월 9일까지 약 3주간 전자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패널의 경우

I

II

III

IV

V

VI

VII

대부분이 2009년 설문조사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설문결과에 대한 사후분석과 2010년 설문지를 전송하였다. 설문구조는 통일에 측시계, 통일이인 설문,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형 전체로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 51부 전량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비패널 전문가 집단과 대북사업자 집단은 사례수 보완과 집단비교를 위해 마련되었다. 양자는 공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반인보다 북한관련 문제에 민감한 관심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2009년 델파이 패널을 추출했던 북한·통일·안보 전문가 목록에서 50명을 비확률적 편의표집하였다. 완성된 목록에 따라 2009년 사후분석 자료와 2010년형 설문지 전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이는 델파이 패널과 동일한 조건이다. 조사는 9월 3일에서 15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50명 중 30개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대북사업자 집단의 경우 북한주민과 접촉하면서 북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관심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집단이다. 이에 따라 비패널 전문가와 함께 비교집단으로 선정되었다. 대북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도움을 받았다. 동 협회는 개성공단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민간경제단체이다. 협회는 개성공단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 측 임직원을 자체 선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설문회수에 협조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개성공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설문은 2009년 사후분석을 제외한 2010년형 설문지 전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위임하였으며, 2010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조사되었다. 의뢰한 20부는 전량 회수되었다. 당초 대북사업자 집단은 비패널 전문가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50명의 비교집단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양 집단 간 차가 커 비패널 전문가와 별도로 정리하였다.

●표 II-4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집단	대상	기간	방법	구조
델파이 패널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51명	2010. 8.20~9.9	전자우편 설문조사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비패널 전문가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30명	2010. 9.3~9.15	전자우편 설문조사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대북 사업자	개성공단 남측 임직원 20명	2010. 9.1~15	개성공단기업 협회 위임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국민 여론조사	층화표집된 1,000명	2010. 8.21~22	리서치앤 리서치 위임	14개 통일시계 관련 설문
탈북주민	탈북주민 99명	2010. 8.31~9.20	NK지식인 연대 위임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국민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통일시각을 살펴보고 델파이 패널과의 집단비교를 위해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어투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문항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으로 인해 2009년 사후분석 결과 중요문항으로 선정된 14개만을 작성하였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서 대행하였으며, 2010년 8월 21일에서 22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비례할당표집된 인원에게 대해 전화조사(CATI)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주민으로 통칭)의 경우 북한과 남한 모두를 경험한 예외적인 집단으로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

I
II
III
IV
V
VI
VII

체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주요 관심은 탈북주민들이 과거의 북한 경험과 현재 남한에서 접하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통일시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였다. 조사방법은 델파이 패널과 동일한 문항을 『NK지식인연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통일예측시계 및 통일요인설문의 각 문항 중 탈북주민에게 다소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명과 쉬운 용어를 사용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되었다. 설문은 총 100부 배포하여 99부 회수되었다.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교집단은 이 분야에 대한 조사로서는 매우 희소한 연구 자료이다. 특히 개성공단, 일반 국민, 탈북주민에 대한 통일시계의 측정은 조사과정에서 델파이 패널과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독특한 집단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비교집단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패널 중심의 통일예측시계의 비교집단으로서 예측력 보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술적·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Ⅲ. 2010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1.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2009년(4시 19분) → 2010년(3시 45분) 2009년(5시 56분) → 2010년(5시 20분)
 합의형 통일예측시계 흡수형 통일예측시계

2009년과 비교할 때, 2010년 델파이 패널 조사는 뚜렷한 유사점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유사점으로,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통일유형 중 흡수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더 통일에 근접하고 있으며, 5개 하위분야의 상대적 시간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사회분야가 군사·정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2010년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12개 통일시계 전 분야의 통일시계가 예외 없이 후퇴하였다는 점이다. 패널이 본 2010년의 합의형 통일 예측시계는 3시 45분이며, 이는 2009년보다 34분 늦춰진 것이다. 흡수형 통일의 경우 5시 20분으로 지난해보다 36분 후진하였다. 정치분야는 가장 현저하게 통일시간이 후퇴하였다. 합의형의 경우 1시간 8분, 흡수형의 경우 1시간 19분이나 늦어졌다. 국제관계분야의 흡수형 통일시계 역시 1시간 11분이 후퇴했다. 5개 분야 중 경제 및 사회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변화가 적었다.

한편, 패널 간 가장 적은 견해차를 보인 분야는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100점 척도에서 4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견해차가 큰 분야는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로 최솟값 0, 최댓값 80이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표 III-1 2009~2010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종합		정치		경제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2009	시계 환산	4:19	5:56	3:53	5:44	4:57	6:26
2010	평균	31.18	44.508	22.9	36.745	39.12	53.039
	범위	58	60	58	40	55	50
	시계환산	3:45	5:20	2:45	4:25	4:42	6:22
	시간변화	-0:34	-0:36	-1:08	-1:19	-0:15	-0:04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2009	시계 환산	4:26	5:38	2:51	4:53	4:27	5:40
2010	평균	33.53	45.333	18.67	33.529	31.08	37.314
	범위	60	70	64	80	65	70
	시계환산	4:01	5:26	2:14	4:01	3:44	4:29
	시간변화	-0:25	-0:12	-0:37	-0:52	-0:43	-1:11

<표 III-1>은 2009년과 2010년의 시간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개별 패널의 응답 전체에 대한 요약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가. 합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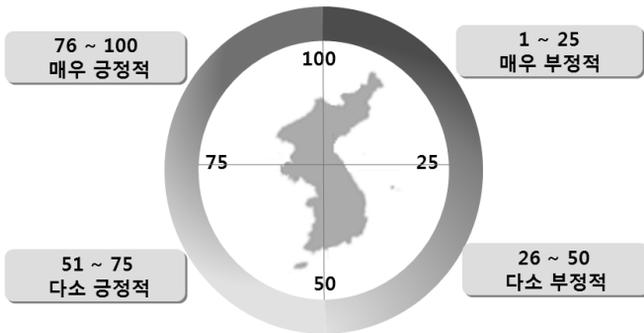
2010년 델파이 조사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2009년과 동일하지만 다 소간의 구조적 변동이 있었다. 우선 100점 척도는 유지하되, 판단의

●그림 III-1 통일시계의 설계

통일시계는 100점 척도를 가진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합의형 통일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와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군사적 측면, 국제관계 측면의 5개 하위분야 시계로 구성된다.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와 5개 하위분야의 시계로 구성된다.

합의형 통일에 대한 설문지는 아래와 같으며, 흡수형도 동일한 형태의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합의형 통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1점에서 100점(통일)까지의 범위에서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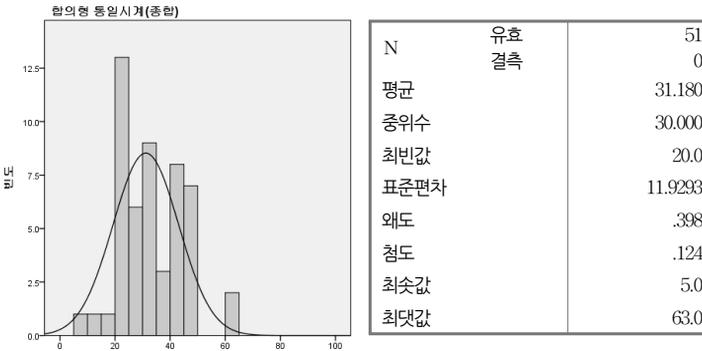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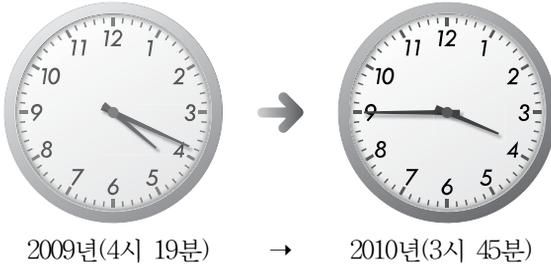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준거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의형과 흡수형의 통일을 유형별로 묶어 각 하위분야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델파이 패널 통일이예측시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간



2010년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간은 2009년에 비해 34분 늦추어졌다. 이러한 통일시계는 100점 척도에서 평균 31.18(표준편차 11.93)을 12시 기준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다.⁵ 통일을 12시로 할 때 3시 45분으로 늦춰진 것은 패널이 2009년 보다 합의형 통일의 시점이 더 늦어지

⁵ 시간환산은 분환산(평균*720/100)한 후 이를 시간으로 재환산한 값임.

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과 마찬가지로 패널의 답변 범위는 상당히 큰 편이며, 최솟값 5에서 최댓값 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20점이었으며, 13명이 응답하였다. 50점 이하의 합의형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패널은 96.1%이며, 이 중 매우 부정적인(25점 이하) 견해를 가진 응답은 43.1%에 이른다. 첨도는 .124로 그리 크지 않으나 양 극단을 제외할 경우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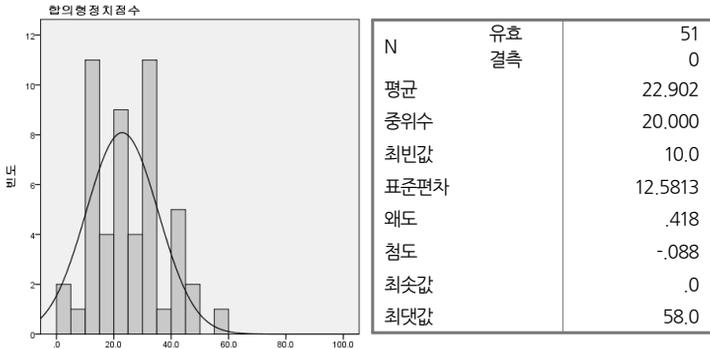
○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3시 53분)



2010년(2시 45분)



합의형 통일시계 중 정치적 측면은 군사적 측면과 함께 하위분야 중 가장 부정적인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통일에측시계와 비교할 때 가장 시간 변화가 크게 나타난 분야이다. 정치분야 통일시

간은 2009년 3시 53분에서 무려 1시간 8분이 늦춰진 2시 45분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5개 하위분야 중 정치분야가 가장 급격하게 합의형 통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텔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극단(0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8점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22.902(표준편차 12.58)이다. 1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패널이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 중 25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에 답변한 패널은 60.8%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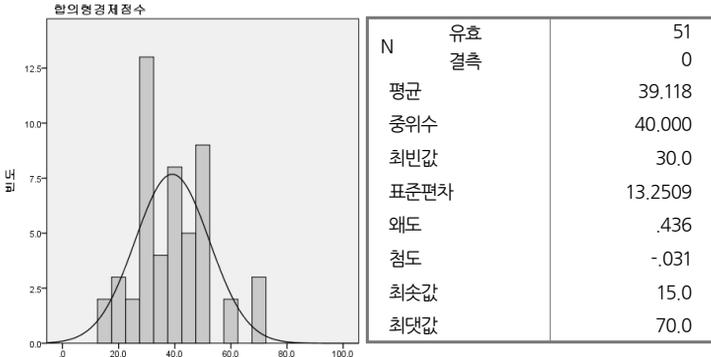
○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4시 57분)



2010년(4시 42분)



통일시간은 2009년 4시 57분에서 15분 후퇴한 4시 42분이다. 경제분야의 경우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와 가장 크게 대조되는 분야이다. 경제분야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통일예측시계의 전 분야 중 가장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듯이 패널의 답변은 최솟값 15에서 최댓값 70으로 상당히 이산되고 있다. 이는 표준편차(13.25)의 크기에서도 나타난다.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한 패널은 46명(88.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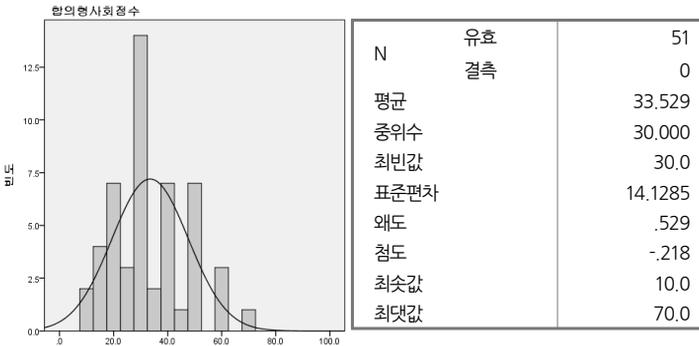
○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4시 26분)



2010년(4시 1분)



사회분야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5분 뒤로 늦추어 졌다. 2010년의 경우 사회분야는 경제분야와 함께 4시대를 지속하고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 100점 척도에서 평균 33.529이며, 28~31점으로 응답한 패널이

14명이나 된다. 응답범위는 10~70점이며, 2009년(10~55점)보다 답변이 더 이산되었다. 92.2%의 패널이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4명이 60점에서 70점 사이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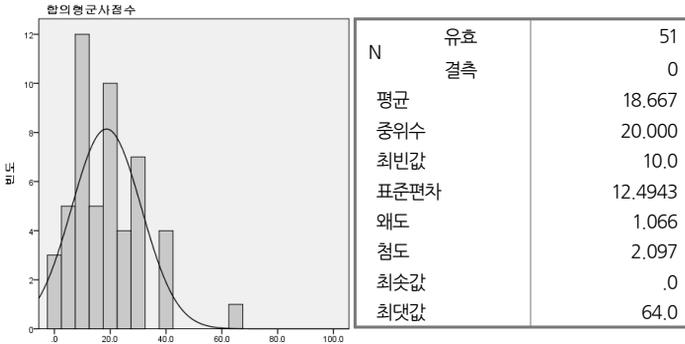
○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2시 51분)



2010년(2시 14분)



군사분야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 분야에서 가장 낮은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37분이 더 후진하였다. 100점 척도에서 평균 33.529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 14분이다. 최솟값과 최댓값의 편차는 6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는 1개 극단치의 역할 때문으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즉, 40점 이하로 평가한 패널이 50명(98%)이며, 그 중 25점(매우 부정적) 이하는 34명(76.5%)에 달한다. 특

히 침도가 2.097로 각 하위분야 시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예측시계 전 분야 중 패널의 의견일치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군사분야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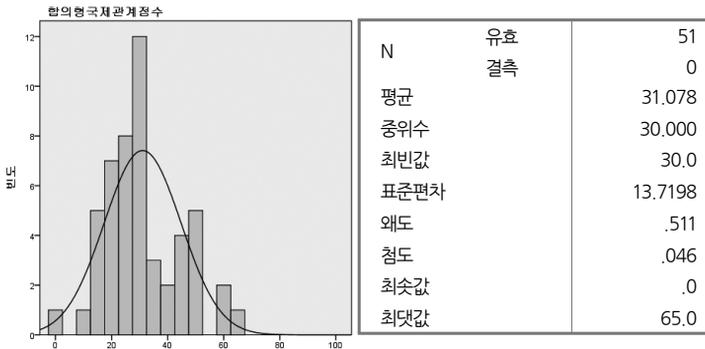
○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4시 27분)



2010년(3시 44분)



2010년 국제관계분야는 합의형 통일시계 중 가장 통일과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평균은 31.078로 시계로 환산할 경우 3시 44분이다. 이는 2009년 4시 27분에 비해 1시간 11분 늦춰진 것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30점(12명)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0점에서 65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국제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50점 이하)은 51명 중 48명, 94.1%에 달하며, 25점 이하는 22명이다.

나. 흡수형 통일시계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흡수형 통일시계에 대한 조사는 합의형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즉, 100점 척도를 4분하여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까지 준거의 기준을 두었으며, 하위분야를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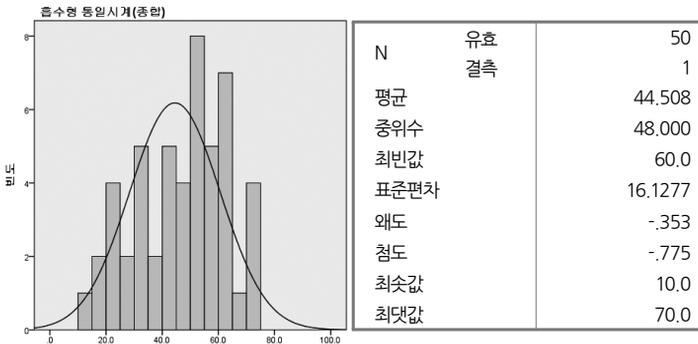
○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5시 56분)



2010년(5시 20분)



2010년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은 평균 44.51을 환산하여 5시 20분으로 나타났다. 2009년 5시 56분 보다 36분 후진한 것이다. 종합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을 묻는 이 문항에 대해 패널은 10점에서 70점까지 부여하였다.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은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응답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선 패널은 흡수형 통일이 합의형보다 1시간 35분가량 더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일시계가 중간지점인 6시보다 늦은 지점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통일에 대한 근접성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통일유형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특성은 패널의 흡수형 통일시간에 대한 평가가 합의형에 비해 더 큰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 히스토그램을 보면, 합의형과 같은 극단치가 없는 대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점에서 70점까지 전 구간에 걸쳐 응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합의형보다 낮은 척도(-.775)와 높은 표준편차(16.13)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합분야에 있어 흡수형 통일이 합의형보다 전반적인 의견불일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8%(20명)의 패널이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55~60점 사이로 응답한 패널이 1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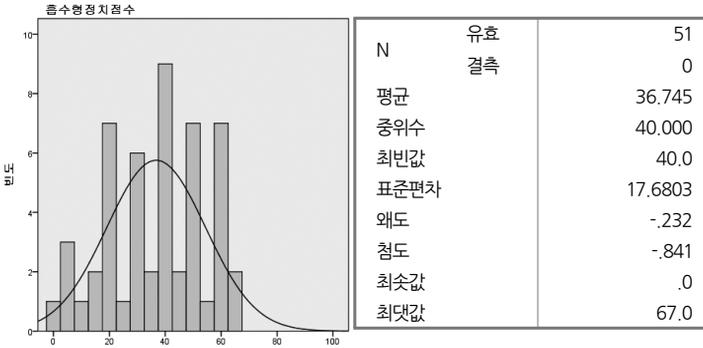
○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5시 44분)



2010년(4시 25분)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은 지난해 5시 44분에 비해 1시간 19분이 늦춰졌다. 이는 2010년 통일시계 12개 항목 중 가장 변화가 큰 수치이다. 100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6.745이며, 이를 시계로 환산하면 4시 25분이 된다. 패널은 0점에서 67점까지 응답하였으며, 표준편차와 첨도는 각각 17.68, -.841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치분야 합의형에 비해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에 대한 패널 간 견해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패널은 40명이며, 78.4%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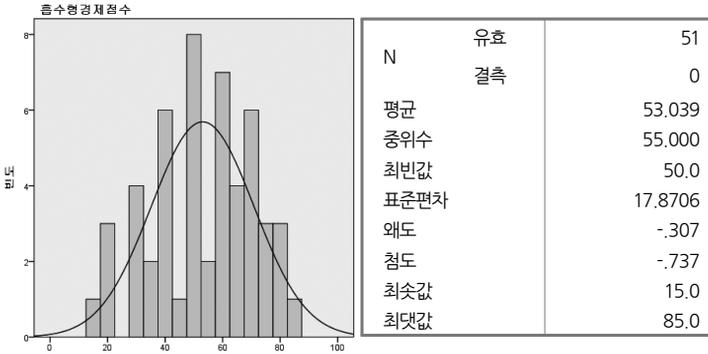
○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6시 26분)



2010년(6시 22분)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의 평균은 53.04로 시계 환산 값은 6시 22분이 다. 델파이 패널에 대한 통일시계 12개 항목 중 유일하게 중간값 6시를 넘기고 있다. 패널은 최솟값 15에서 최댓값 85 사이에서 응답하여 그 범위는 70점이나 된다. 가장 많은 답변은 50점(즉 6시)이었으며, 중위수(median) 54.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를 그리고 있다. 즉, 50점까지의 응답이 49%, 50점 이상의 응답이 51%로 정규성을 상당히 띠고 있다. 경제분야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분 늦춰지는데 그쳐 1년간 거의 의견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델파이 패널의 북한경제위기에 대한 시각이 2009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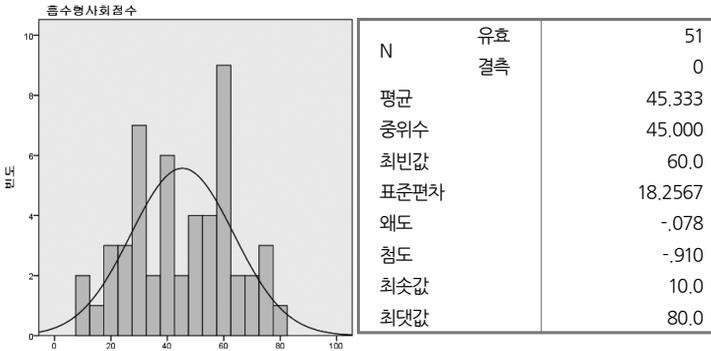
○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5시 38분)



2010년(5시 26분)



사회분야의 흡수형 통일에 대한 응답은 평균 45.3으로 시계 환산 값으로는 5시 26분이다. 사회분야 역시 범위가 70(10~80점)으로 상당히 의견분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분야의 통일시계는 전형적인 쌍봉형(bimodal) 곡선을 그리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위 히스토그램에서 표출되는 것처럼, 패널은 30점에서 40점 사이의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집단과 최빈값 60점을 중심으로 한 다소 긍정적인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표준편차 역시 18.3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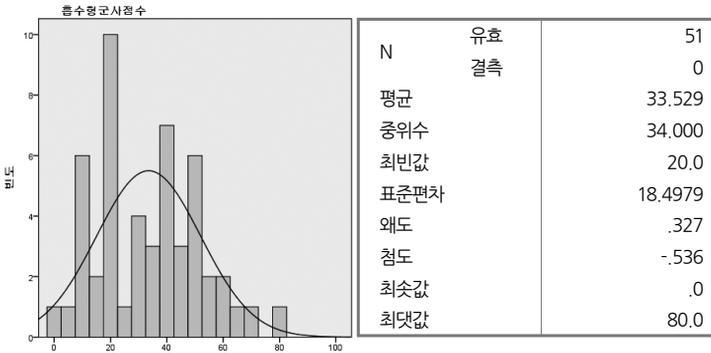
○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4시 53분)



2010년(4시 1분)



2009년과 마찬가지로 군사분야는 흡수형 통일시계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패널 간 이견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패널은 절대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0점에서 상당히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80점까지 무려 80의 범위에서 답변하였다. 평균은 통일시계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33.5로 이를 시계로 환산하면 4시 1분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52분 후퇴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패널은 군사분야의 흡수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빈도가 높은 답변은 20점(10명)과 40점(7명)이었다. 패널의 답변은 대체로 34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산되고 있으며,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패널은 43명(84.3%)이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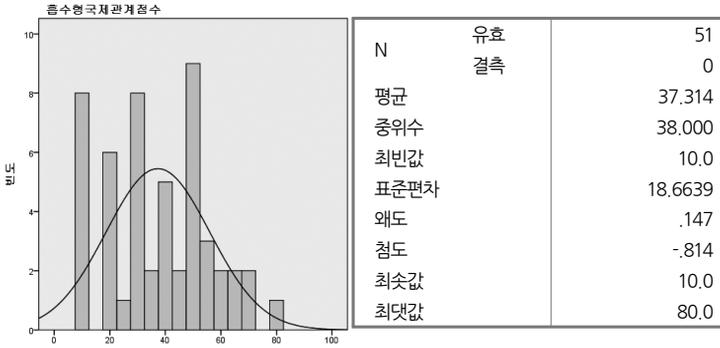
○ 국제관계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5시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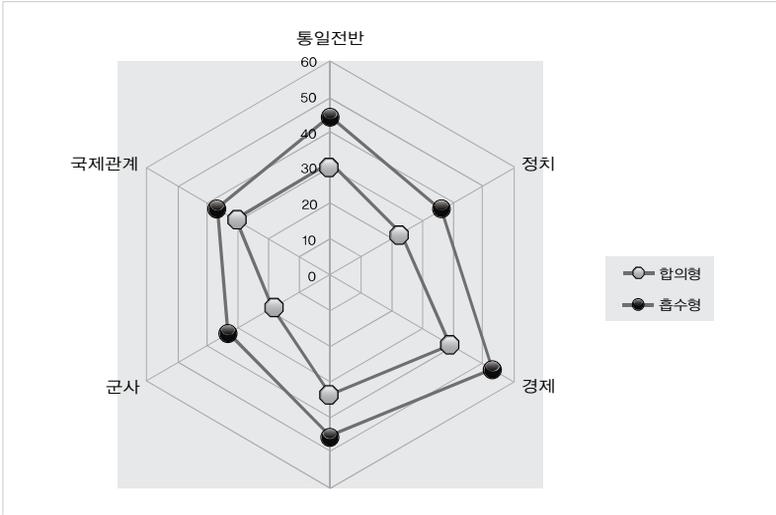


2010년(4시 29분)



국제관계분야의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가는 정치분야와 마찬가지로 2010년 들어 급격히 후진하였다. 시계 환산 값에 따르면, 패널은 2009년에 비해 1시간 11분 늦춰진 4시 29분으로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합의형 통일의 국제관계분야 역시 1시간 11분 후퇴하였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분야의 표준편차는 18.7로서 각 분야별 통일시계 중 가장 크다. 또한 패널의 평가 역시 정규분포형태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위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패널은 10점(8명), 30점(7명), 50점(8명)에 평가가 집중되고 있으며, 41명(78.4%)의 패널이 50점 이하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2 2010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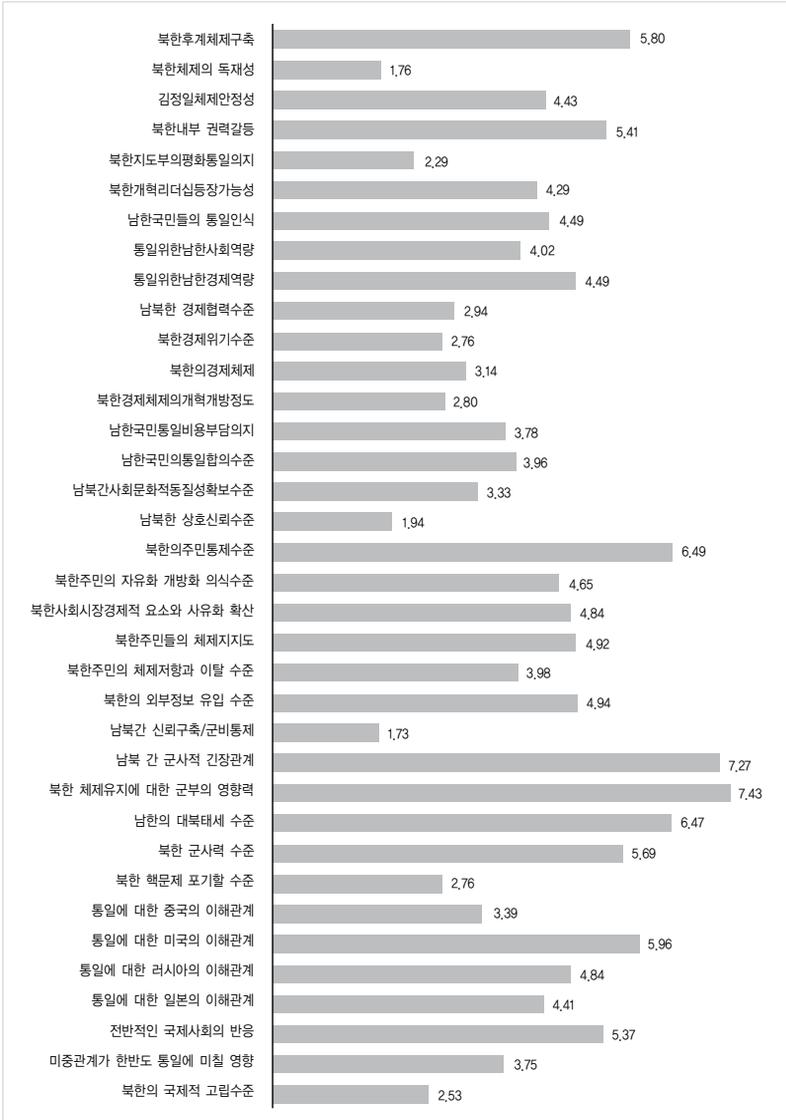


위 방사형 도표는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 및 각 분야 간 통일시계의 상대적 크기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흡수형 통일시계가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는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매우 가까우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점수는 극단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분야와 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은 12개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중간점인 50점을 넘기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그림 III-3 델파이 패널 설문조사(평균)



2009년 1차년도 델파이 조사 결과의 과정에서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1,500개를 재분류하여 33개(하위문항 포함 37개)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⁶ 동 문항은 1차년도 제3차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이용되었다. 2010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명료화하여 36개의 설문문항으로 재조정하였다. 다만,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묻는 1개 문항(문35)이 새로 추가되었다.

설문은 9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지적이 없을 경우 우측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구성되었다.⁷ 9점 척도이므로 모든 문항은 중립점 5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III-3>에 정리된 평균 중 가장 극단값을 보이고 있는 ‘문16.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군비통제’의 경우 1.73으로 이 문항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문18.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평균 7.43으로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의 경우 사례수가 작고 패널 내 이견이 큰 경우가 많아 평균만으로 개별 문항에 대한 추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2009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문항에 대해서는 패널 내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2개의 집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델파이 패널과 동일하다.

6. 선정된 주요 통일영향요인과 분야별 순위에 대해서는, 박영호·김지희, 『통일에 측시계 구축』, pp. 66~73 참조.

7. 통상 리커트 척도는 5점, 7점, 9점등 홀수로 배열하고 있다. 소숫점이 중앙점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10점 척도의 경우 5.5가 중앙점). 본 연구에서 채택한 9점 척도는 5점이 중앙점이 된다. 9점 척도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1점부터 매우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중간점), 약간 긍정적, 긍정적, 상당히 긍정적에서 마지막 9점인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문항에 따라 해석이 반대될 경우가 있으므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1점과 9점에 설명항을 부여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가. 북한 정치분야

정치분야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문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문2),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문3),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문4),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의지(문5), 개혁지도부의 등장 가능성(문6) 등 6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정치분야 중 Q2와 Q5에 대해 패널은 매우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특히 문4의 경우 뚜렷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	누적 %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2	3.9	3.9	3.9	
3	5	9.8	9.8	13.7	
4	3	5.9	5.9	19.6	
5	10	19.6	19.6	39.2	
6	9	17.6	17.6	56.9	
7	16	31.4	31.4	88.2	
8	5	9.8	9.8	98.0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0	2.0	100.0	
합계	51	100.0	100.0		

북한 후계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약 80%의 패널이 ‘보통이다’(5)에서 ‘매우 긍정적’(9점) 사이에 응답하여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7점으로 16명이 답변하였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답변은 대체로 오른 편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범위는 2점에서 9점까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패널의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평균은 5.80으로 빈도분포와 마찬가지로 다소 구축가능성을 높게 보는 답변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	누적 %
전체주의독재체제	22	43.1	43.1	43.1
2	21	41.2	41.2	84.3
3	7	13.7	13.7	98.0
4				
5	1	2.0	2.0	100.0
6				
7				
8				
자유민주주의체제				
합계	51	100.0	100.0	

패널의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일치했다. 2009년 델파이 조사에서 북한 체제변화는 합의형 통일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었다. 대부분의 패널이 극도로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체제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2009년에 비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50명(98%)의 패널이 3점 이하의 평가를 하였다. 특기할 점은 문2의 북한체제 문항은 남북 간 신뢰수준을 조사한 문17과 문24와 함께 패널 간 견해차가 가장 적은 문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1.76, 표준편차 .839이다. 의견일치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첨도 2.89에 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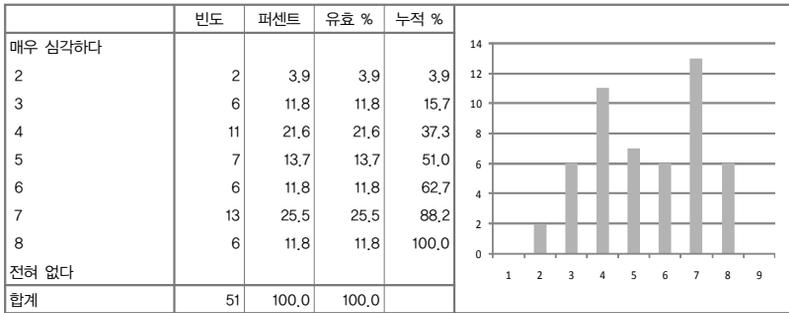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	누적 %
매우 불안정적				
2	3	5.9	5.9	5.9
3	14	27.5	27.5	33.3
4	13	25.5	25.5	58.8
5	8	15.7	15.7	74.5
6	6	11.8	11.8	86.3
7	6	11.8	11.8	98.0
8	1	2.0	2.0	100.0
매우 안정적				
합계	51	100.0	100.0	

현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은 흡수형 통일과 합의형 통일 모두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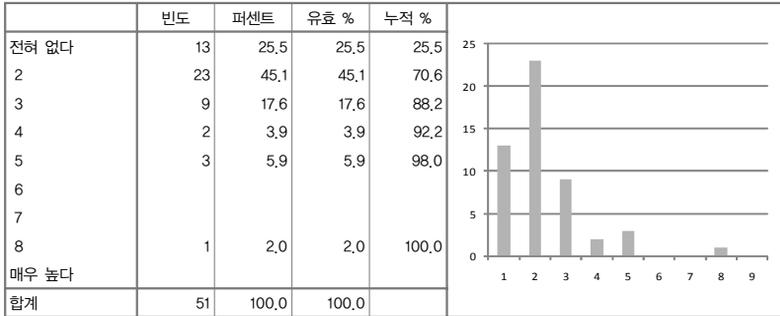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51명의 패널은 3점과 4점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전체 51명의 응답평균은 4.43, 표준편차는 1.54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보통 또는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패널의 숫자도 21명에 달한다. 즉, 패널의 북한체제에 대한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지만, 패널 상당수가 김정일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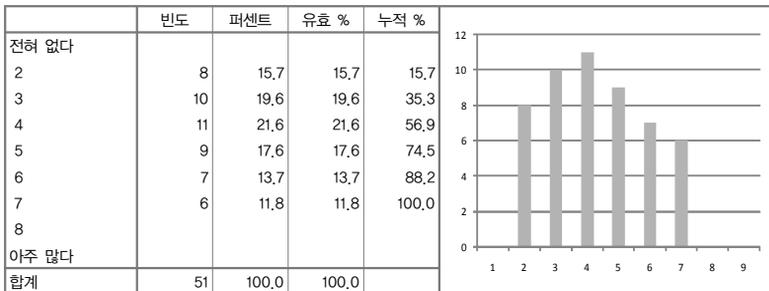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은 2009년 조사에서 흡수형 통일의 결정요인이었다. 패널은 동 문항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갈등이 ‘약간 심각하다’(4점)라는 응답이 11명, ‘심각하지 않다’(7점)라는 응답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답변들이 주변을 에워싸는 전형적인 쌍봉형 도표를 보여준다. 응답 범위는 2점에서 8점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평균은 5.41로 미세하게 ‘권력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패널수가 많다. 표준편차는 1.768로 매우 큰 편이며, 패널 간 답변차를 반영한다. 37.3%의 패널이 권력갈등을 심각하게 보았으며, 13.7%가 중립, 49.1%가 권력갈등이 없는 편으로 보았다.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는 합의형 통일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총 51명 중 47명(92.2%)이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2점)인 견해를 가진 패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점에서 3점 사이에 답변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균 역시 이를 반영하여 2.29이며, 표준편차는 1.331이다. 첨도는 5.982로 이 문항에 대한 패널의 답변집중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답변의 범위는 최솟값 1에서 8까지 넓은 편이지만 8점의 경우는 이례적 극단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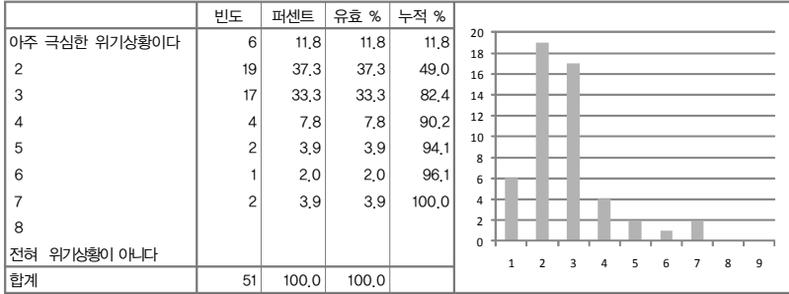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의 개혁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는 평균 4.29, 표준편차 1.604로 나타났다. 평균이 5점 이하이므로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답변은 개혁리더십에 대해 ‘약간 부정적’(4점)이라는 평가이며, 4점을 좌우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4점 이하의 답변은 29명(56.9%)으로 반수를 넘는다. 그러나 ‘보통이다’(5점)라는 답변이 9명(17.6%), 개혁리더십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패널은 13명(25.5%)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9년의 델파이 조사의 경우 개혁리더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10점 척도의 3점). 반면 2010년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패널의 태도변화가 나타나는 문항이다. 즉, 전체 평균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척도 상 2점 정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나. 북한 경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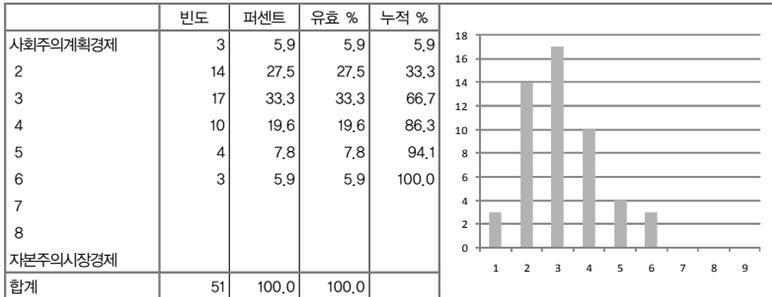
경제분야에 대한 설문은 북한의 경제위기(문11), 북한 경제체제 특성(문12), 개혁·개방의 수준(문13),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의 확산 정도(문20)로 구성되었다. 앞의 세 개의 질문은 각기 구별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답변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델파이 패널은 북한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가까우며, 개혁·개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의 확산에 대해서는 패널 간 뚜렷하게 구별되는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문항은 2009년 델파이 조사 사후분석에서 흡수형 통일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0년 동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적’(2점)과 ‘부정적’(3점)에 대한 답변이 36명(70.6)으로 압도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극도로 부정적’(1점)인 의견도 6명(11.8%)이나 된다. 이에 따라 평균 역시 2.7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표준편차(1.365)를 가지고 있다.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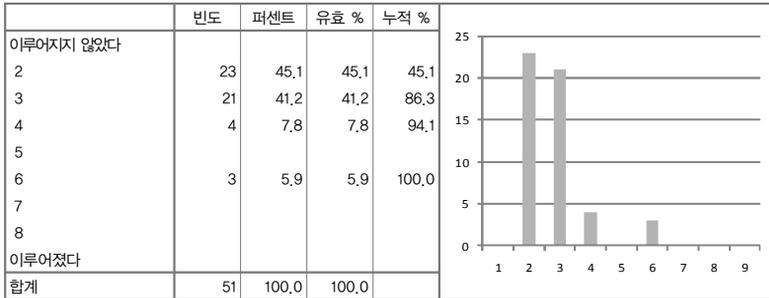


패널의 현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최빈값 3을 중심으로 1에서 6까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평균은 3.14이다. 표준편차는 1.249로 낮은 편이다. 4점 이하의 답변을 한 패널은 44명(86.3%)이다. 답변분포가 다소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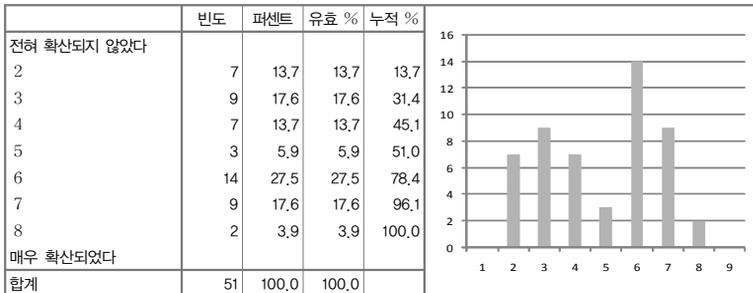
넓은 이유는 일부 패널이 북한의 공식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비공식 경제부문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은 2009년 사후분석에서 합의형 통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혁·개방을 할수록 합의형 통일시간은 앞당겨지는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한 패널의 견해는 거의 일치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해 ‘매우 부정적’(2점) 및 ‘부정적’(3점)인 답변은 44명(86.3)에 달한다. 평균은 2.80이며, 표준편차는 1.02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또한 첨도 역시 3.699로 의견집중을 반영하고 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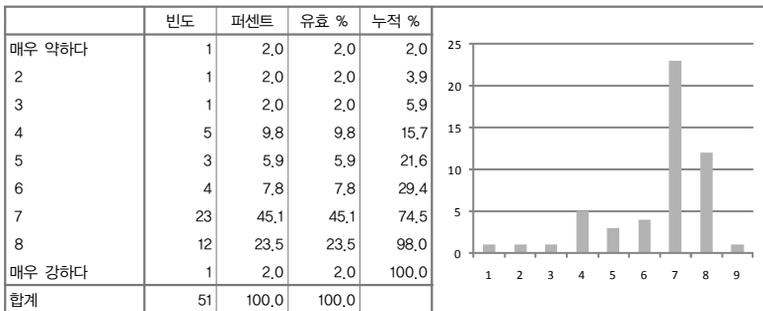
북한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에 대한 답변평균은 4.84이며, 표준편차는 1.859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패널의 견해는 ‘확산되지 않았다’(3점)와 최빈값인 ‘약간 확산되었다’(6점)를 중심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 견해는 23명(45.1%)이며, 6점 이상의 긍정적 답변은 25명(49%)이다. 범위는 최솟값 2에서 최댓값 8까지 넓은 편이며, 패널은 중위수 5를 중심으로 2개 집단으로 분리되고 있다.

동 문항 역시 2009년 조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패널은 최빈값 3점을 중심으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다. 북한 사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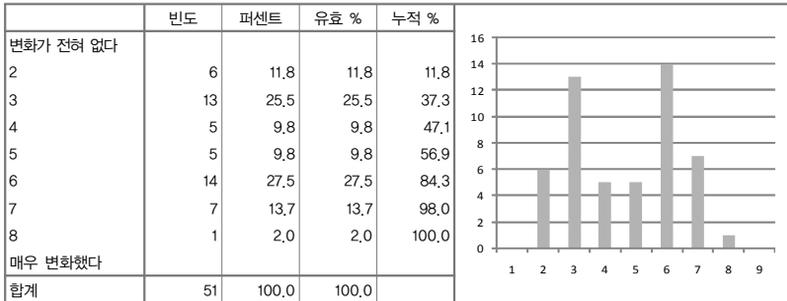
사회분야는 주로 북한 주민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였다. 북한의 주민통제 수준(문18),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문19), 체제 지지도(문21), 체제저항과 이탈(문22), 외부 정보의 유입수준(문23)으로 구성된다.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패널은 가장 넓은 의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하다’(7점)와 ‘상당히 강하다’(8점)에 35명, 68.6%가 집중되고 있으며, 1점부터 9점까지 1명에서 5명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점 이상에 응답한 패널은 40명(78.4%)으로서 패널의 응답범위에 비해 주민통제가 강하다는 응답의 중심 집중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49라는 매우 높은 평균값에서도 반영된다. 표준편차는 1.678이며, 첨도도 1.861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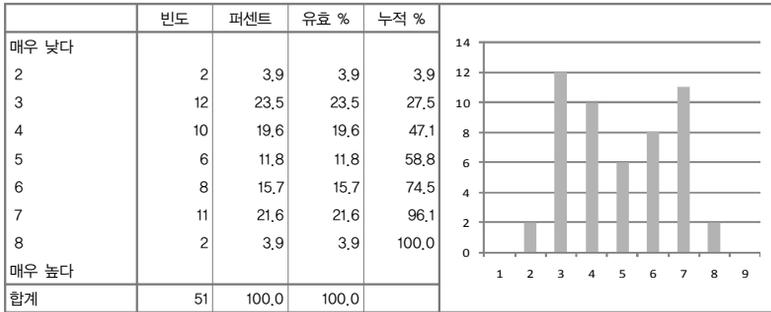


북한주민의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묻는 질문의 전체 평균은 4.65, 표준편차는 1.764로 나타났다. 평균만을 볼 경우 미약하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답변분포는 뚜렷하게 부정과 긍정으로 대립하고 있다. 답변은 3점(14명)과 6점(14명)을 중심으로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4점 이하의 의견은 24명(47.1%)이며, 중립 5명(9.8%), 6점 이상은 22명(43.2%)이다.

특기할 점은 앞서 살펴본 ‘문20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사유화’와 대단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문항은 모두 2009년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5점 이상의 답변이 상당수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의 경우 2009년 동일문항이 10점 척도 상에서 평균 3.91로 최빈값 3을 중심으로 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조사의 경우 평균은 4.65이다. 조사척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⁸ 상당수의 패널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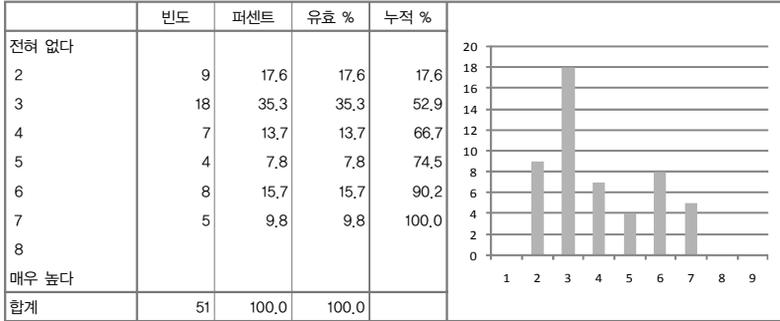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의 체제지지도에 대해 패널은 최빈값 3점(12명)과 7점(11명)을 중심으로 한 쌍봉형 분포의 답변을 하였다. 평균값은 4.92로 5점에 가까우며, 표준편차는 1.707이다. 답변을 보면, 5점을 중심으로 체제지지도가 ‘낮다’에 24명(47.1%), ‘높다’에 21명(41.2%)으로 대칭형 쌍봉분포를 그리고 있다.

⁸ 2009년 평균 4.65와 2010년 평균 3.91의 차이는 0.74이다. 그러나 10점 척도의 중간점은 5.5점이며 9점 척도는 5점인 것을 감안하면, 실 평균 차는 0.74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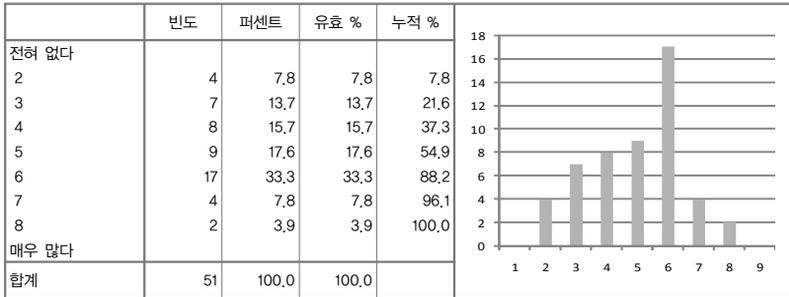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문21과 대칭적 관계이며, 역방향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두 문항의 답변은 독립적이다. 즉 체제에 대한 지지도 저하가 체제저항과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그러한 이유는 문18의 북한의 주민통제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볼 경우 논리적으로 연계된다. 즉, 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고 있으나(문21), 주민통제의 수준이 매우 높으므로(문18) 그것이 체제저항과 이탈(문22)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에 대해 18명의 패널이 ‘부정적’(3점)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패널은 2점에서 7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1.643으로 계산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체제저항과 이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은 34명(66.7%)에 달한다. 또한 체제저항과 이탈의 수준이 ‘다소 있다’(6점)와 ‘있다’(7점)에 응답한 패널은 13명이다. 미세하나마 쌍봉형 분포를 지나 아직은 그 숫자가 미미한 상태이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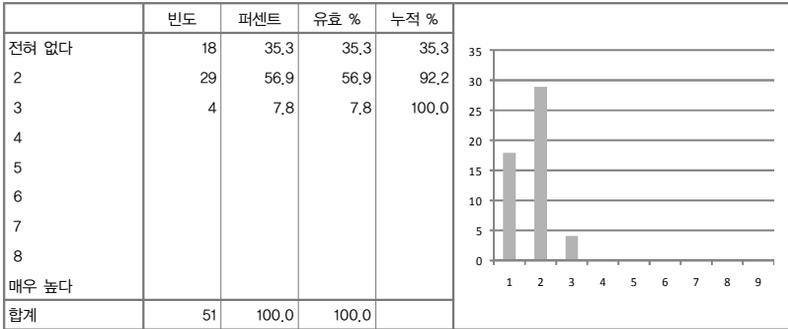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최빈값 6점을 중심으로 2점에서 8점까지 매우 넓은 답변분포를 보이고 있다. 평균은 4.94로 거의 5점에 가까우며, 표준편차는 1.567이다. 패널 중 19명(37.3%)이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23명(45%)이 6점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즉, 평균값으로는 미세하게 5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했을 경우에는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라. 군사분야

군사분야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문24), 군사적 긴장수준(문25), 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역할(문26),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문27), 북한의 군사력 수준(문28), 북핵 포기 여부(문29)를 조사하였다. 패널은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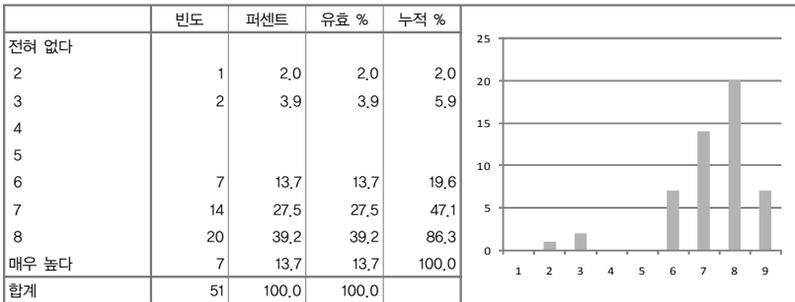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 신뢰구축은 2009년 조사에서 합의형 통일의 구성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패널의 군사분야에 대한 의견은 압도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극도로 부정적’(1점)에 18명, ‘매우 부정적’(2점)에 29명, ‘부정적’(3점)에 4명이 분포되고 있으며, 평균 1.72에 표준편차는 대단히 낮은 편인 .607이다.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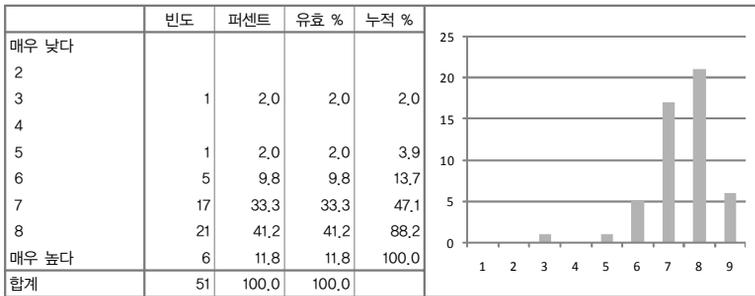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최빈값 8점(20명)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답변의 범위는 2점에서 9점까지 대단히 넓은 편이지만, 단 3개의 사례만이 군사적 긴장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7.27이며, 표준편차는 1.471이다. 답변의 집중도는 첨도가 4.174나 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극단 값(9점)으로 답변한 경우도 7개의 사례가 있다. 6점 이상의 답변은 48명(92.1%)이다.

본 문항 역시 2009년 동일문항에 대한 답변분포와 차별된다. 2009년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별로 없다’(4점)와 ‘긴장이 있다’(7점)의 쌍봉형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없다’고 평가한 대부분의 패널이 6점 이상으로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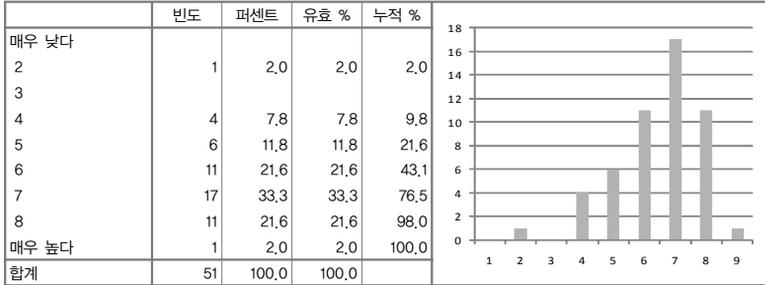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부 영향력에 대한 답변 역시 최빈값 8점(21명)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평균은 7.43, 표준편차는 1.10으로 나타났다. 총 49명(96%)이 6점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극단치 9점에는 6명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답변경향은 2009년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1~2개의 응답이 존재했던 것에 반해, 2010년의 조사에서는 대부분 6점 이상으로 수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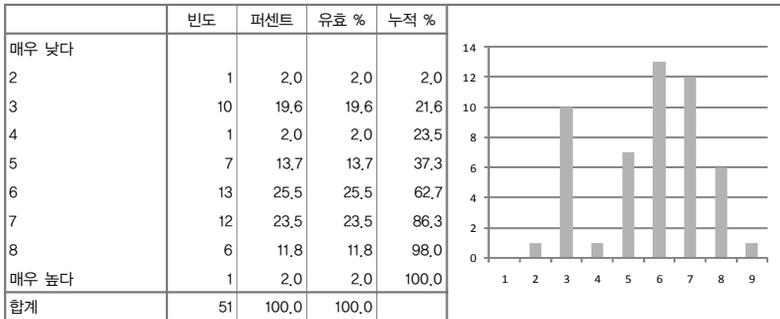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널은 남한의 대북태세에 대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6.47, 표준편차는 1.391로 계산되었다. 답변의 범위는 2점에서 9점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고 있으나, 왜도가 4.212로 중위수 7점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군사적 대북태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은 39명(76.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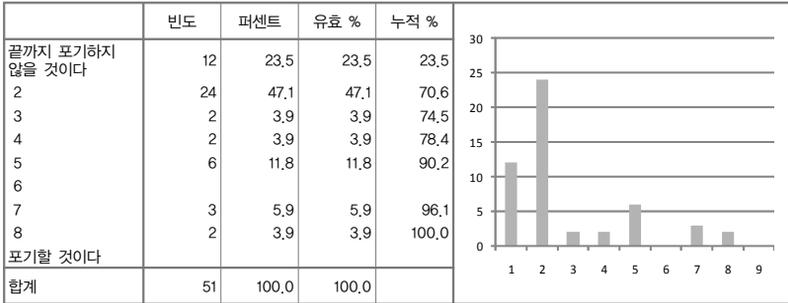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2점에서 9점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항목별 빈도도 넓게 분포되고 있다. 평균은 5.69, 표준편차는 1.772이다. 즉, 패널은 대체로 군사력 수준에 대해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빈도를 살펴보면, 4점 이하로 응답한 패널이 12명(23.5%), 6점 이상이 31명(60.8%)이다. 세 배에 가까운 응답

이 북한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무시 못 할 수의 패널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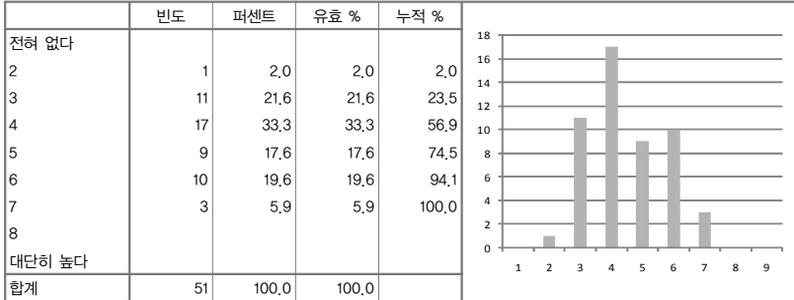


북핵문제에 대한 패널의 답변은 1점에서 8점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지만, 상당히 집중적인 답변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2점에 36명(70.6%)이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점수에는 2~6명이 분포하고 있다. 평균은 2.76이며, 표준편차는 1.966으로 높은 편이다. 5명(9.8%)의 패널이 북한의 핵 포기를 예측하고 있다.

마. 남한의 역량 및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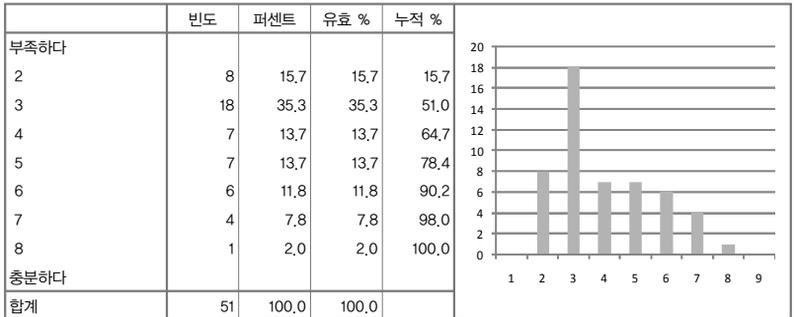
남한의 역량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남한 국민의 통일 인식(문7),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과 경제적 역량(문9), 통일비용 부담의지(문14),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 간 합의수준(문15)이며, 후자는 남북 경험수준(문10),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수준(문16), 남북 당국간 상호 신뢰수준(문17)이다.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 모두에 있어 남한의 역량은 중요한 통일요인이다. 그 첫 번째 문항으로 남한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물었다. 패널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4점에 가장 많은 17명이 답변하였다. 4점 이하의 답변은 29명(56.9%)이며, ‘보통이다’(5점)에 9명(17.6%)이, ‘약간 높다’ 및 ‘높다’에 13명(25.5%)이 답변하였다. 남한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대한 평가는 평균 4.49, 표준편차 1.25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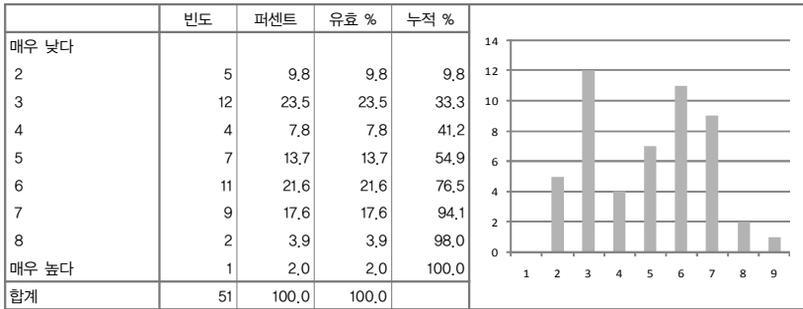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문항은 통일인식을 묻는 앞의 문항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패널은 3점에 가장 많은

18명이 응답하였으며, 2점에서 8점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응답하였다. 11명(21.6%)의 패널이 사회적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3명(64.7%)에 달한다. 평균은 4.02, 표준편차는 1.647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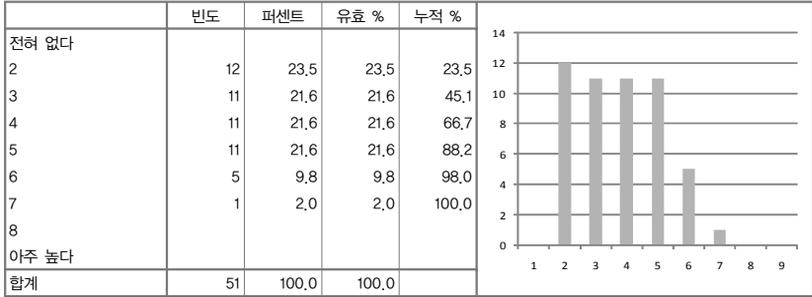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두 문항이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역량이라는 비물질적 통일요인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문항은 남한의 물질적 통일역량에 대한 질문이다. 남한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패널의 답변은 긍정과 부정으로 뚜렷하게 견해가 갈리고 있다. 패널은 최빈값 3점에 12명이 답변하였으며, ‘다소 긍정’(6점)에 11명이 답변하였다. 나머지 답변은 이들 두 개의 쌍봉을 중심으로 2점에서 9점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위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패널의 동 문항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이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은 거의 중간점에 가까운 4.92이며, 표준편차는 1.885이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은 21명(41.2%)이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의견은 22명(4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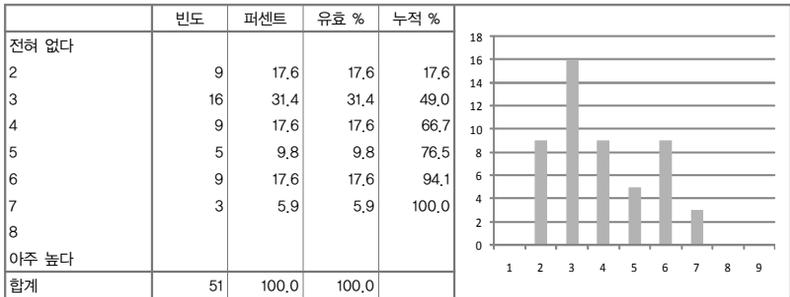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에 대한 답변은 ‘매우 부정적’(2점)인 의견이 가장 많은 12명이며, 3점에서 5점까지 11명씩 답변하였다. 이 중 4점 이하의 부정적인 견해는 34명(66.7%)이며, ‘보통이다’(5점)가 11명(21.6%), 긍정적인 견해(6~7점)는 6명(11.8%)이 답했다. 평균 3.72로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1.3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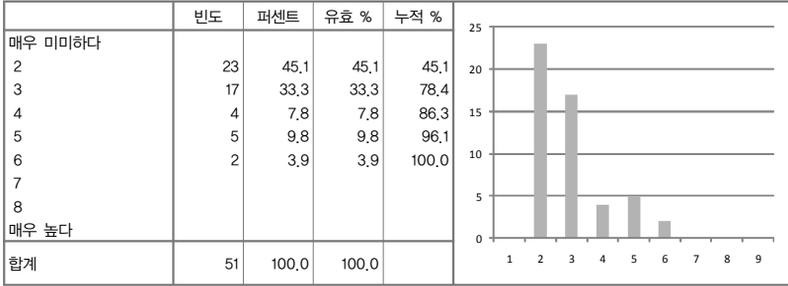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위 14번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패널은 최빈값 3점을 중심으로 2점에서 7점까지 답변하였으며, 4점 이하의 부정적인 견해는 34명(66.7%)이 답변하였다. 긍정적인 견해(6~7점)는 12명(23.5%)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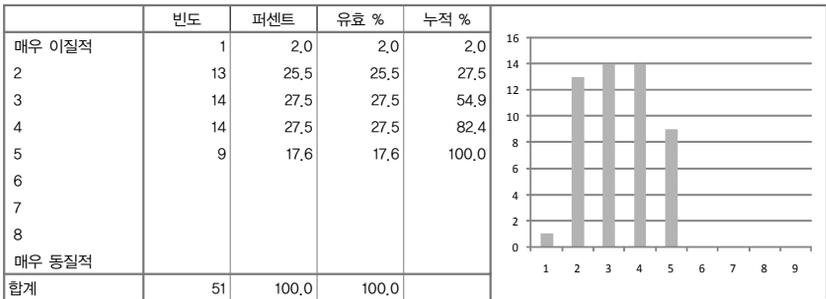
평균은 3.96으로 남한국민의 비용부담 의지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준편차는 1.549이다.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남북경협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매우 부정적’(2점)이라는 답변에 가장 많은 23명이 집중되었으며, 4점 이하의 답변이 44명(86.3%)에 달한다. 평균 역시 2.94로 동 문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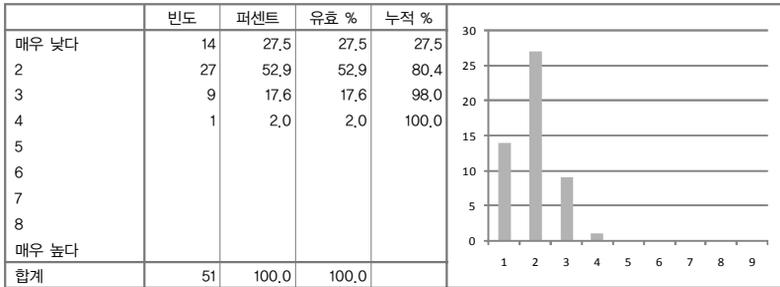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질문은 2009년 델파이 조사에 비해 더 좁은 범위로 답변하고 있으며, 동질성의 수준도 다소 낮아진 것

I
II
III
IV
V
VI
VII

으로 평가된다. 2009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언급이 4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2010년 조사에서 패널은 ‘매우 부정적’(2점), ‘부정적’(3점), ‘다소 부정적’(4점)에 각각 13, 14, 14명이 답변하였다. 총 42명(82.4%)이 4점 이하의 답변을 하였다. 평균은 3.33이며, 표준편차는 1.108이다. 요컨대 패널은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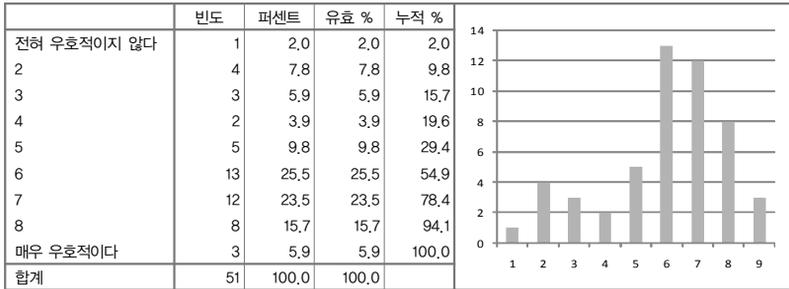
패널은 남북 당국 간 상호신뢰의 수준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보였다. 모든 패널이 4점 이하의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빈값은 2점으로 27명이 응답하였다. 특히 패널조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극단 값(1점)에 대해 14명이 답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평균은 매우 낮은 1.92로 계산되었다. 패널 간 의견차는 매우 작으며, 표준편차 역시 이를 반영한 .724이다.

바. 국제관계분야

델파이 조사 중 국제관계분야 역시 통일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미국(문31), 중국(문30),

러시아(문32), 일본(문33)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평가(문34)하도록 했으며, 미·중관계의 영향력(문35)과 북한의 고립수준(문36)도 질문하였다.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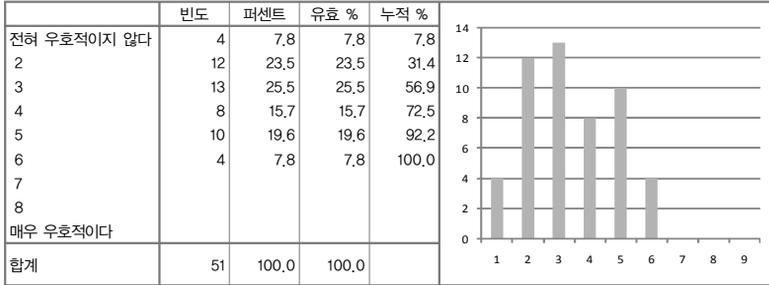


2009년 사후분석에서 미국은 흡수형 통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문항은 2009년 미세한 쌍봉형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2010년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넓은 범위로 이산되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패널은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른 주변국에 대한 평가가 모두 부정적인 것(평균 5 이하)과 대조된다. 통일에 대해 미국이 ‘다소 우호적’(6점)이라는 응답은 가장 많은 13명이며, ‘우호적’(7점)의 경우 12명이다. 답변은 6점과 7점을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으나, 범위가 1점에서 9점까지 매우 이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균은 5.96으로 계산되었으며, 표준편차는 2.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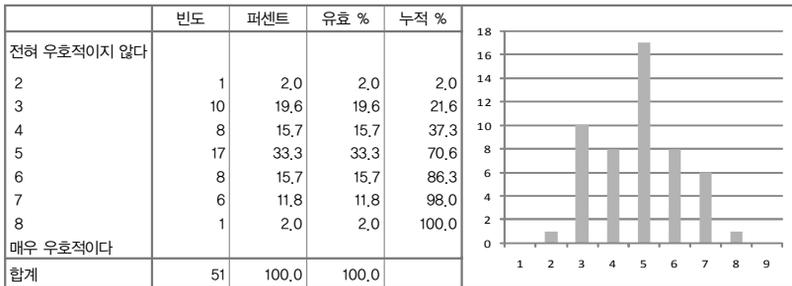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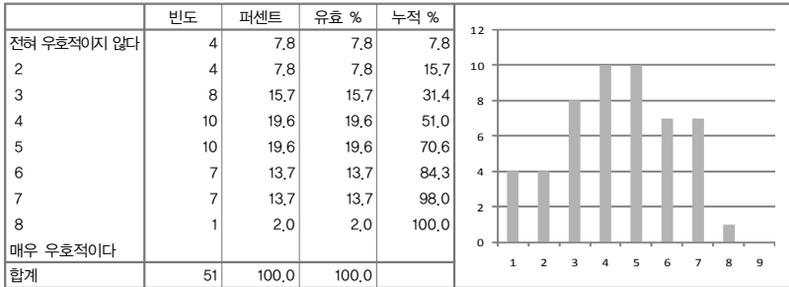
2009년 사후분석에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합의형 통일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동일문항에 대한 조사는 2009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패널은 대체로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 37명(72.5%)의 패널이 4점 이하에 답변하였다. ‘중도적’ 답변은 10명이며, ‘다소 우호적’일 것이라는 답변(6점)은 4명이다. 평균은 3.38, 표준편차는 1.455이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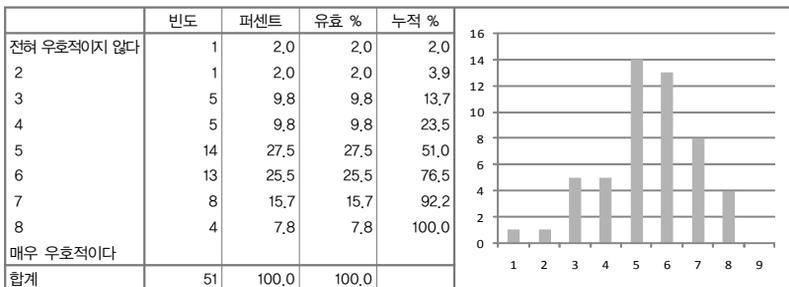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4.84이며, 최빈값 5점에 17명이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역할에 부정적인 시각은 19명(37.3%)이며, 긍정적인 시각은 15명(29.5%)이다.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널은 러시아보다 일본의 통일에 대한 역할을 미세하나마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최빈값은 4점과 5점이며, 각각 10명이 응답하였다.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6명(51%)이며,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5명(29.4%)이다. 평균은 4.41, 표준편차는 1.835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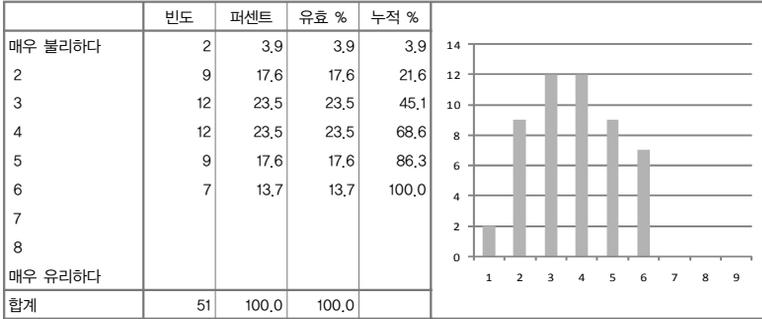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텔레파이 패널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7명(53%)이 5점과 6점에 집중된 분포이다. 그러나 답변의 범위는 1점부터 8점까지 매우 넓으며, 부정적인 평가도 12명(23.5%)에 달한다. 전체 평균은 5.37, 표준편차 1.57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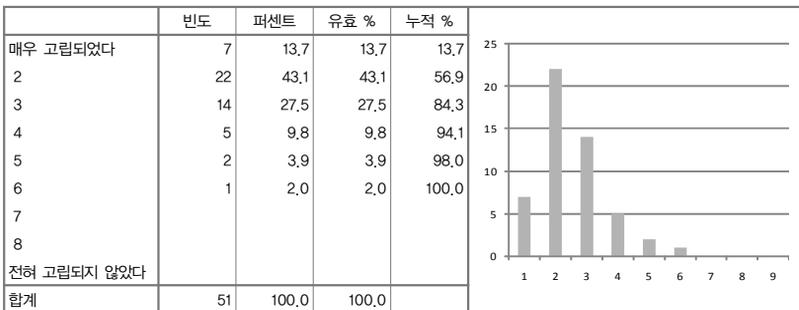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35.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 문항은 2010년 델파이 조사에서 처음 추가되었다. 2009년 사후분석 과정에서 양국은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과 각각 높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국의 상호관계에 대한 패널의 의견이 중요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패널의 의견은 최빈값 3점(‘불리하다’)과 4점(‘다소 불리하다’)을 중심으로 대체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답변은 극단 값 1점에서 6점까지의 범위로 비교적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균값은 3.75이며, 표준편차는 1.412이다. 패널 중 35명(68.6%)이 4점 이하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긍정적인 평가는 7명(13.7%)이 하였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은 2009년 평가에 비해 더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2점을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고립되었다’는 4점 이하의 평가는 48명(94.1%)에 달한다. 2009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포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고립되지 않았다’는 평가의 수가 적어졌으며, 2점이라는 극단 값에 가까운 점수 중심으로 분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제적 고립수준의 평균은 2.53으로 매우 낮으며, 표준편차는 1.102이다.

3. 2010년 델파이 패널 조사 요약

2010년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에 비해 작게는 4분에서 많게는 1시간 19분 후퇴하였다. 가장 현저하게 변화된 분야는 흡수형 정치분야(1시간 19분), 흡수형 국제관계분야(1시간 11분), 합의형 국제관계분야(1시간 11분), 합의형 정치분야(1시간 8분), 흡수형 군사분야(52분) 등이다. 반면에 흡수형 경제분야(4분)와 합의형 경제분야(15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형보다 흡수형이 통일에 더 가깝다는 2009년 패널의 의견은 2010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흡수형 통일은 전 분야에서 합의형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그 중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이 가장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은 다른 분야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통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널의 응답범위는 2009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09년 패널은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에 대해 65점 범위(5~70점), 전반적인 흡수형의 경우 65점 범위(15~80점)에서 응답하였다. 2010년의 범위는 각각 58점(5~63점), 60점(10~70점)으로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2010년

I
II
III
IV
V
VI
VII

델파이 조사는 2009년의 응답이산을 축소시키기 위해 보다 명료하고 직관적인 설문문항으로 변형하고 기준점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델파이 패널이 장기간 북한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북한정보 접근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히 존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응답이산은 통일요인 설문문항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통일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패널이 합의형에 대해서는 2009년에 비해 다소간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흡수형 통일의 경우 오히려 더 큰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 6개 전 분야의 표준편차는 11.93에서 14.13의 범위에 있으며 범위는 55에서 64점 사이에 있다. 반면 흡수형 통일의 경우 16.13에서 18.66에 달하며, 범위는 60에서 80점 사이에 있다. 100점 척도에서 흡수형 통일과 같은 의견이산은 패널 간 견해가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조사

텔파이 패널에 대한 비교집단으로서 비패널 전문가와 대북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두 집단은 모두 일반인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며 정보접근이 용이한 관심집단으로 간주하였다. 비패널 전문가 30명은 외교·안보·북한 관련 학교와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자군이다. 학자명단에서 비확률적 편의표집 된 50명에게 2009년 텔파이 조사 결과와 2010년 설문지를 보내 그 중 30명분을 회수되었다. 대북사업자 20명은 현재 개성공단 남측 기업가 및 직원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2010년 설문 20부를 위임하여 전량 회수되었다. 비패널 전문가와 대북사업자는 당초 동일집단으로 설정한 뒤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두 집단 간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들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 별도의 절로 분리하였다. 두 집단의 사례수가 각각 30개, 20개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모수통계기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집단이 표출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어 전반적인 추이와 집단 간 특성을 살펴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장에서는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을 통해 통일시계 각 항목과 통일요인에 대해 어떤 정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집단 간 비교는 제Ⅶ장에서 t-검증 및 분산분석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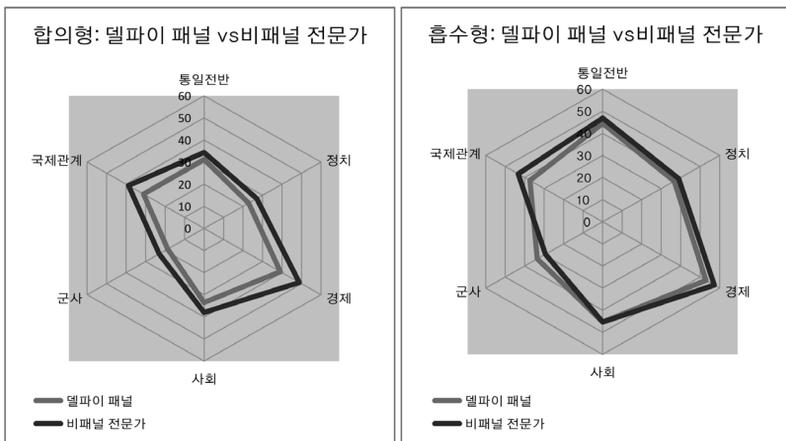
1. 비패널 전문가

비패널 전문가는 전원이 2010년 최초로 설문에 노출된 집단이다. 또한 기존의 2009년 델파이 패널과 동일한 외교·안보·북한관련 학자명단에서 추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두 집단은 전 분야에 걸쳐 상이성보다는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유사점은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시간평가의 순위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비패널 전문가는 델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1) 합의형 통일보다 흡수형 통일이 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 경제 및 사회분야가 정치·군사 분야보다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흡수형 통일시계 6개 분야는 두 집단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분야는 합의형 통일시계이다. 비패널 전문가는 6개 통일시계 전 분야에서 델파이 패널보다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경제분야와 국제관

●그림 IV-1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통일시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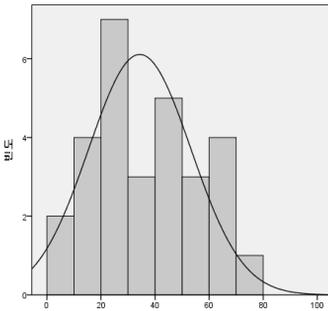
계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해 각각 1시간 10분과 55분이라는 큰 차이로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 통일에측시계: 비패널 전문가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비패널 전문가
4시 7분
패널+22분



N	유효 결측	29 1
평균		34.345
중위수		30.000
최빈값		25.0
표준편차		18.9327
왜도		.276
첨도		-.710
최솟값		5.0
최댓값		75.0

종합적인 합의형 통일시간에 대한 비패널 전문가의 평가는 4시 7분이다. 이는 평균 34.35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며, 패널에 비해 약 22분 빠른 시간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25점(3시)이었으며, 이 역시 패널의 20점(2시 24분)보다 빠른 시간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비패널 전문가의 답변은 중위수 30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넓게 이산되어 있으며, 범위(70)와 표준편차(18.9327) 모두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합의형 통일에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례는 24개, 79.3%이다.

○ 분야별 합의형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 분야
3시 15분	5시 52분	4시 34분	2시 46분	4시 39분
패널+30분	패널+1:10	패널+33분	패널+32분	패널+55분

합의형 5개 하위분야는 대체로 델파이 패널과 형태면에서는 유사한 시계분포를 나타냈으나, 전 분야에서 패널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 군사 분야의 시계가 경제와 사회 분야보다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경제분야는 중간점인 6시에 가깝게 측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비패널의 경우 사례수가 패널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와 범위가 비교적 크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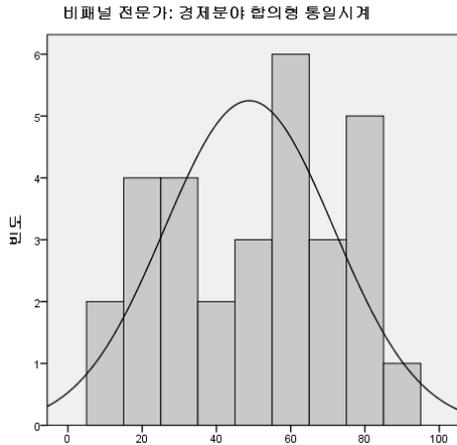
비패널 전문가가 평가한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간은 3시 15분이다. 이는 패널에 비해 30분가량 통일에 가까우나 여전히 이 분야의 합의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이다. 평균은 27.03, 표준편차는 17.678이다. 답변은 2점에서 65점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10점과 25점으로 각 5명씩 답변하였다. 50점(6시) 이하의 ‘부정적’ 답변은 총 26명으로 83.3%에 해당한다.

경제분야는 합의형 통일시계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평

표 IV-1 비패널 전문가 합의형 통일시계 통계량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군사 분야	국제관계 분야
N	유효	30	30	30	30	30
	결측	0	0	0	0	0
	평균	27.033	48.833	38.000	23.033	38.800
	중위수	25.000	52.500	37.500	20.000	40.000
	최빈값	10.0	20.0	50.0	10.0	30.0
	표준편차	17.6781	22.8067	20.8095	16.5935	21.8812
	왜도	.634	-.163	-.049	.725	-.050
	첨도	-.447	-1.124	-1.148	-.532	-1.042
	최솟값	2.0	10.0	3.0	1.0	2.0
	최댓값	65.0	90.0	70.0	60.0	80.0

균은 48.8이며 시계 환산 값은 5시 52분으로 중간점 6시에 근접한다. 평균만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통일에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는 평균과 다른 기술통계값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한 비패널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른 하위분야에 비해 가장 이산적이기 때문이다. 즉, 표준편차는 22.8이며, 범위는 10에서 90까지 매우 넓다. 특히 50점 이하와 51점 이상에 각각 15명씩 답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6시에 8분 모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자란 시간으로 인해 비패널 전문가들이 통일에 다소 부정적이라고 선 불리 평가할 수 없으며, 중심점 6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집단이 뚜렷 하게 양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히스토그램에서도 뚜렷한 쌍봉형 분포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델파이 패널의 경우 50점 이하의 부정적 응 답이 88.2%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이다. 도표에서 60점이 최 빈값으로 보이는 이유는 도표가 10점 단위의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이 며, 실제 최빈값은 20점, 60점, 75점에 각각 4명씩 포진하고 있다. 델파 이 패널과 비교할 때 경제분야 합의형 시계는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패널의 4시 42분에 비해 무려 1시간 10분의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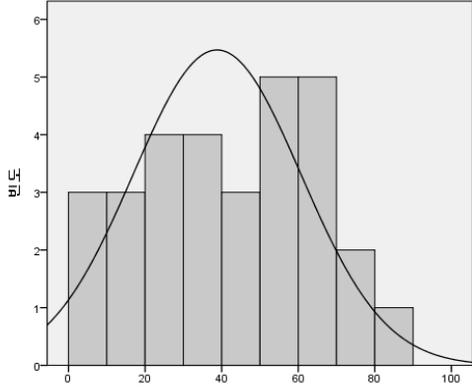
사회분야 역시 비교적 이산적인 답변을 하였다. 평균값은 38.0으로 이에 대한 시계환산 결과 4시 34분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다소 부정적 인 평가이다. 표준편차는 20.81, 범위는 최솟값 3점에서 최댓값 70점으 로 넓은 편이다.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50점 이며, 50점 이하의 답변은 총 23명으로 76.7%에 해당한다.

합의형 통일시계 중 군사분야는 비교적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 평 균 23.03이며, 시계 환산 값은 2시 46분이다. 이 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준편차(16.594)와 범위 (59)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비패널 전문가 30명중 1명이 60점을 평 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5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가장 많 은 답변은 비교적 극단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10점이며, 7명이 답 변하였다.

경제분야에 이어 국제관계분야에 대한 평가도 이산적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간은 4시 39분이며, 이는 평균 38.8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국제관계 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최빈값은 30점, 50점, 60점이며 각각 4명이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50점 이하가 21명(70%)으

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며, 중위수 40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산되고 있다. 델파이 패널은 국제관계분야의 합의형 시간을 3시 44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비패널 전문가는 55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패널 전문가: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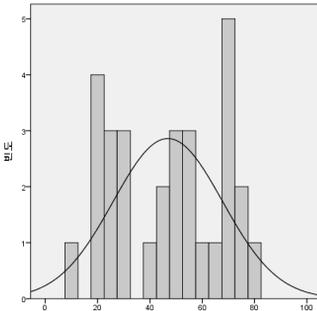
○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



비패널 전문가

5시 37분

+17분



N	유효 결측	30 0
평균		46.867
중위수		50.000
최빈값		70.0
표준편차		20.9198
왜도		-.084
첨도		-1.365
최솟값		10.0
최댓값		80.0

합의형 통일의 6개 분야에 대해 비패널 전문가는 패널보다 다소 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산적이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델파이 패널에 비해 합의형 통일이 더 가까우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사례수가 적은 상황에서 넓은 범위의 답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적 평균검증을 할 경우 두 집단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동일집단으로 나타난다.

한편 비패널 전문가의 흡수형 통일에 대한 시각은 합의형에 비해 편차가 적으며, 오차와 신뢰구간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비패널 전문가는 흡수형 통일 6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패널에 비해 통일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군사부문에 대해서는 패널보다 통일에서 더 멀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종합적인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37분으로 나타났다. 평균 46.87로부터 도출되었으며, 표준편차는 20.92로 높은 편이다. 50점 이하로 답한 사례는 17개(56.7%), 51점 이상은 13개(43.3%)로 중위수 50에서 좌우로 분포되고 있다. 평균값이 중간값 50점에 가까운 점과, 상당수의 사례가 51점 이상에도 분포된 점, 그리고 히스토그램 상의 분포를 고려하면, 비패널 전문가의 답변이 좌우로 이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빈값은 70점으로 5개의 사례가 있으며, 20점에는 4개의 사례가 몰려 있다. 즉, 흡수형 통일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없다’는 측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비패널 전문가는 흡수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1시간 30분 더 빠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시간차는 델파이 패널의 1시간 35분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수 간 범위가 최솟값 10점에서 최댓값 80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표준편차 역시 높아 비패널 전문가 간 이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델파이 패널의 흡수형 통일 시간 5시 20분보다는 17분 빠른 것으로 계산되었다.

○ 분야별 흡수형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 분야
4시 41분	6시 53분	5시 26분	3시 31분	5시 12분
패널+16분	패널+31분	패널+0분	패널-30분	패널+43분

● 표 IV-2 비패널 전문가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군사 분야	국제관계 분야
N	유효	30	30	30	30	30
	결측	0	0	0	0	0
	평균	39.000	57.333	45.333	29.367	43.333
	중위수	35.000	60.000	50.000	20.000	45.000
	최빈값	10.0	70.0	30.0	20.0	50.0
	표준편차	22.7959	21.8827	21.4127	20.4509	21.4288
	왜도	.291	-.132	-.097	.810	-.095
	첨도	-1.201	-1.064	-1.336	-.027	-.993
	최솟값	5.0	20.0	10.0	.0	5.0
	최댓값	80.0	90.0	80.0	80.0	80.0

흡수형 통일시계 5개 하위분야 중에서 정치, 경제, 국제관계분야는 델파이 패널보다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회분야는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하였다. 반면 군사분야의 경우 패널보다 30분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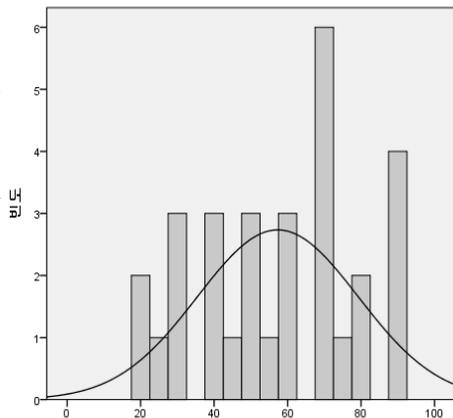
통일과 반대방향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비패널 전문가 집단이 패널보다 통일시점을 늦게 평가한 유일한 경우이다. 전 분야에서 비패널 전문가 집단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고 있으며, 표준편차 역시 높은 편이다.

정치분야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4시 41분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은 39이며 표준편차는 22.80으로 높은 편이다. 21명(70%)이 통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며, 반면에 9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최빈값은 10점, 20점, 70점이며 각각 4명이 답변하였다. 정치분야의 경우 델파이 패널의 4시 25분보다 16분 빠르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12개 통일시계 분야 중 유일하게 6시 시점을 넘긴 6시 53분으로 측정되었다. 평균은 57.33이며, 표준편차는 21.88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패널 전문가들은 최솟값 20점에서 최댓값 90점 사이에서 평가하였으며, 최빈값은 6명이 답변한 70점이다. 76점 이상, 즉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20%에 해당하는 6명이며, 51점 이상은 총 17명(56.7%)이다. 그러나 최빈값 70점을 제외하고는 20점부터 90점까지 매우 고른 분포

를 보이고 있어 흡수형 경제 통일에 대한 중심 집중적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현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더 많은 사례수가 확보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히스토그램 상에서도 넓은 범위의 고른 답변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50점

비패널 전문가: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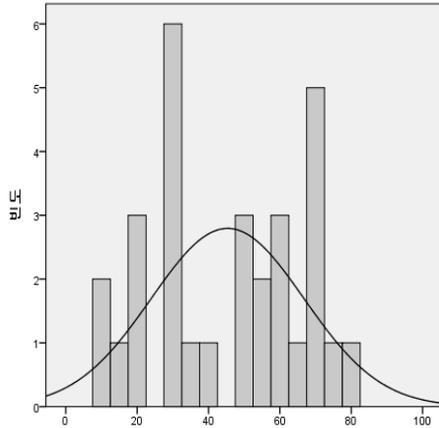


이하의 답변은 13명(43.3%), 51점 이상은 17명(56.7%)으로 경제분야 흡수통일에 긍정적가능성을 부여한 전문가가 5명 더 많다.

흥미롭게도 사회분야의 경우 델파이 패널과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45.33이며, 시계 환산 값은 5시 26분이다. 범위 역시 패널과 비패널이 공히 10점에서 80점으로 동일하다. 또한 뚜렷하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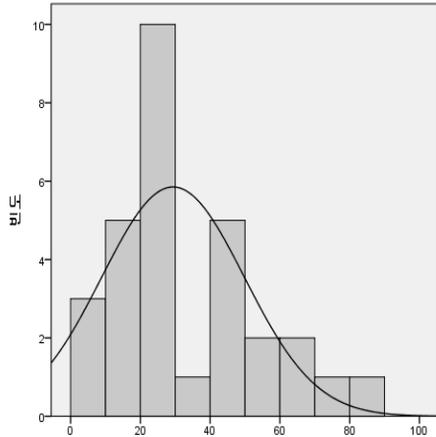
별되는 점도 일치하고 있다. 점수분포를 보면, 50점 이하에 17명, 51점 이상에 13명이 평가하였다. 부정적 견해는 최빈값 30점(6명)을 중심으로, 긍정적 견해는 6명이 응답한 70점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쌍봉형 분포이다.

비패널 전문가: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군사형 흡수통일의 경우 유일하게 델파이 패널에 비해 통일시간이 늦춰진 평가를 하였다. 패널이 4시 1분으로 측정한 데 비해 비패널의 경우 3시 31분에 불과하다. 흡수통일 분야로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평균은 29.37이며, 표준편차는 20.451로 편차가 상당히

비패널 전문가: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높은 편이다. 패널은 흡수형 통일 중 가장 넓은 범위, 즉 최솟값 0점에서 최댓값 80점까지 답변하였으며, 비교적 뚜렷하게 최빈값을 중심으로 집중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최빈값 20점에 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점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전형적인 (+)형 왜도곡선을 그리고 있다. 왜도는 .810이며, 다른 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극단값 0점을 포함한 매우 부정적 의견(25점 이하)에 17명이나 밀집해 있으며, 50점 이하는 전체의 86.7%에 해당하는 26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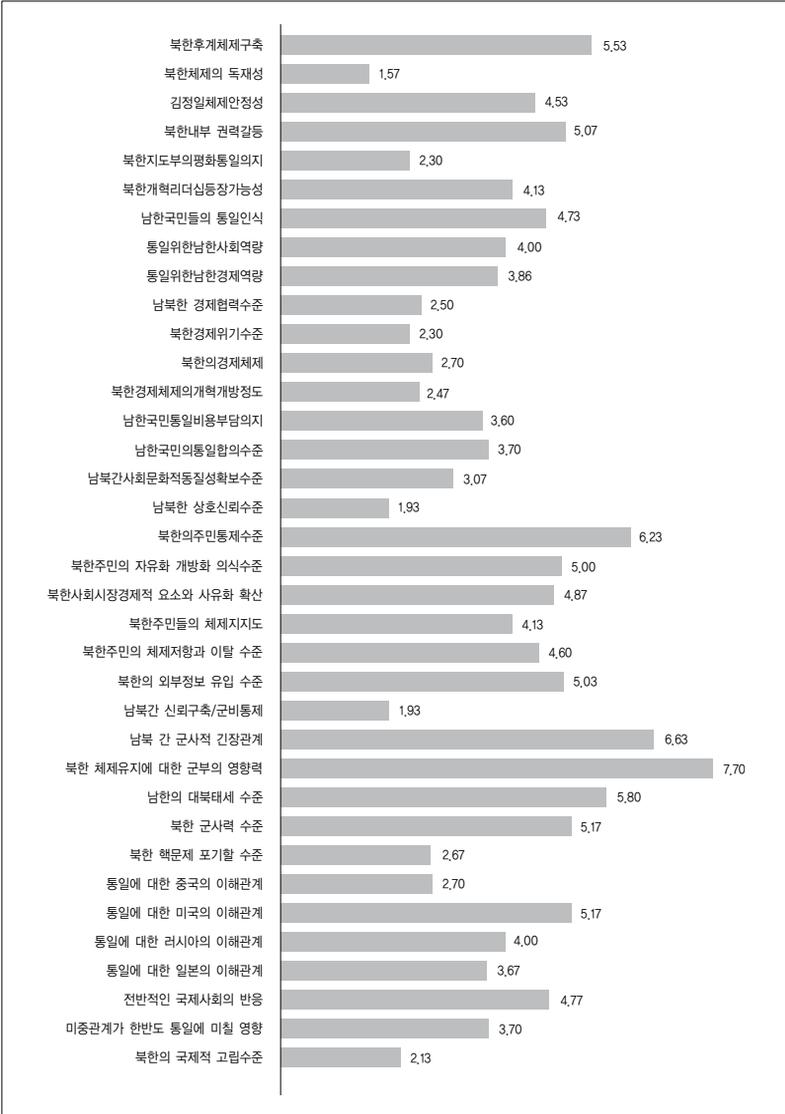
국제관계분야의 경우 5시 12분으로 계산되었다. 여전히 6시 이전의 부정적인 시간이지만, 상대적으로 텔파이 패널에 비해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널의 4시 29분보다 43분이 빠르다. 평균은 43.33이며, 표준편차는 21.429로 높은 편이다. 비패널 전문가들은 5점에서 80점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였으며, 최빈값 50점에 4명이 모여 있다. 20점, 40점, 60점에는 각각 3명씩 답변하였다.

나. 통일이인 설문조사: 비패널 전문가

비패널 전문가에 대한 통일이인 설문조사는 12개의 통일시계와는 달리 사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답변의 집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텔파이 패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이산성이 높거나 쌍봉형 분포를 이루는 문항의 경우 사례수 증가에 따라 그 분포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9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해석은 텔파이 패널과 동일하게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까지의 연장선을 따를 것이다.⁹

⁹ [각주 6] 참조.

그림 IV-2 비패널 전문가 설문조사(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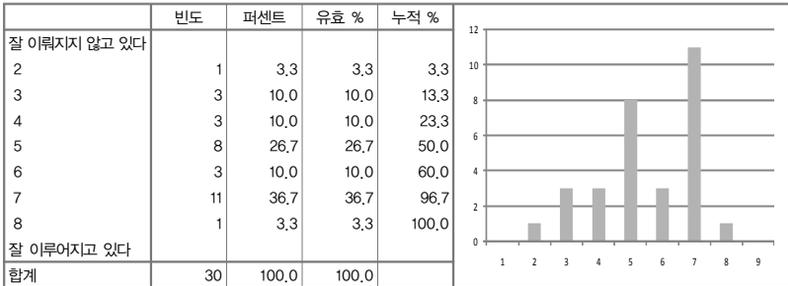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1) 북한 정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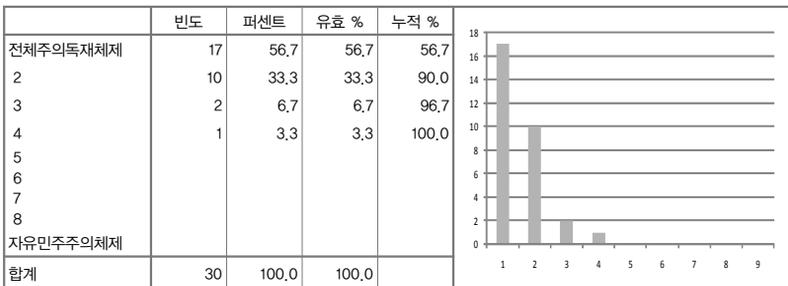
정치분야는 문1부터 문6까지이다. 전반적으로 비패널 전문가는 델파이 패널과 유사한 답변분포를 보이고 있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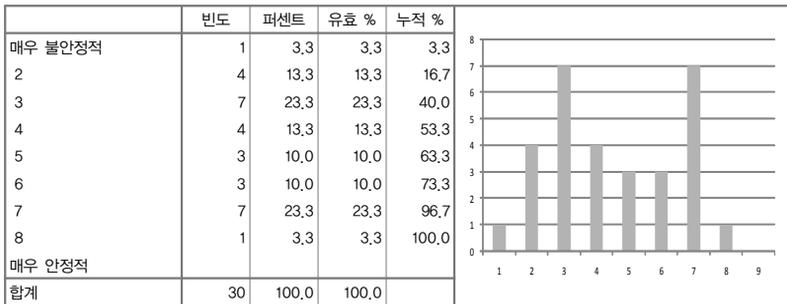
후계체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델파이 패널과 유사하다. 답변은 2점('매우 부정적')에서 8점('상당히 긍정적')까지 넓은 범위에서 나왔으며, 7점('긍정적')이 최빈값이다. 5점('보통이다')에도 8명이 답하고 있다. 6점 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15개(50%)이며, 4점 이하는 7개(23.3%)이다. 평균은 5.53, 표준편차는 1.570이다.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답변이 4점 이하의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극단치인 1점과 2점에 27개(90%)의 답변이 몰려있다. 통일요인 설문 중 답변에 대한 일치가 매우 높게 나타난 문항이다. 평균 역시 1.57로 매우 낮으며, 표준편차는 .774로 작은 편이다. 또한 의견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첨도 역시 2.057로 답변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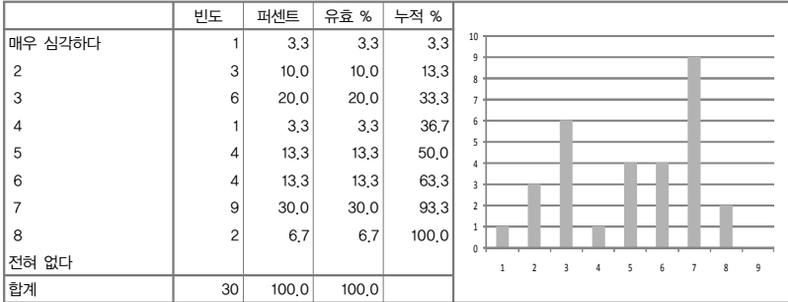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빈값은 3점(‘불안정적’)과 7점(‘안정적’)에 각각 7명이 답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값들이 분포되어 있다. 4점(‘다소 불안정’) 이하의 답변이 16명, 6점(‘다소 안정적’) 이상의 답변이 11명으로 불안정에 대한 답변이 조금 많다. 평균 역시 4.53(표준편차 2.013)으로 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분포는 델파이 패널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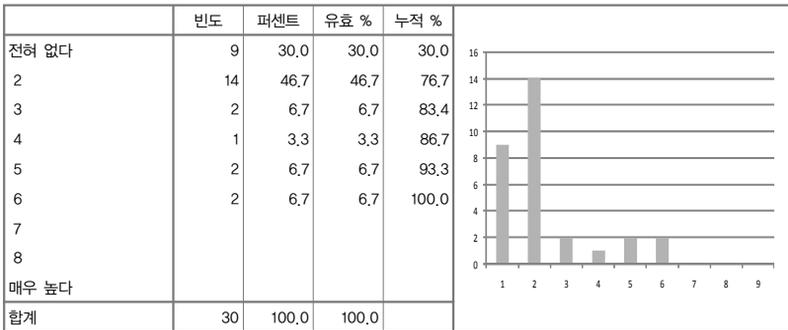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 내 권력갈등에 대한 질문도 역시 두 개의 평가로 갈리고 있다. ‘권력갈등이 존재한다’(7점)고 생각하는 비패널 전문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하지 않는다’(3점)의 경우 6명이다. 두 축을 중심으로 4점 이하에 11명(36.7%), 6점 이상에 15명(50%)이 분산되어 있다. 평균 역시 이를 반영하여 5.07이며, 표준편차는 2.083으로 높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분포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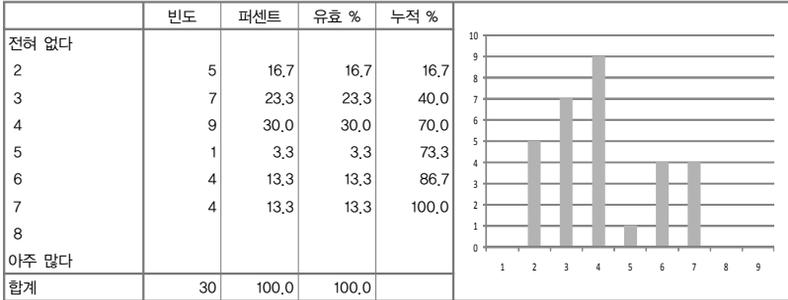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의 평화적 통일 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집중되는 답변을 하였다. ‘매우 없다’(2점)는 의견이 14개로 가장 많으며, 극단 값에도 9명이나 답변하였다. 4점 이하에 26명(86.7%)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은 2.30이다. 첨도 역시 1.403으로 의견이 몰려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항 역시 델파이 패널의 분포와 거의 흡사하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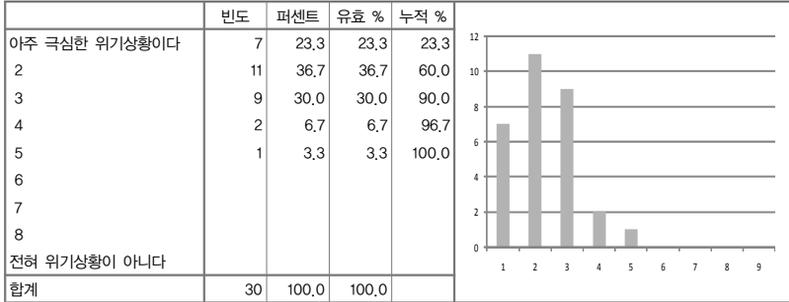
북한의 개혁리더십 등장에 대해서는 중간값 5점을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2점에서 4점까지 21명(70%)이 답변하여 전체적으로는 개혁리더십의 등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8명(26.6%)에 달하고 있다. 평균은 4.13이며, 표준편차는 1.655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개혁리더십의 가능성을 점친 답변이 25.5%를 차지해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경제분야

경제분야는 문11부터 문13까지, 그리고 문20으로 구성되었다.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비해 북한의 경제위기를 더욱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 북한의 경제체제(문12)와 개혁·개방(문13)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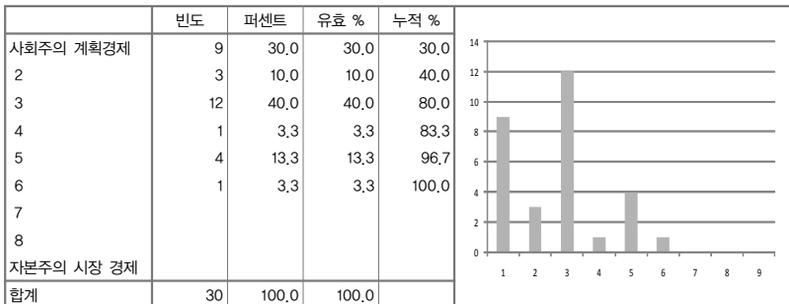
러나 모두 미세한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오차 범위 이내에 있다. 대체로 답변이 집중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북한 사회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Q20)에 대해서는 견해가 이산되고 있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설문도 위 문10과 유사한 답변이다. 최빈값은 2점으로 11명이 응답하였으며, 극단치인 1점에도 7명이 있다. 평균은 2.30으로 매우 낮으며, 표준편차는 1.022로 낮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2.76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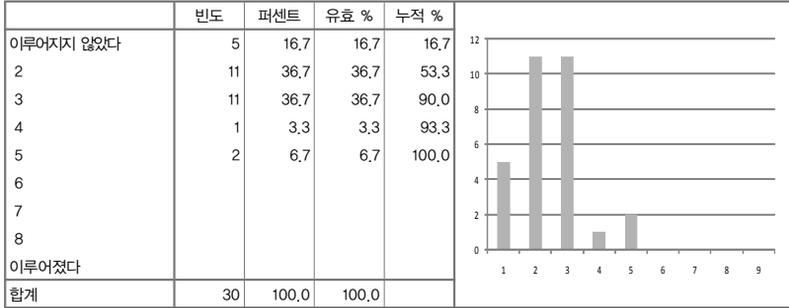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은 극단 값 1점과 3점이 각각 9개와 12개이며 이산적 분포이다. 4점 이하에 25명(83.3%)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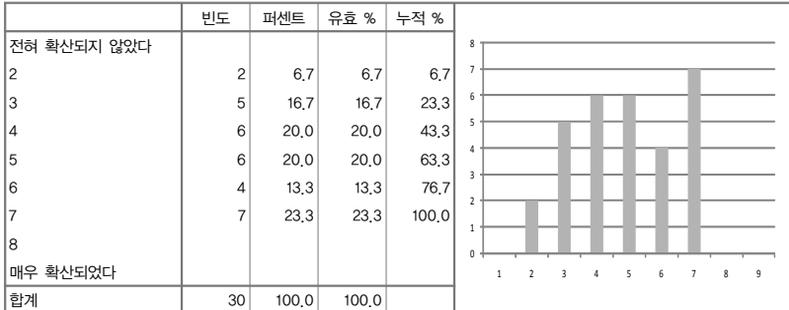
답변하고 있다. 평균 2.70은 델파이 패널의 3.14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다수가 극단 값 1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는 1.466이다.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 28명이 4점 이하로 답변하였으며, 최빈값은 ‘매우 부정적’(2점)과 ‘부정적’(3점)에 각각 11명이 집중되어 있다. 평균은 2.47로 낮은 편이며, 표준편차 역시 1.042에 불과하다. 델파이 패널의 동일문항 평균은 2.80이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에 관련된 질문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두 개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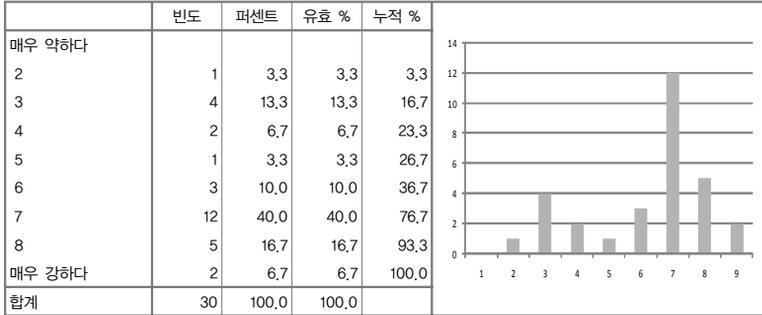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7점('상당히 확산되었다')으로 7명이 답변했지만 4점('약간 확산되지 않았다')과 5점('보통이다') 역시 각각 6명이 답하고 있다. 이 경우 평균뿐만 아니라 도표와 빈도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평균은 4.87로 중간점인 5점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613이다. 한편 4점 이하는 13명(43.3%), 6점 이상은 11명(26.6%)이다.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값이 4.84로 거의 차이나지 않고 있다.

(3) 북한 사회분야

사회분야는 북한의 주민통제수준(문18),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문19), 체제 지지도(문21), 체제저항과 이탈(문22), 외부 정보의 유입수준(문2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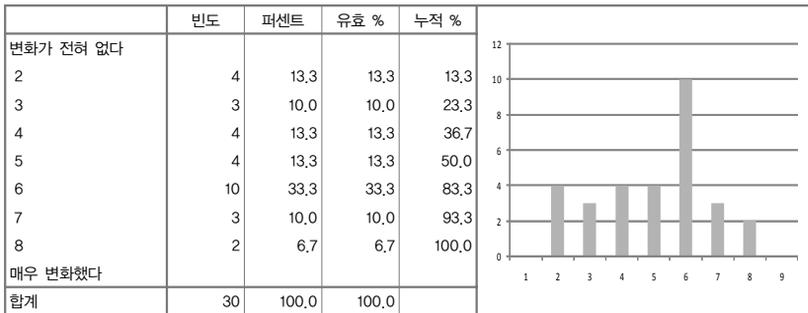
비패널 전문가의 사회분야에 대한 설문결과의 특징은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이 분야 역시 전체적으로 델파이 패널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비패널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체제 지지도(문21)에 대해 '다소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델파이 패널의 경우 '낮다'와 '높다'의 응답이 거의 반반씩 양분되었다. 체제 저항과 이탈(문22)에 대해서는 비패널 전문가들 역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높다'에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통제에 대한 질문은 최솟값 2에서 최댓값 9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였다. 최빈값은 ‘강하다’(7점)이며 12명이 응답하였다. 6점 이상의 ‘강하다’는 답변이 22명으로 73.4%에 달한다. 평균은 6.23이며, 표준편차는 1.942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6.49로 분포의 형태가 유사하고 평균차가 크지 않아 거의 동일한 답변분포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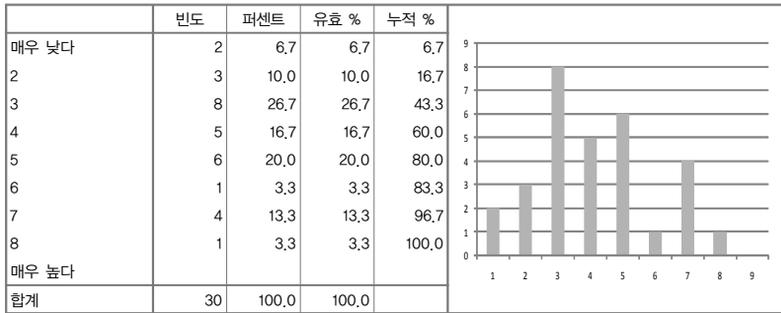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의식수준은 델파이 패널에서 명확한 좌우동형의 쌍봉형 곡선이 나타났던 문항이다. 이에 반해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최빈치 6점

I
II
III
IV
V
VI
VII

(‘다소 변화했다’)에 10명이 답변하고 2점에서 8점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4점 이하는 11명(36.7%), 6점 이상은 15명(50%)이 답변하였다. 평균은 5.0이며, 표준편차는 1.781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은 4.65이며, 의식수준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어 있으므로 비교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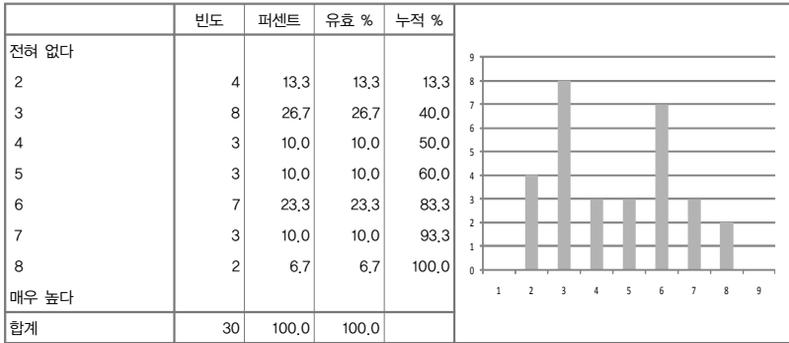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들의 체제지지도는 평균 4.13(표준편차 1.852)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답변 범위는 1점에서 8점으로 매우 넓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3점(‘낮다’)으로 8명이 답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은 18명(60%)에 달하며, 체제지지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6명(20%)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델파이 패널과 대비되고 있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은 4.92로 거의 중간점에서 ‘낮다’와 ‘높다’의 응답이 양분되고 있다. 즉,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체제 지지도가 낮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의견도 상당한 숫자에 달한다. 즉, 빈도분포를 보면, 최빈값 3점과 6점을 중심으로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3점(‘없다’)은 8명, 6점(‘다소 높다’)은 7명이 응답하였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5명(50%)이며, 6점 이상은 12명(40%)이다. 평균은 4.60으로 빈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1.886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체제저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평균 역시 3.98로 더 낮았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평가도 두 집단으로 갈리고 있다. 최빈값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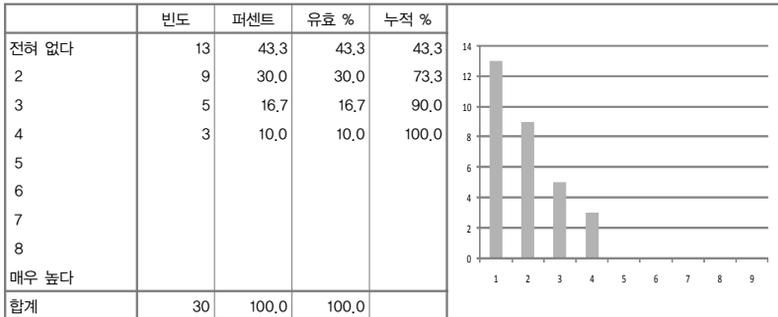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없다’으로 9명이 응답하였으나, 6점(‘다소 많다’)과 7점(‘많다’)에 각각 8명과 7명이 답변하고 있다. 4점 이하는 12명, 6점 이상은 15명으로 외부정보의 유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으며, 평균은 5.03으로 거의 중간점 5에 가깝다. 즉, 이 문항에 대한 비패널 전문가의 평가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정보유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4.94였다.

(4) 북한 군사분야

군사분야 역시 델파이 패널과의 차이는 모두 오차 범위 이내에 있어 거의 같은 답변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비패널 전문가는 군사적 신뢰구축(문24)을 패널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문25)는 오히려 델파이 패널이 더 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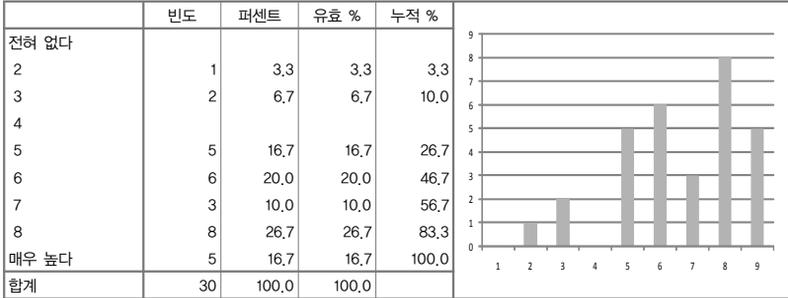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서는 전원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특히 극단치인 1점에 13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은 1.9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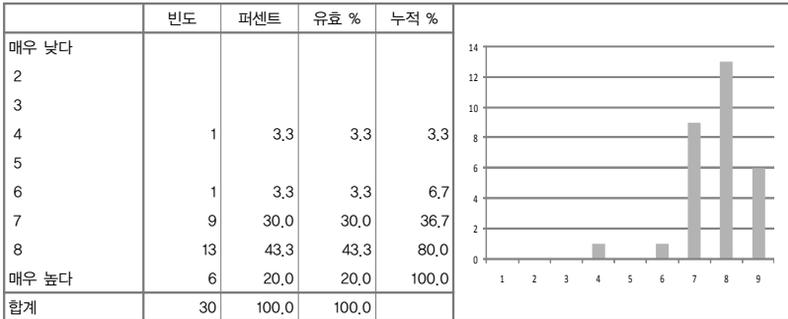
문17인 당국 간 신뢰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015로 낮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1.72이다.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군사긴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다소 긴장이 높다’(6점)에 가장 많은 6명이 응답하였으며, 6점 이상은 22명(63.4%)이다. 평균은 6.63이며, 표준편차는 1.921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7.27로 군사적 긴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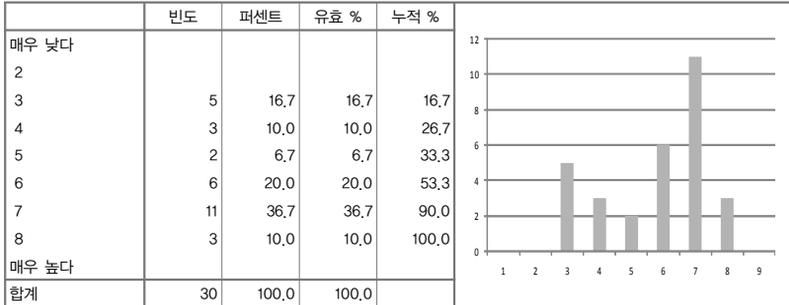


군부의 영향력은 29명이 6점 이상에 점수를 주었다. 최빈값은 8점(‘상당히 높다’)으로 13명이 응답하였으며, 극단 값 9점에도 6명이나 답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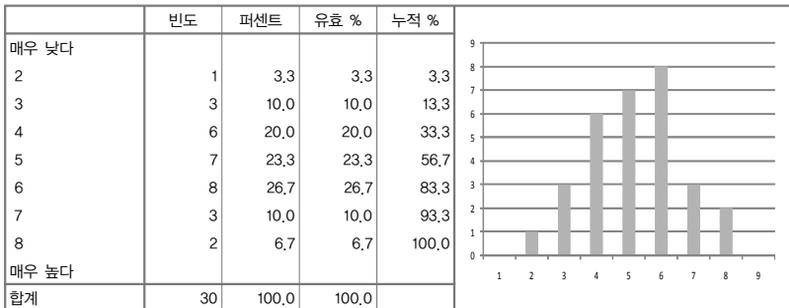
하였다. 평균은 7.70이며 표준편차는 1.055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7.43으로 다소 낮으나 분포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20(66.6%)명이 6점 이상에 포진하고 있어 대체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4점 이하에도 8명(26.7%)이 답해 쌍봉형 분포의 형태를 띤다. 평균은 5.80, 표준편차는 1.669이다. 이에 비해 패널의 경우 평균 6.47로 남한의 대비태세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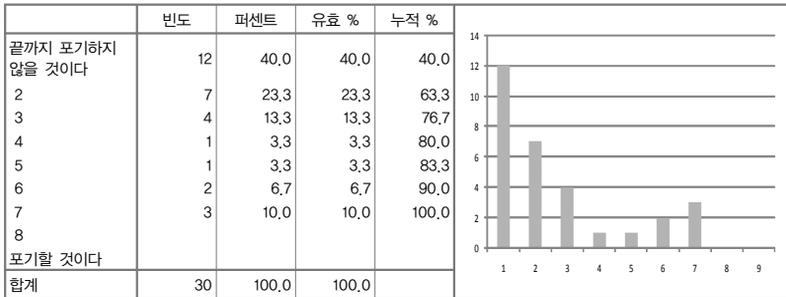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 8명이 '다소 높다'(6점)라고 답하였으며,

6점 이상은 13명(43.4%)이다. ‘매우 낮다’는 응답도 10명(33.3%)이나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5.17(표준편차 1.487)로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널의 경우 5.69로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12명(40%)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1점)이라는 극단 값에 응답하였다. 4점 이하의 응답은 24명(80%)으로 대다수가 핵문제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점에서 7점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은 2.67, 표준편차는 2.057이며 편차가 큰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 1~8점의 범위에서 답변이 나타났으며, 평균 2.7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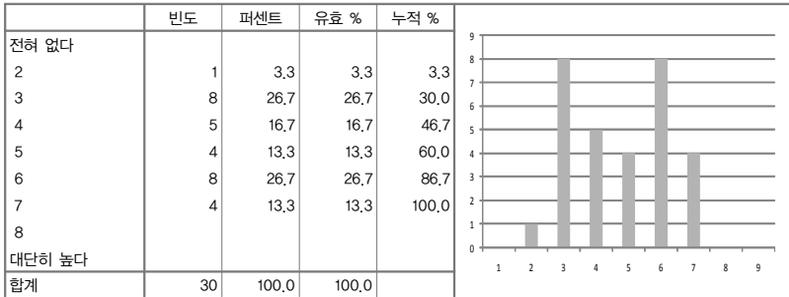
(5) 남한의 역량 및 남북관계

남한의 역량은 남한 국민의 통일 인식(문7),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과 경제적 역량(문9), 통일비용 부담의지(문14), 남한 국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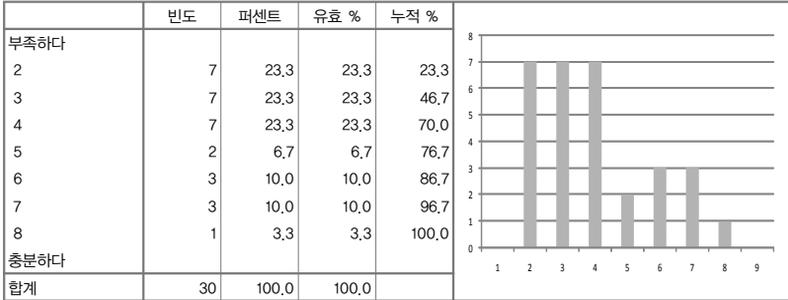
민간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문15)이며, 남북관계는 남북 경협수준(문 10),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수준(문16), 남북 당국 간 상호 신뢰수준(문 17)이다.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의 답변이 델파이 패널과 유사하거나 조금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역량이나 경제협력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델파이 패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인 문항이 많았다. 예를 들면, 남한의 경제적 역량을 질 문했던 문9나 현 남북 경제협력의 수준에 대한 문10, 통일비용 부담의 지에 대한 문14가 그러하다. 즉,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델파이 패널보다 비패널 전문가들이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시각이 더욱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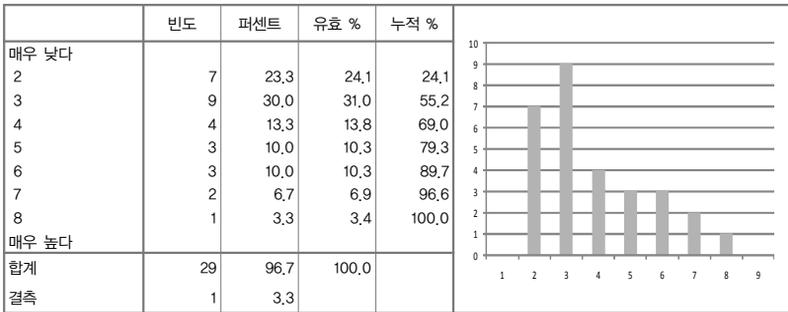
비패널 전문가가 본 남한국민들의 통일인식 역시 델파이 패널과 유사하게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되고 있다. 8명이 ‘부정적이다’(3점)와 ‘다소 긍정적이다’(6점)에 답변하였으며, 두 개의 최빈값을 중심으로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2점에서 4점까지의 응답은 14명(46.7%), 6~7점은 12명(40%)이며, 평균 역시 이를 반영하는 4.73점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4.49로서 남한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해서 비패널 전문가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사회적 역량 역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매우 부정적’(2점)에서 ‘다소 부정적’(4점)까지 각각 7명이 답했으며, 총 70%에 해당한다. 반면, 6점 이상의 경우 7명(23.3%)에 불과하다.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1.781이다. 답변 범위 역시 2~8점까지 넓은 편에 속한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4.02와 유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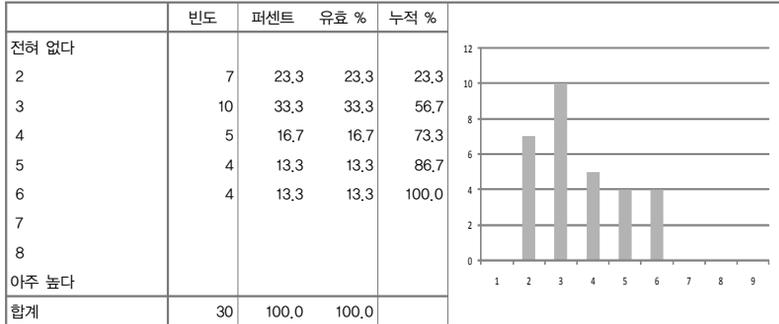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역량과 인식 항목 중 가장 낮게 평가되는 항목이다. 비패널 전문가 중 20명(69%)이 오히려 사회적 역량보다 경제적 역량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6명(2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평균은 3.86, 표준편차는 1.74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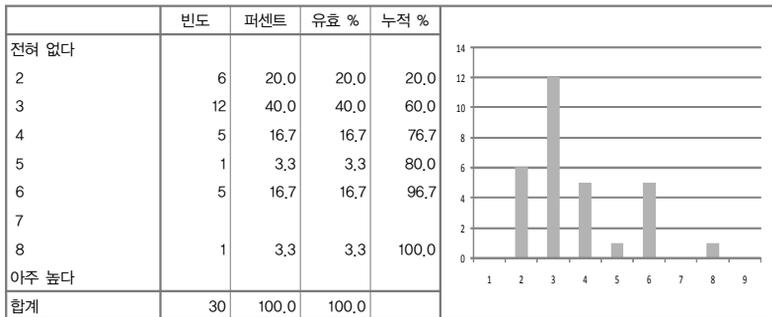
한편, 델파이 패널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평균 역시 4.92로 중간값인 5점에 가깝다.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부정적’(3점)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10명이며, 2점에서 4점까지의 응답은 22명(73.3%)이다. 평균은 3.60, 표준편차는 1.354로 계산되었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3.72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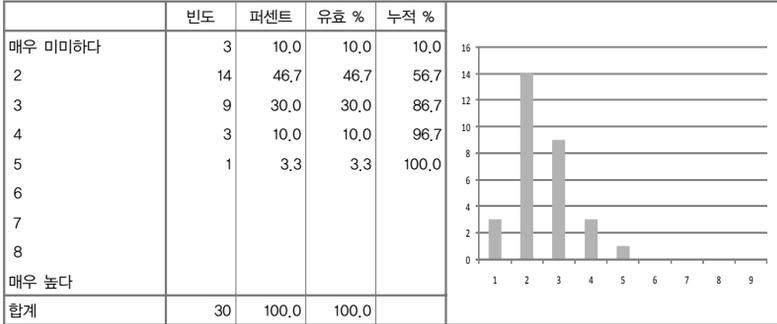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다수이다. ‘부정적’(3점)이라는 답변이 12개로 가장 많으며, 4점 이하는 23개(76.7%)이다.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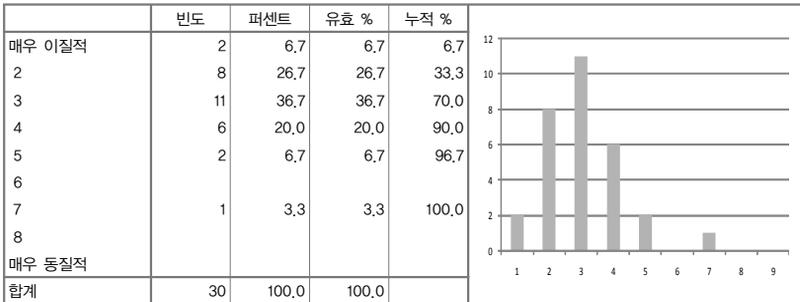
이상은 6명으로 20%에 달한다. 평균은 3.70, 표준편차는 1.557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3.96보다 다소 낮으나 분포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경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되는 답변이 나왔다. 최빈값은 ‘매우 부정적’(2점)이며 14명이 응답하였다. 평균은 2.50, 표준편차는 0.93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앞의 문9의 차이보다는 작지만, 이 문항 역시 델파이 패널보다 낮은 점수분포를 보인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2.94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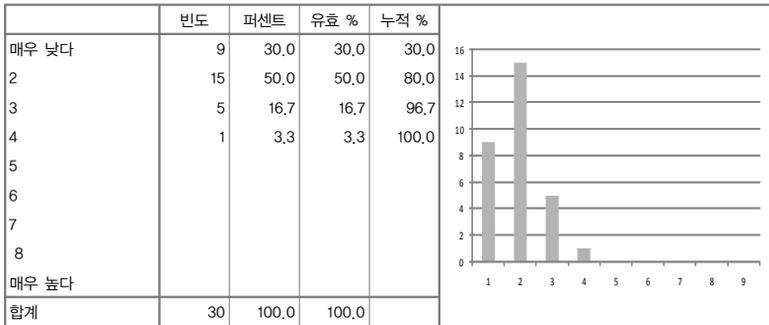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
II
III
IV
V
VI
VII

남북 동질성에 대한 질문 역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질적’(3점)이라는 응답이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4점 이하는 27명이다. 평균은 3.07이며 표준편차는 1.258로 계산되었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같은 문항의 평균은 3.33이다.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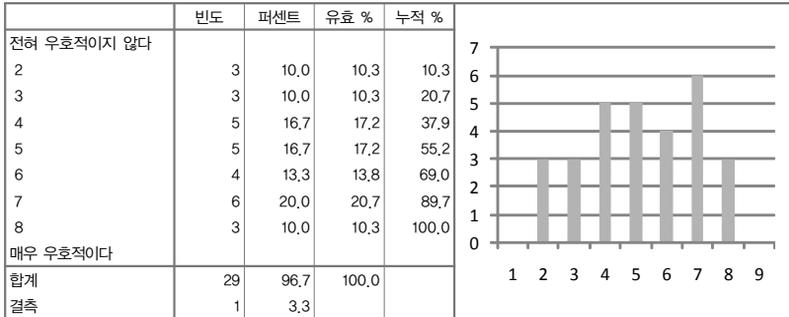
남북 상호신뢰는 비패널 전문가가 2점을 중심으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최빈값 2점에 15명이 답변하였으며, 극단 값 1점에도 9명이나 있다. 평균 1.93, 표준편차 .785로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1.92로 평균은 물론이고 분포의 형태까지 두 집단의 조사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6) 국제관계분야

국제관계분야는 미국(문31), 중국(문30), 러시아(문32), 일본(문33), 국제사회(문34)의 통일에 대한 우호도와 함께, 미·중관계(문35)와 북한의 고립(문36)을 살펴보았다. 비패널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인 답변분포는 델파이 패널과 매우 유사하다.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 비패널 전문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통일에 비우호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매우 넓은 답변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미세하게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많다. 한편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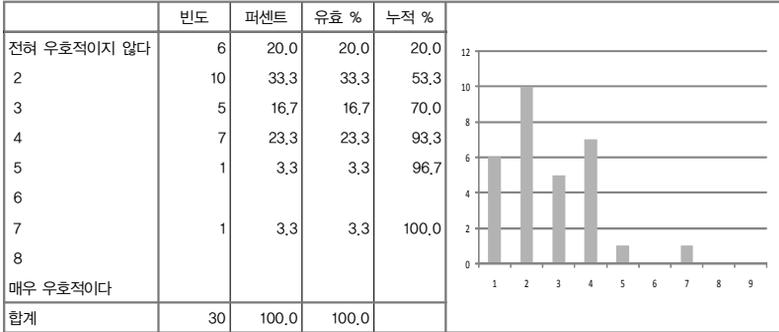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4개국 중 예외적으로 미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한 평가만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미세하게나마 많다. 답변은 2점에서 8점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 졌으며, 중간점 5를 기준으로 ‘비우호’와 ‘우호’의 평가가 갈리고 있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1명(37.9%), 6점 이상은 13명(43.3%)이 했다. 평균값 5.17(표준편차 1.872)은 빈도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5.96으로 미국의 통일역할에 대해 다소나마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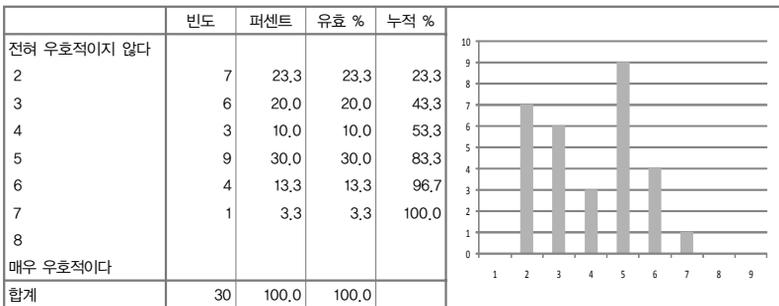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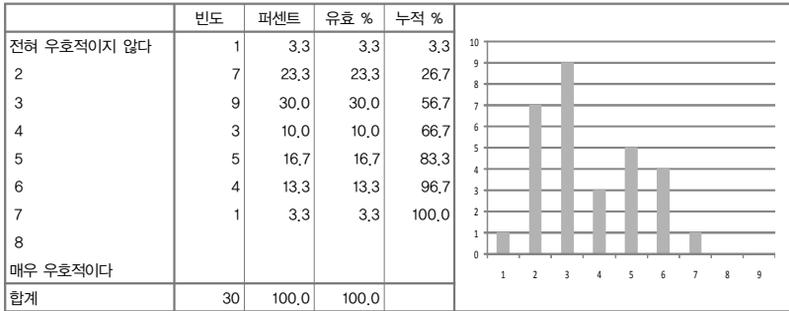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은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28명(93.3%)이 4점 이하의 답변을 하였으며,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다’(2점)에 10명이나 집중되었다. 평균은 2.70, 표준편차는 1.418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3.38로서 비패널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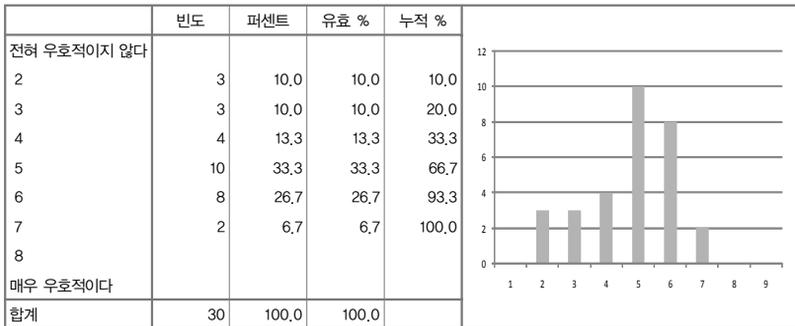
러시아의 통일역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다’(2점)에서 ‘약간 우호적이지 않다’(4점)까지 16명(53.3%)이 답변 하였으며, 우호적인 답변은 5명(16.6%)이 있다. 평균은 4.0, 표준편차는 1.531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평가가 평균 4.84로 비교적 중립적인 것과는 대조된다.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보다 일본의 경우 통일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명(66.6%)이 4점 이하의 답변을 하였으며, 최빈값은 3점으로 9명이다. 평균은 3.67이며, 표준편차는 1.583이다. 톨파이 패널의 경우도 미세하게 일본의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은 4.41이었다.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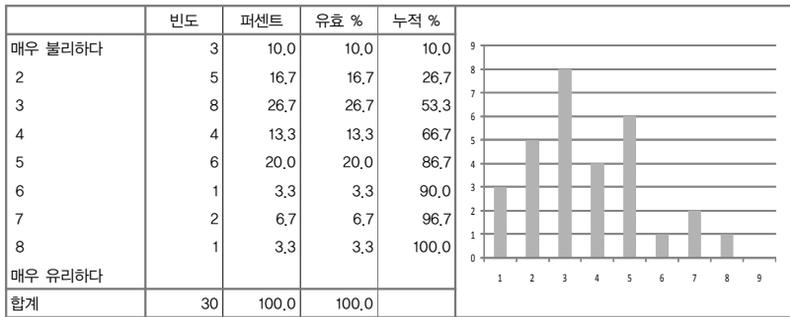


비패널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평가는 중간점 5점에 가장 많은 10명이 답변을 하였다. ‘우호적이지 않다’는 반응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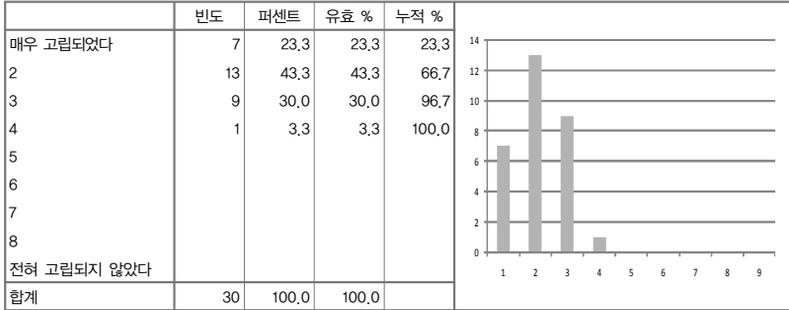
과 ‘우호적’이라는 반응이 각각 10명씩 좌우로 포진되어 있으나, 점수 차로 인해 평균은 4.77로 나타났다. 즉, ‘비우호적’이라는 판단은 2점에서 4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점수가 작은 6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평균이 5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조사 자료로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례수 증가에 따라 평가의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는 형태의 빈도분포라고 할 수 있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평균은 5.37이었다.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미·중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소 불리하다’(4점)에서 극단치인 ‘매우 불리하다’(1점)까지 20명(66.7%)이 답변하였으며, 3점에 가장 많은 8명이 답했다. 평균은 3.70이며, 표준편차는 1.822이다. 답변의 범위는 델파이 패널의 경우 1~5점 인데 반해 1~8점으로 넓은 편이지만, 평균은 델파이 패널의 3.7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에 대해 비패널 전문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든 답변이 4점 이하이며, 최빈값은 2점으로 13명이 답했다. 이를 반영한 평균은 2.13이며, 표준편차 역시 .819로 작은 편이다. 다른 문항에 비해 답변 범위가 비교적 좁게 나타난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은 2.53이었다.

2. 대북사업자

대북사업자는 북한과의 접촉에 따른 경험이 많고 사업과 관련된 북한 정보의 입수에 용이하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관심집단’(attentive public)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2004년 6월 시범단지의 입주계약이 시작된 이래 다년간 북한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도움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 분야 최초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의 사례가 적어 대표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개략적인 추세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집단은 2008년 이래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은 전자문서로 준비하여 『개성공단기업협회』에 20부를 의뢰하였으며, 2010년 8월 22일에서 9월 11일까지 전량이 회수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에게 주어진 “2009년 사후분석”은 첨부되지 않았다.

당초 본 조사는 비패널 전문가 집단 30개 사례와 함께 델파이 패널의 부족한 사례수 보완을 위해 설계하였다. 그러나 비교집단 간 계량 분석 과정에서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거의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나, 개성공단 사업자의 경우 뚜렷이 구별되는 분포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발견되어 별도로 다루기로 하였다.

별도로 다룬 가장 큰 이유는, 대북사업자의 통일시계가 델파이 패널 또는 비패널 전문가의 평가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형 통일에 대해 대북사업자들은 전문가들보다 상황을 훨씬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대북사업자들은 5시 16분으로 평가하였다. 텔파이 패널의 합의형 통일 시간 3시 45분과 비교할 때 무려 1시간 31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비패널 전문가와도 1시간 9분이나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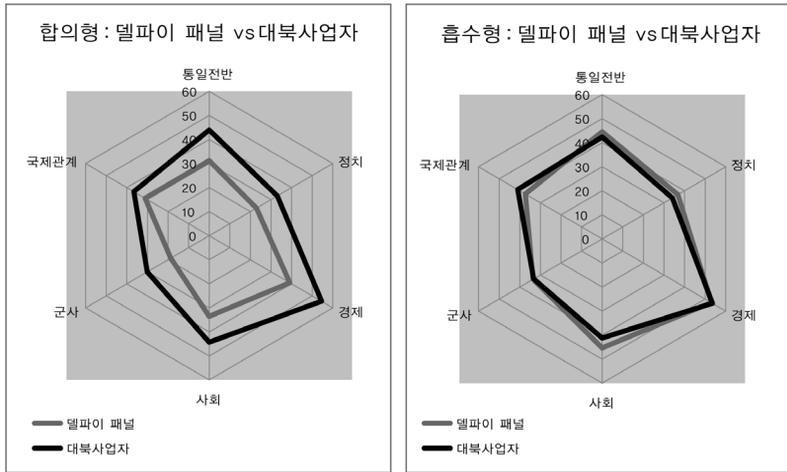
흡수형 통일시계에 대해서는 더욱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5개 집단(텔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일반국민, 탈북자) 중 나머지 4개 집단은 모두 현재의 상황을 합의형 통일보다 흡수형 통일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흡수형 통일시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사업자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0년 8월의 상황이 흡수통일보다는 합의통일에 더 가까우며, 더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례는 종합적인 흡수형 통일시계 및 경제분야, 사회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북사업자의 이례성에 대한 판단은 사례수가 매우 적은 점과 사례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시계의 각 하위분야 간 상대적 시간차를 고려할 때, 답변의 충실도는 의심하기 어렵다. 대북사업자 역시 정치, 군사 분야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경제, 사회 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집단의 사례는 적지만 충분히 추이판단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북사업자에 대한 이번 결과는 일부 항목에 대한 답변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평가했다기보다는 집단특성에 따른 기댓값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사업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유리한 합의형 통일에 상대적으로 더 점수를 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의 경우가 가장 극적인 사례이다. 대북사업자들은 2010년 상황이 흡수형 경제 통일보다는 합의형 경제 통일에 더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V-3 델파이 패널과 대북사업자의 통일시계 비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간은 패널의 4시 42분보다 무려 1시간 51분이 차이나는 6시 33분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시간은 같은 분야의 흡수형 통일시간 6시 25분보다 8분 빠른 시간이다. 2010년 조사된 다른 3개 집단은 모두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이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보다 12시에 근접하고 있다. 즉, 대북사업이라는 특성상 북한과의 원만한 경제통합에 무엇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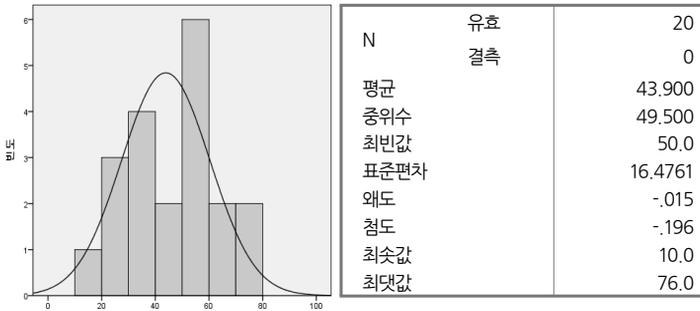
한편, 통일요인 설문문의 경우 다른 집단과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문항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답변의 분포도 20명이라는 사례수에 비해 상당히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례수 부족으로 예외적인 몇몇 답변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 통일예측시계: 대북사업자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대북사업자
5시 16분
패널+1:31



대북사업자가 본 종합적인 합의형 통일시간은 5시 16분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평균 43.90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대북사업자는 합의형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50점으로 5명이 답변하였다. 50점은 100점 척도상에서 중간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50점 미만에 총 10명이 답변하고 있으며, 51점 이상은 5명이다. 답변은 10점에서 76점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5시 16분은 북한·외교·안보 분야 학자군이라 할 수 있는 텔파이 패널 및 비패널 전문가와 커다란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합의형 통일시간은 3시

I
II
III
IV
V
VI
VII

45분인데 이는 대북사업자와 무려 1시간 31분이라는 차이가 난다. 또한 비패널 전문가의 합의형 통일시간인 4시 7분과도 1시간 9분이나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 분야별 합의형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 분야
3시 58분	6시 33분	5시 19분	3시 37분	4시 23분
패널+1:13	패널+1:51	패널+1:18	패널+1:23	패널+39분

합의형 통일의 5개 하위분야 시계의 상대적 시간분포는 델파이 패널과 유사하다. 즉, 정치분야와 군사분야의 시간이 늦으며, 경제, 사회 분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 하위분야 통일시계의 시간은 델파이 패널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시간차는 경제분야로 무려 1시간 51분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가장 적은 시간차의 경우 군사분야로 이 또한 39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중간점인 6시를 넘어 6시 33분이 기록된 것이 이례적인 특징이다.

정치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군사분야와 함께 통일에 매우 먼 분야로 평가되었다. 시간은 평균값 33.05로부터 환산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9.338로 비교적 큰 편이다. 정치분야의 답변 중 20점에 가장 많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군사 분야	국제관계 분야
N	유효	20	20	20	20	20
	결측	0	0	0	0	0
	평균	33.050	54.550	44.300	30.100	36.550
	중위수	25.000	53.000	45.000	28.000	32.500
	최빈값	20.0	40.0	40.0	20.0	30.0
	표준편차	19.3377	22.4628	17.5862	17.6394	16.1130
	왜도	.796	-.166	-.059	-.039	.060
	첨도	-.073	-.546	-.564	-1.047	-.821
	최솟값	10.0	10.0	10.0	.0	10.0
	최댓값	80.0	90.0	76.0	6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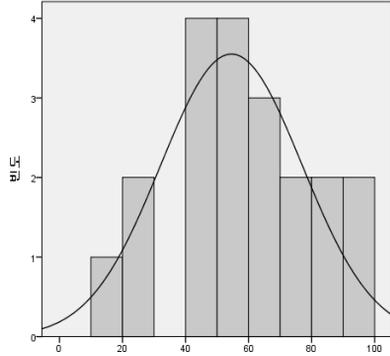
5명이 응답하였으며, 최솟값 10점에서 최댓값 80점까지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50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17명(85%)이 하였다.

대북사업자 집단의 통일시계 중 가장 독특한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대북사업자는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가 흡수형보다 통일에 더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설문설계의 차원에서 경제분야의 통일시계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은 다음을 의미한다. 합의형 경제통일의 경우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거나 되리라고 예측되는 상황이며, 흡수형 경제통일은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거나 붕괴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2010년의 남북 경제교류와 북한경제가 긍정적이지 못할 상황에서 합의형 경제통일에 대한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피조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상황에 대한 기댓값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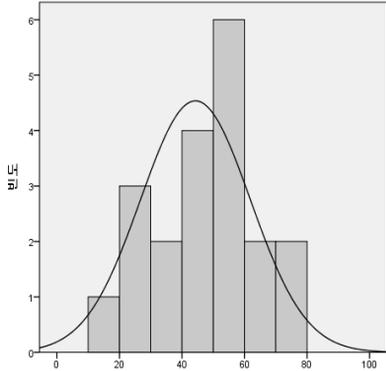
대북사업자의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점수는 중간점 6시를 넘긴 6시 33분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은 54.55이며, 표준편차는 22.46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북사업자는 최저값 10점에서 최댓값 90점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분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51점 이상의 경우 11명(55%)이 답변하였으며, ‘매우 긍정적’(76점 이상)이라는 답변도 4명이나 된다. 가장 많은 답변은 4명이 응답한 40점이다.

대북사업자: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해서도 대북사업자는 패널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 분야 통일시간은 5시 19분으로 계산

대북사업자: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되었다. 패널에 비해 1시간 18분 통일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44.3이며, 표준편차는 17.586이다. 사회분야의 합의형 통일에 대해 부정적(50점 이하)인 평가는 14명(70%)이며, 긍정적 평가는 6명이다. 최빈값은 40점과 50점으로 각각 4명이 답변하였다. 답변의 범위는 10~76점이다.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은 대북사업자의 12개 통일시계 분야 중 가장 통일로부터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은 30.1, 표준편차는 17.639로 조사되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 37분이다. 답변은 최솟값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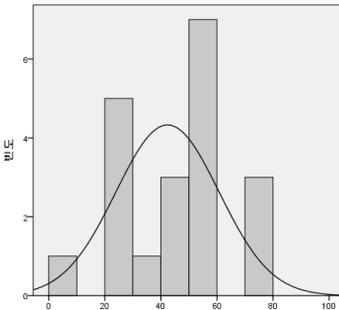
에서 최댓값 60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빈값은 20점과 40점으로 각각 3명이 답변하였다. 50점 이하의 답변이 18명(90%)으로 압도적이다. 한편, 델파이 패널의 경우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시 14분이며,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도 2시 46분으로 모두 2시대이다.

국제관계분야의 합의형 통일은 비교적 다른 집단과의 편차가 적게 나온 편이다. 4시 23분으로 평균 36.55로부터 도출되었다. 표준편차 역시 다른 분야의 합의형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6.113이다. 최빈값은 30점으로 5명이 답하였으며, 16명(80%)이 50점 이하를 선택하였다. 국제관계분야는 델파이 패널의 3시 44분 보다 39분 빠르며, 비패널 전문가의 4시 39분보다 16분 늦고 있다.

○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



대북사업자
5시 5분
패널-15분



N	유효 결측	20 0
평균		42.350
중위수		48.500
최빈값		50.0
표준편차		18.4370
왜도		-.225
첨도		-.666
최솟값		5.0
최댓값		70.0

대북사업자들은 합의형 통일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

했으나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델파이 패널이나 비패널 전문가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보다는 흡수형 통일이 가져올 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형 통일시계가 델파이 패널 및 비패널 전문가와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에 반해,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와 5개 하위분야의 통일시계는 모두 오차 범위 이내에서 델파이 패널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은 5시 5분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패널의 동일분야 5시 20분보다 15분가량 통일에서 멀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합의형 시계가 1시간 31분 더 빨랐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일관적인 답변추세라고 할 수 있다. 평균은 42.35, 표준편차는 18.437이다. 범위는 최솟값 5부터 최댓값 7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50점과 70점으로 각각 3개씩의 사례가 있다. 25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6명(30%)이며, 5점에서 50점 사이에 13명(65%)이 분산되어 있다.

○ 분야별 흡수형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 분야
4시 5분	6시 25분	4시 57분	3시 59분	4시 55분
패널-20분	패널-3분	패널-29분	패널-2분	패널-2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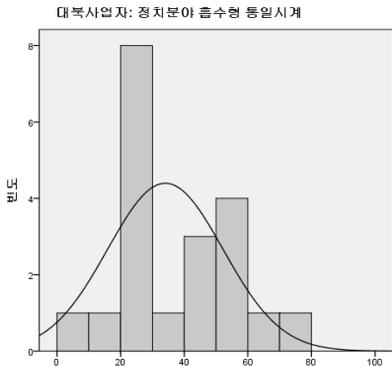
표 IV-4

대북사업자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군사 분야	국제관계 분야
N	유효	20	20	20	20	20
	결측	0	0	0	0	0
	평균	34.050	53.500	41.250	33.250	41.000
	중위수	27.500	54.000	45.000	32.500	47.500
	최빈값	20.0	40.0	50.0	50.0	60.0
	표준편차	18.1557	21.1274	19.4933	18.6713	20.3289
	왜도	.195	-.364	.598	-.064	-.406
	첨도	-.747	-.190	.553	-1.482	-.892
	최솟값	1.0	10.0	10.0	1.0	1.0
	최댓값	70.0	90.0	90.0	60.0	75.0

합의형 통일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흡수형 통일의 5개 하위분야는 델파이 패널과 거의 일치하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준편차와 범위도 합의형 통일과 거의 유사한 편이다. 흡수형 통일만을 놓고 보았을 때, 두 집단은 거의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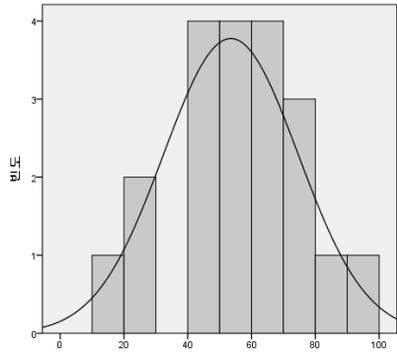
흡수형 정치분야는 4시 5분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4.05, 표준편차는 18.156이다. 범위는 1점에서 70점까지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20점으로 4명이 응답하였으며, 25점과 51점에 각각 3명씩 답하였다. 25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0명(50%)이나 되며, 1점에서 50점 사이에 15명(75%)이 분포되었다. 5명만이 51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정치분야의 흡수형 통일론은 전문가패널의 4시 25분보다 오히려 15분 늦으며, 비패널 전문가의 4시 41분보다는 31분이 늦는다. 즉, 전문가 집단보다 흡수형 통일론의 가능성을 더욱 낮게 보고 있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6시 25분이다. 흡수형 통일의 5개 하위 분야 중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를 넘기고 있다. 평균은 53.5, 표준편차는 21.127로 계산되었다. 범위는 최솟값 10점에서 최댓값 90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빈값은 40점과 65점으로 각각 3명이 답하였다. 51점

대북사업자: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에서 70점까지 9명(45%)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값은 넓게 이산되어 있다. 50점 이하의 답변은 8명(40%)이며, 51점 이상은 12명(60%)이다. 델파이 패널의 같은 분야 통일시계는 6시 22분이며, 대북사업자와 불과 3분의 차이만 있다. 또한 비패널 전문가의 6시 53분보다는 오히려 28분이 더 늦어 모든 시간이 빨랐던 합의형 통일시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4시 57분으로, 평균 41.25에서 도출되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50점이며 5명이 해당된다. 10점에서 90점 사이에서 응답하였으며, 이 중 50점 이하의 응답이 15명(75%)이다. 25점 이하의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명(35%)으로 많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26분이었다. 대북사업자는 오히려 이보다 29분이나 늦게 평가하고 있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가 가장 빠르고 군사분야 흡수형 시계가 가장 늦은 것은 대북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사분야의 흡수형 통일시간은 3시 59분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텔파이 패널의 4시 1분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이다. 시계는 평균 33.25에서 도출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8.671이다. 또한 범위는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적은 최솟값 1점에서 최댓값 60점으로 나타났다. 25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에 10명(50%)이 집중되었고, 1점에서 50점 사이에는 16명(80%)이 해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빈도는 50점으로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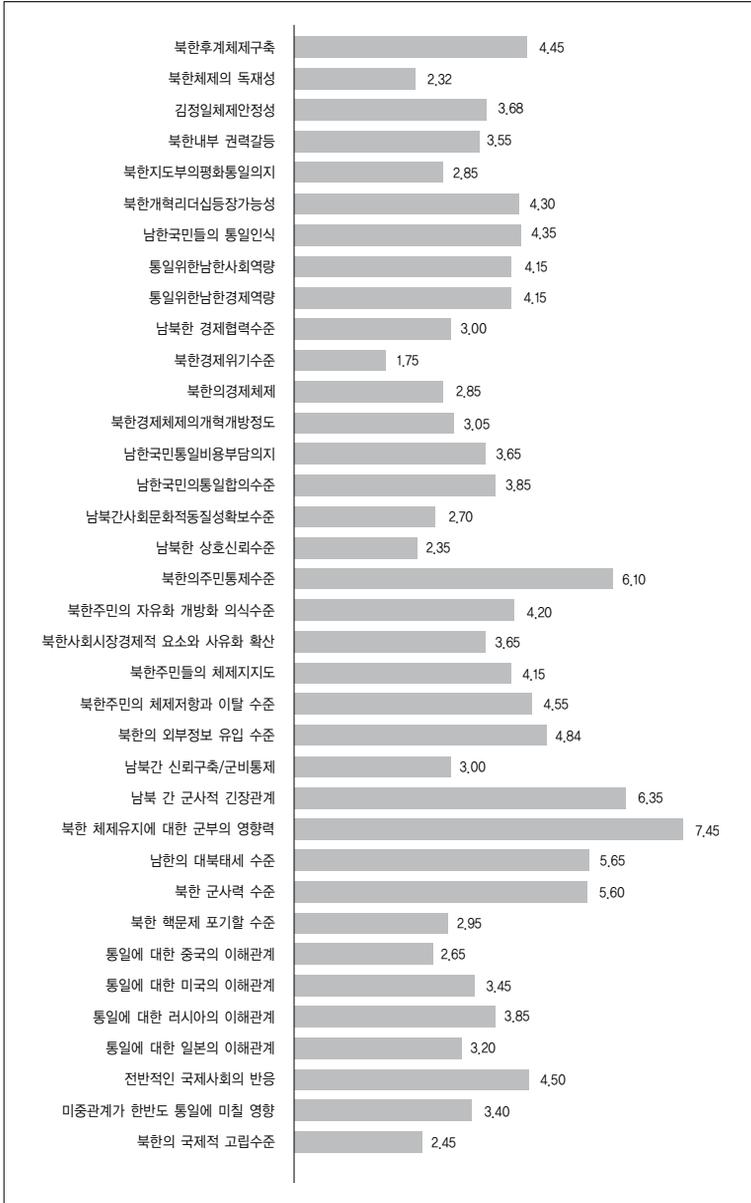
나. 통일요인 설문조사: 대북사업자

대북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례수가 20개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은 사례수로 인해 극단값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통일시계 12개 분야가 이례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은 상대적으로 텔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북사업자의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대북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통일경로에 대한 심리적 기대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게 한다.

대북사업자는 각 통일요인에 대해 대체로 텔파이 패널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비교적 뚜렷하게 텔파이 패널과 차별적인 문항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문1)과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문4),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문20),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문16),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문31),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반응(문34) 등이다. 또한 경제분야 전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V-4 대북사업자 설문조사(평균)



(1) 북한 정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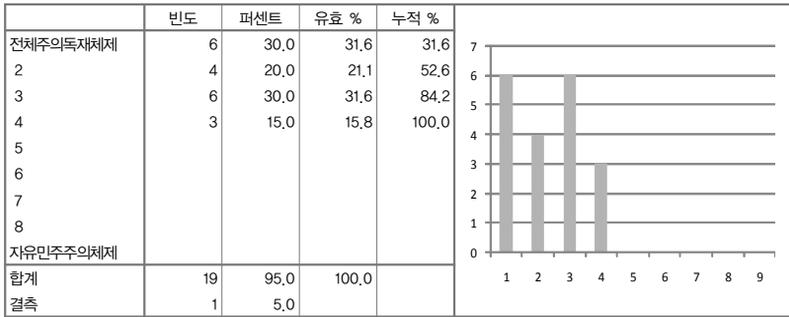
대북사업자는 델파이 패널에 비해 후계체제 구축(문1)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문2, 문3)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특히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문4)에 대해서는 상당 수가 권력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	누적 %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3	5	25.0	25.0	25.0
4	8	40.0	40.0	65.0
5	2	10.0	10.0	75.0
6	3	15.0	15.0	90.0
7	2	10.0	10.0	100.0
8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합계	20	100.0	100.0	

대북사업자는 후계체제 구축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4.45이며, 표준편차는 1.317이다. 답변은 3점에서 7점까지의 범위로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응답자 중 13명(65%)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중립’은 2명, ‘잘 이뤄지고 있다’는 쪽은 5명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8명이 몰린 ‘다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4점)이다. 대북사업자는 이 문항에 대해 델파이 패널과 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같은 문항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답변 평균은 5.80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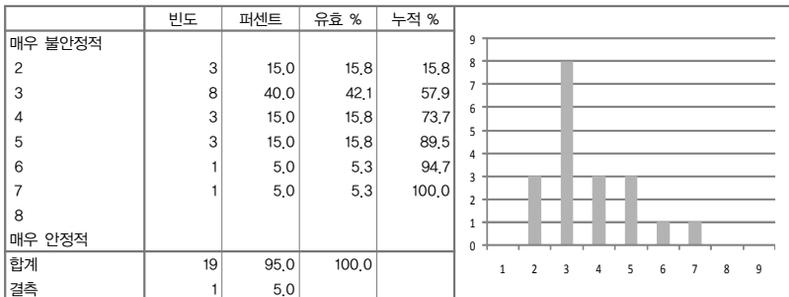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체제특성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일관된 답변이다. 모든 응답자가 전체주의에 가까운 4점 이하의 점수에 응답하고 있다. 평균은 2.32로 계산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108이다. 극단치인 1점과 3점에 가장 많은 6명이 대답하였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1.76과 비교하여 해석하자면, 대북사업자는 북한체제가 전체주의체제임에는 일치하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답변의 집중도가 높아 사례수 증가에 따라 상호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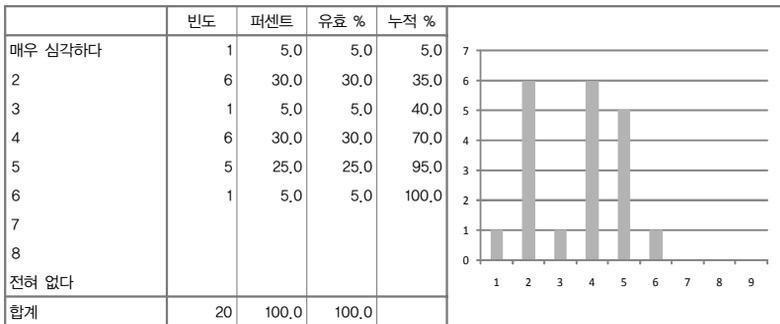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체제안정성에 대한 질문도 대체로 부정적인 점수에 답변하

고 있다. 응답자 중 14명(73.7%)이 4점이하의 점수를 주었으며, 최빈값은 3점으로 8명이 해당된다. 평균은 3.68, 표준편차는 1.376이다. 이러한 답변은 델파이 패널의 평균 4.43에 비해 북한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포의 형태는 델파이 패널과 매우 유사하며, 사례수 증가에 따라 두 집단은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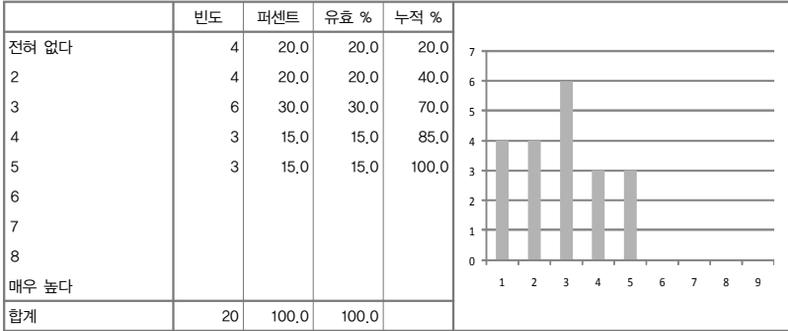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에 대해서는 14명(70%)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도 5명(25%)이 있다. 평균은 3.55, 표준편차는 1.432로 나왔다. 최빈값은 2점과 4점으로 각각 6명이 답변하였다.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이 심각하다’는 쪽의 답변이 월등하게 많은 점은 델파이 패널의 평균 5.41과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이다. 물론 델파이 패널의 경우 넓은 범위와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대북사업가의 경우 압도적으로 권력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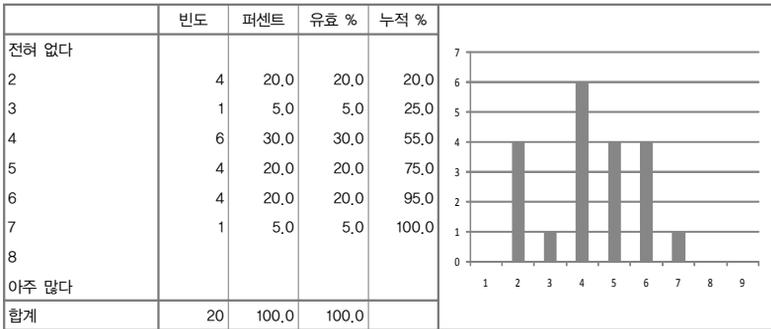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외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17명(85%)이 4점 이하에 답변하였으며, 최빈 값은 3점이다. 평균은 2.85, 표준편차는 1.348로 나왔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2.29와 거의 일치하는 답변이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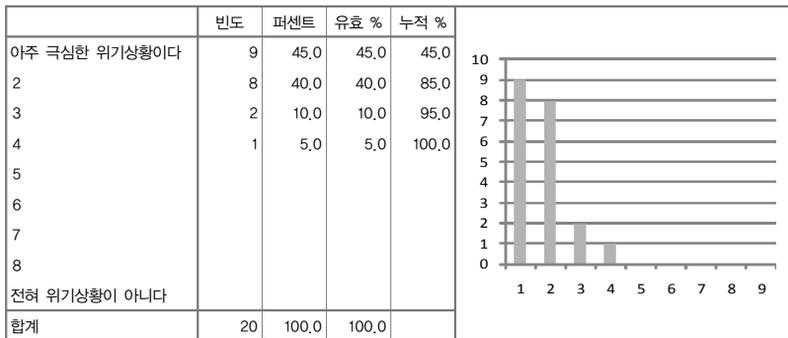
개혁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는 2점에서 7점까지의 응답이 나왔다. 4점 이하의 부정적인 답변은 11명(55%)이며, 중간점인 5점에도 4명이 답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인 6~7점에도 5명(25%)이 존재한다. 평균은 4.30, 표준편차는 1.525이다. 델파이 패널 역시 동일한 범위에서 평가하

였으며 평균은 4.29로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였다.

(2) 북한 경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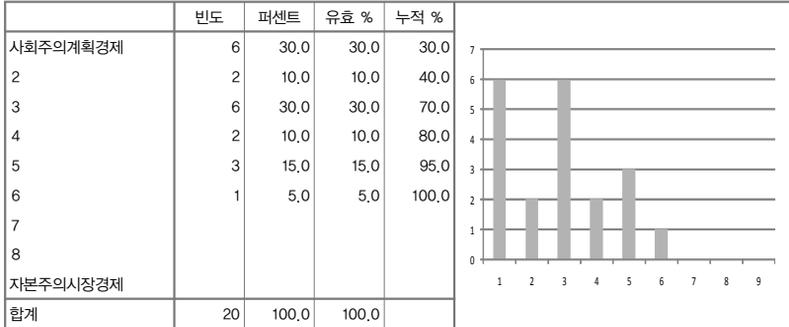
북한 경제에 대한 대북사업자의 평가는 대체로 델파이 패널보다 부정적이다. 북한 경제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문12)이며, 경제 위기(문11) 역시 더욱 극단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문20) 역시 델파이 패널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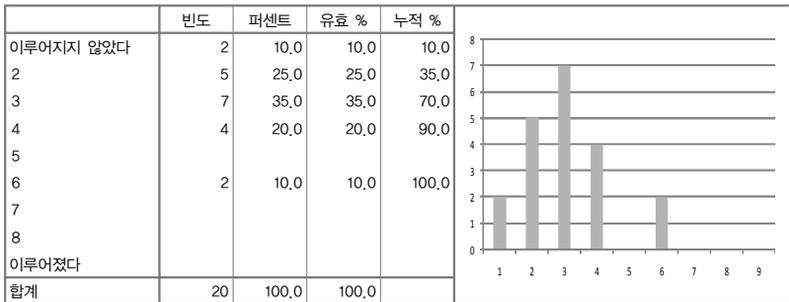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문항은 매우 일치되는 견해로 집중되고 있다. 극단치 1점에 가장 많은 9명이 답하였으며, 1점과 2점에 17명(85%)의 답변이 집중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이를 반영하여 각각 1.75와 .851로 나왔다. 이러한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2.76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대북사업자의 경우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경제체제는 대부분의 대북사업자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깝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극단치 1점과 3점으로 각각 6명이 답하였다. 4점 이하에 14명(80%)이 선택하였으며, 5점에 3명이 있다. 평균은 2.85, 표준편차는 1.599이다. 이러한 분포는 델파이 패널의 평균 3.14보다 더 낮아, 대북사업자들이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 더욱 계획경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패널 전문가의 동일문항에 대한 평균은 2.70이며 답변분포는 대북사업자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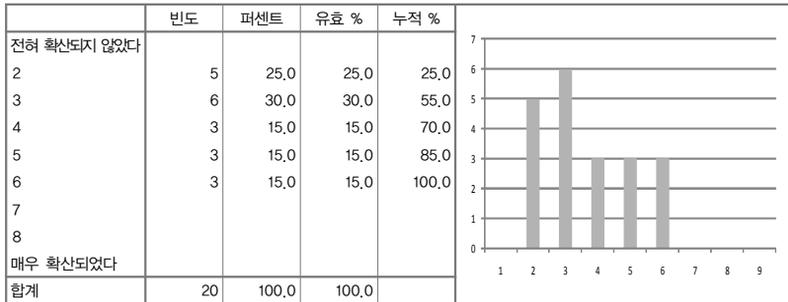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18명이 4점 이하에 답변하였으며, 최빈값은 7명이 모인 3점이다. 평균은

3.05이며 표준편차는 1.356이다. 같은 문항에 대해 텔파이 패널은 2.80, 비패널 전문가는 2.47로 나타나 대북사업자에 비해 개혁·개방 정도에 대해 더 비관적이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문항의 분포도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4명(70%)이며, 5점과 6점에 각각 3명이 있다. 최빈값은 3점으로 6명이 답했다. 평균은 3.65이며, 표준편차는 1.424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2009년에는 대북사업자와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서 약 반수가 다소간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4.84로 계산되었다.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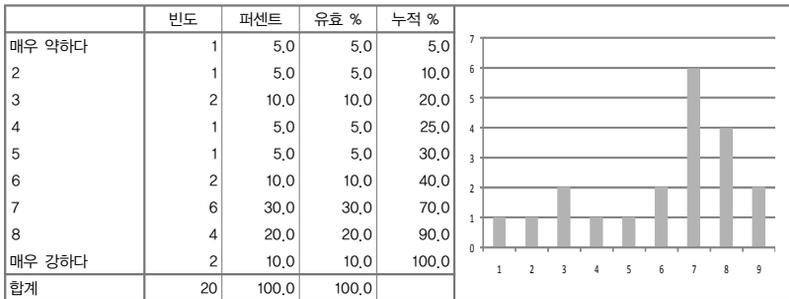
(3) 북한 사회분야

사회분야는 북한의 주민통제 수준(문18),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문19), 체제 지지도(문21), 체제저항과 이탈(문22), 외부 정보의 유입수준(문23)으로 5개 문항이다. 특히 최근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개성공단 사업가가 체감하는 이

I
II
III
IV
V
VI
VII

분야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두었다. 조사 결과 사회분야에 대한 평가는 전 문항에 대해 델파이 패널과 대체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유사한 분포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와 접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북한 사회의 시계열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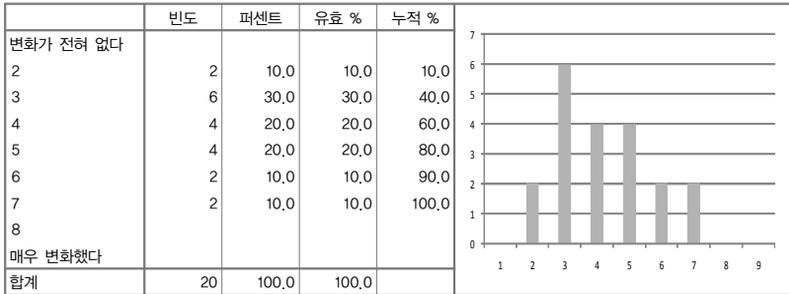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통제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대북사업가는 1~9점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6점 이상의 주민통제가 강하다는 답변에 14명(70%)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 최빈값 7점에 6명이 답하였다. 평균 역시 6.1로 이 같은 분포를 반영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상당히 큰 2.337이다.

델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동일 문항 평균 6.49와 큰 차이가 없으며, 분포의 형태도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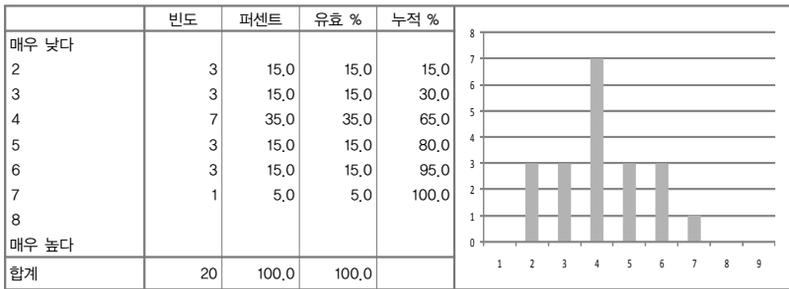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사업자는 북한주민의 의식수준 변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2명(60%), 5점에는 4명이 답하였다. ‘변화가 없다’(3점)에 가장 많은 6명이 모여 있다. 한편 ‘변화가 있다’는 쪽의 응답도 4명(20%)이 된다. 평균은 4.20, 표준편차는 2.337이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4.65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델파이 패널의 경우 상당수가 의식수준의 변화를 인정하여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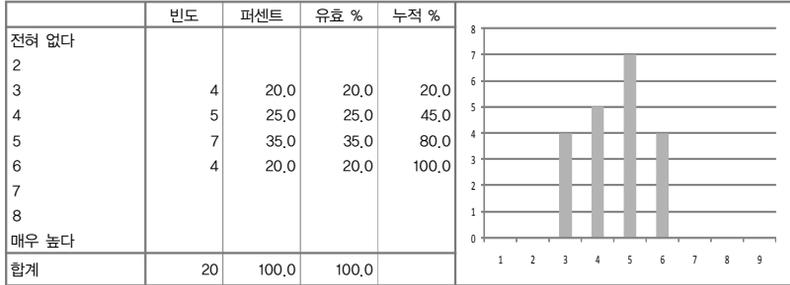


대북사업자는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가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4점에 가장 많은 7명이 답했으며, 4점 이하에 13명(65%)이 있다.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한(6점 이상) 대북사업자도 4명(20%)이 된다.

평균은 4.15, 표준편차는 1.424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41%가 ‘지지도가 높다’고 답변했으며, 평균은 4.9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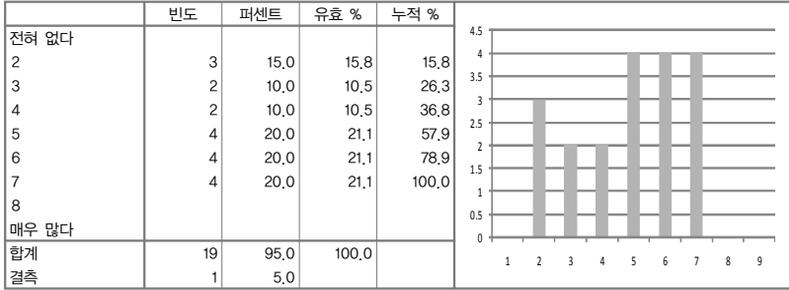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사업자 역시 델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체제 지지도는 낮으나 그것이 체제저항과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항이 다소 있다’(6점)에 답한 사례가 4명(20%)에 불과하며, ‘보통이다’(7점)에 가장 많은 7명이 모여 있다. 4점 이하는 9명(45%)이다. 평균은 4.55, 표준편차는 1.050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3.99로 나타나 두 집단의 평균차가 다소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제이탈이 없으며, 일부(26.3%)가 체제저항이 있는 편으로 답변한 것은 유사하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수준은 ‘낮다’와 ‘높다’의 두 개 집단으로 구별된다. 4점 이하에 7명(36.8%), 6점 이상에 8명(31.5%)이 중간값 5점(4명)을 중심으로 나뉘고 있다. 평균은 4.84로 5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쌍봉형 분포는 평균뿐만 아니라 각 점수별 빈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 표준편차는 1.77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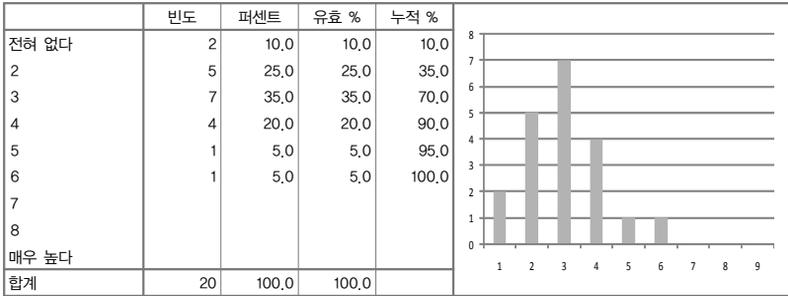
델파이 패널의 경우도 평균 4.94이며, 5점을 중심으로 정보유입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4) 북한 군사분야

군사분야의 경우 델파이 패널의 평가는 대체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많았다. 반면, 대북사업자의 경우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한 편이다. 또한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한의 군사력(문27)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문28)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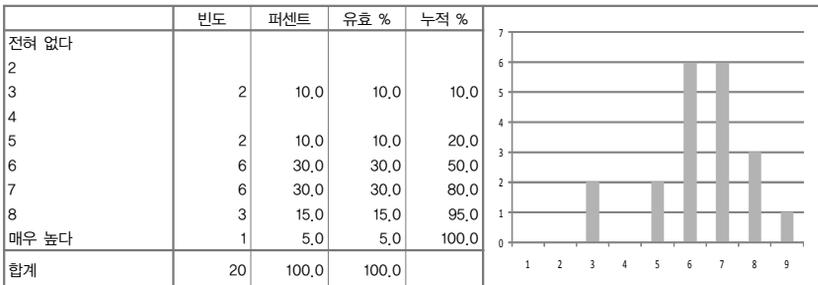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분야는 통일시계에서 가장 낮은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문항의 답변분포는 문11(북한 경제위기)보다 넓으며, 평균값도 상대적으로 높다. 우선 전반적인 답변은 군사신뢰에 부정적인 경향이다. 4점 이하에 18명(90%)이 응답하였다. 최빈값은 3점으로 7명이 해당된다. 평균은 3.0이며, 표준편차는 1.257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동일 문항에 대한 평균은 1.72로 극도로 부정적이며, 답변의 범위도 1점에서 3점 사이에 있었다. 이에 비해 대북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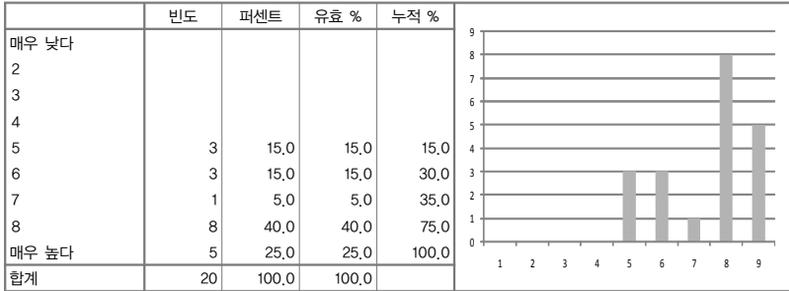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남북의 군사긴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다'고 답변하였다. 최빈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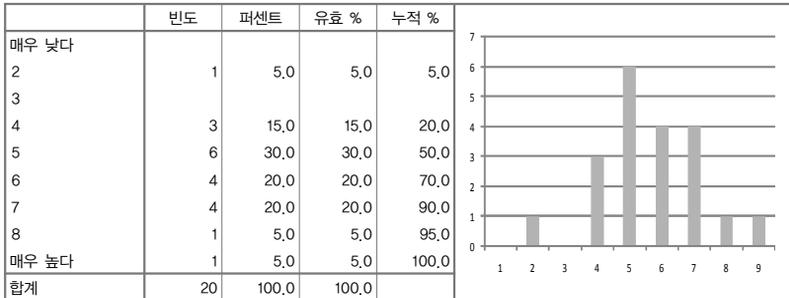
6점과 7점에 각각 6명이 응답하였으며, 6점 이상의 긴장이 높다는 평가가 18명(90%)에 달한다. 평균은 6.35, 표준편차는 1.531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7.27로 대북사업자보다 군사긴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군부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부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북사업자는 극단치인 9점과 8점에 각각 5명과 8명이 응답하여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점 이상의 응답은 17명(85%)이 했다. 평균은 7.45, 표준편차는 1.432이다. 텔파이 패널의 평균은 7.70으로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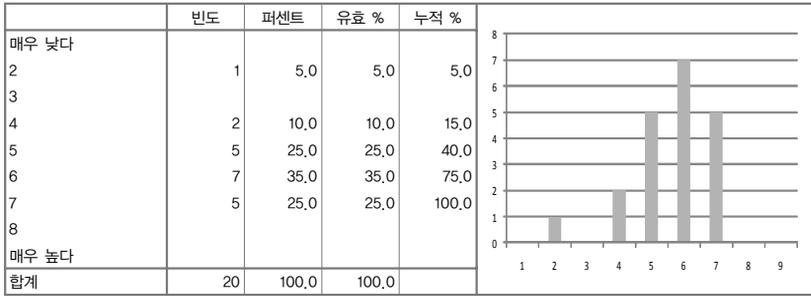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남한의 군사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북사업자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6점 이상이 10명(50%)이며, 중간값 5점에 가장 많은 6명이 답하였다. ‘군사력이 낮다’는 평가인 4점 이하는 4명으로 20%에 해당한다. 평균은 5.65, 표준편차는 1.599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6.47로 남한의 대북태세에 더 긍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북사업자의 답변이 중앙점인 5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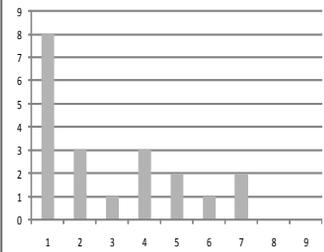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답변은 6점으로 7명이 하였으며, 7점과 함께 총 12명(60%)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간점에도 5명(25%)이 응답하였다. 평균은 5.60, 표준편차는 1.273이다.

텔파이 패널의 평균은 5.69로 유사한 평가이다. 다만 대북사업자의 답변 범위가 2~7점으로 텔파이 패널보다 좁은 범위이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	누적 %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8	40.0	40.0	40.0
2	3	15.0	15.0	55.0
3	1	5.0	5.0	60.0
4	3	15.0	15.0	75.0
5	2	10.0	10.0	85.0
6	1	5.0	5.0	90.0
7	2	10.0	10.0	100.0
8				
포기할 것이다				
합계	2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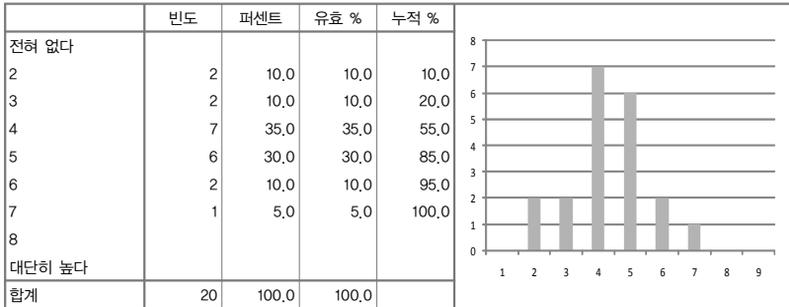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명이 극단치 1점에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범위는 최솟값 1점에서 7점까지 비교적 넓은 편이다. 4점 이하의 응답은 15명(75%)이 하였으며, 중간점 5점에 2명, 6점 이상은 3명이 있다. 평균은 2.95로 빈도분포를 반영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2.139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델파이 패널 역시 넓은 답변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은 2.76이었다.

(5) 남한의 역량 및 남북관계

남한의 역량은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문7), 사회적 역량(문9), 경제적 역량(문9), 통일비용(문14)과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문15)를 살펴보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문항은 남북 경험수준(문10), 주민 간 상호이해(문16), 당국 간 상호 신뢰수준(문17)이다. 남한의 역량과 남북관계 모두 델파이 패널과 거의 일치하는 답변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북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분야인 남북 경험수준(문10)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나타났으니 그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로 미미한 것이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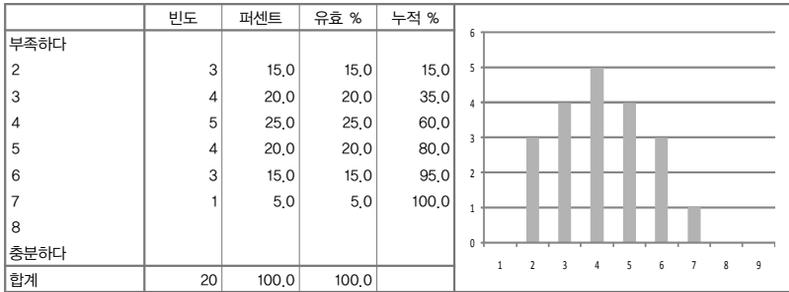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북사업자들은 ‘다소 낮다’고 답변하였다. 11개(55%)의 응답이 낮은 쪽의 답변이며, 5점에 6명이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7명이 몰린 4점이다. 평균은 4.39, 표준편차는 1.268로 계산되었다. 이는 델파이 패널의 평균 4.49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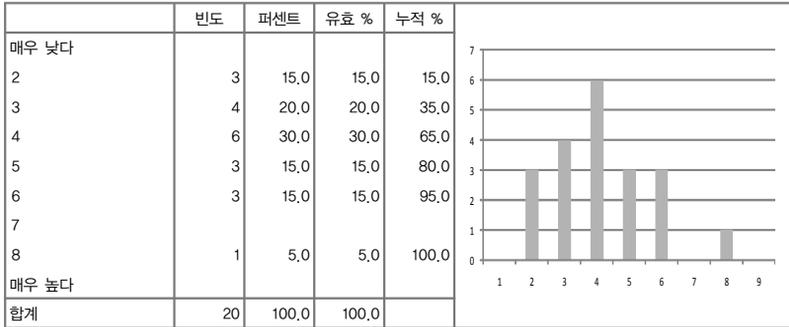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통일역량은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사회적 역량에 대해 대북사업자는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4점 이하의 응답은 12명(60%)이며, 5점은 4명이다. 평균은 4.15, 표준편차는 1.461로 계산되었다. 최빈값은 4점으로 5개의 빈도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를 그리고 있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4.02

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값이지만, 델파이 패널의 최빈값 3점에 비해 한 단계 높은 4점에 가장 많은 답변이 있다.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경제역량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다. 답변은 2점에서 8점까지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4점으로 6개 빈도를 기록하였다. 4점 이하에 응답한 수는 13명(65%)이며, 6점 이상에 4명이 답했다. 평균은 4.15, 표준편차는 1.565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4.92로 ‘낮다’와 ‘높다’에 의견이 양분되는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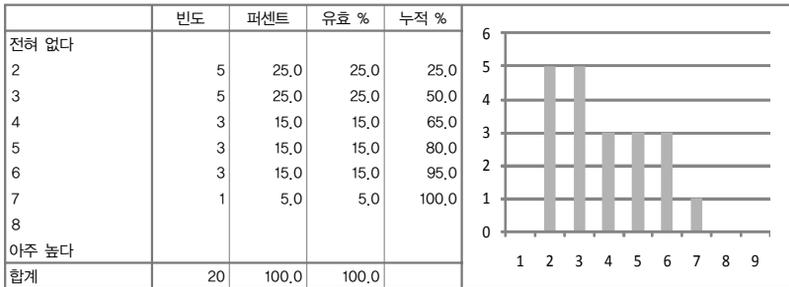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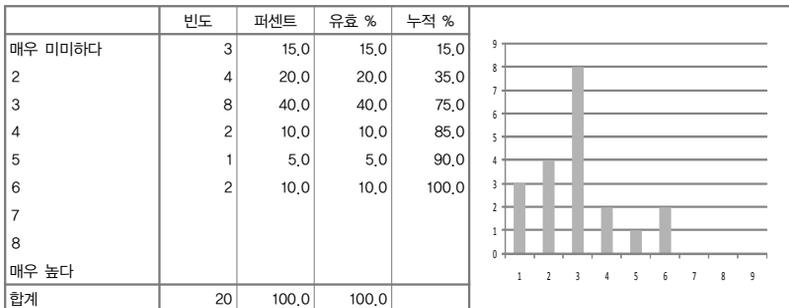
통일비용의 부담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최빈값은 2점과 4점으로 각각 6명씩 답변하였으며, 4점 이하에 15명(75%)이 답변하였다. 평균은 3.65, 표준편차는 1.461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3.72로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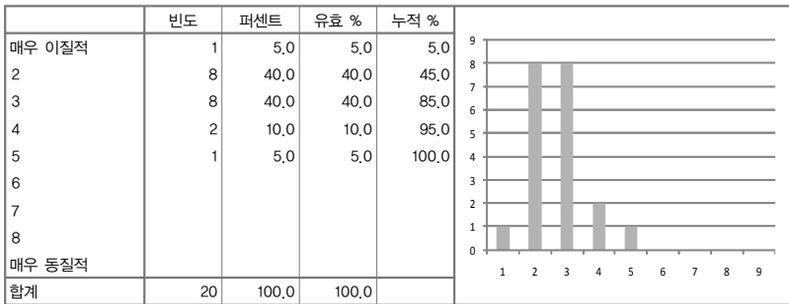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다. 4점 이하에 13명(65%)이 답했으며, 5점에 3명, 6점 이상에 4명이 있다. 최빈값은 ‘상당히 없다’(2점)와 ‘없다’(3점)로 각각 5명씩 있다. 평균은 3.85, 표준편차는 1.461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 3.96과 유사한 답변이다.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남북경협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4점 이하의 답변이 17명(85%)에 달한다. 가장 많은 답변은 3점으로 8개의 빈도가 있다. 특히 극단치인 1점에 3명이 답하고 있다. 평균은 3.0, 표준편차는 1.451로 나왔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2.94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조사대상이 남북경협의 실상황에 직접 연관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평균 2.50으로 대북사업자보다 현 경제협력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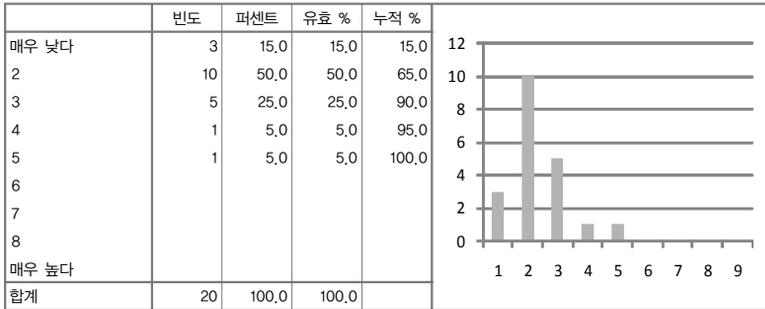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묻는 문항의 경우 매우 일치되는 답변이 나왔다. 최빈값 2점과 3점에 16명(80%)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평균은 2.70이며, 표준편차는 .923으로 낮은 편이다. 대북사업가의 답변은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3.33보다 낮아 동질성 확보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빈도의 분포는 두 집단 모두 1점에서 5점까지로, 사례수가 증대될 경우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I
II
III
IV
V
VI
VII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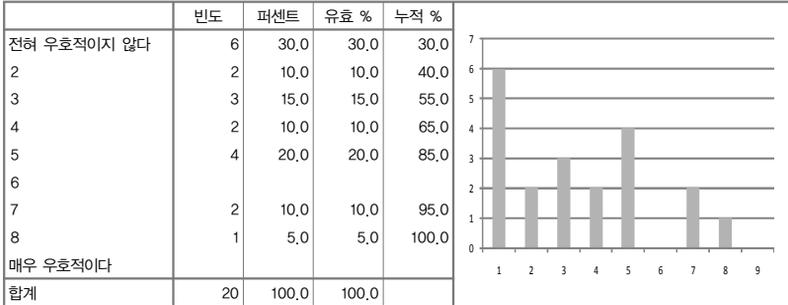
남북당국 간 상호신뢰의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빈값 2점(‘상당히 낮다’)에 10명이 답했으며 19명(95%)이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했다. 이를 반영하여 평균은 2.35로 매우 낮으며, 표준편차는 .988로 작은 편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동일문항의 평균은 1.92로 조금 더 낮으나 빈도분포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6) 국제관계분야

대북사업자는 미국(문31), 중국(문30), 러시아(문32), 일본(문33) 등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제관계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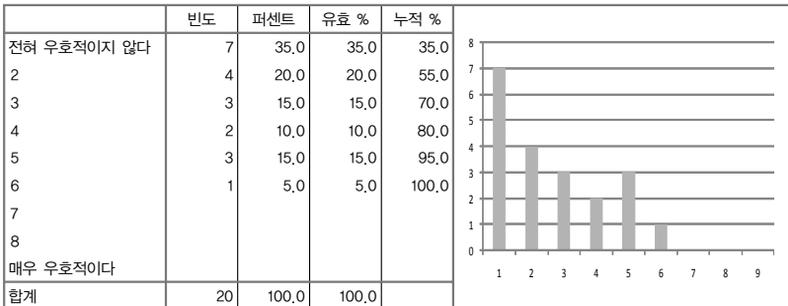
텔파이 패널과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항이다. 텔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문31에 대해 각각 5.96과 5.17의 평균으로 중간점인 5점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대북사업자의 경우 65%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평균도 3.45로 매우 낮아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넓은 답변범위를 가졌던 문항이며, 대북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답변이 미국의 역할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극단치 1점으로 6명이 있으며, 4점 이하의 부정적 답변은 13명(65%)이 해당된다. 또한 중간값 5점에 4명, 7점과 8점에 3명이 답하고 있다. 평균은 3.45로 낮은 편이며, 표준편차는 2.259로 높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 집단의 경우 모두 넓은 답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값은 각각 5.96과 5.17로 모두 중간점을 넘기고 있다.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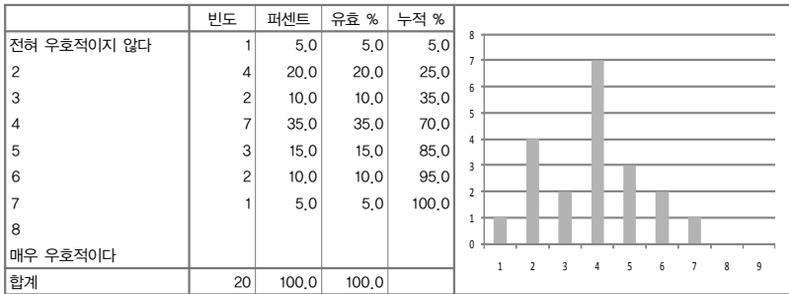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다수의 답변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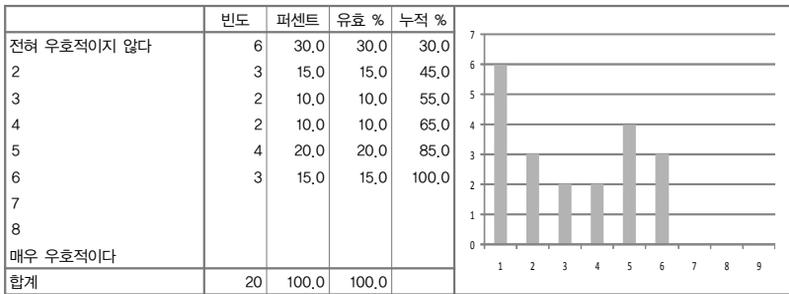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6명(80%)이었으며, ‘중도적’인 답변이 3명, ‘다소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1명이다. 평균은 2.65, 표준편차는 1.663으로 계산되었다. 델파이 패널(평균 3.38)과 유사한 분포이지만 대북평균이 더 작은 것은 극단치 1점에 가장 많은 7명이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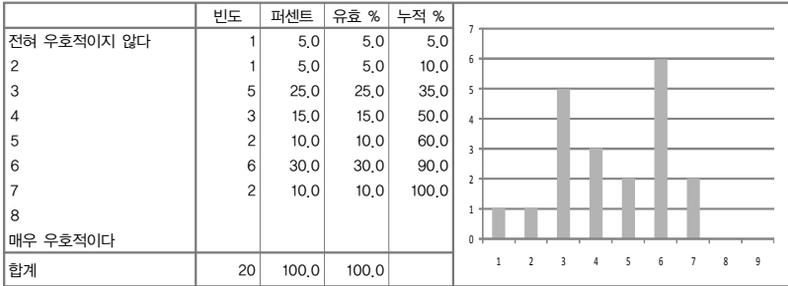
러시아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수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4점으로 7명이 있다. 1점에서 4점까지 14명(70%)이 답변하고 있으며, 5점에 3명, 6점과 7점에 3명이 있다. 평균은 3.85, 표준편차는 1.565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4.84였다.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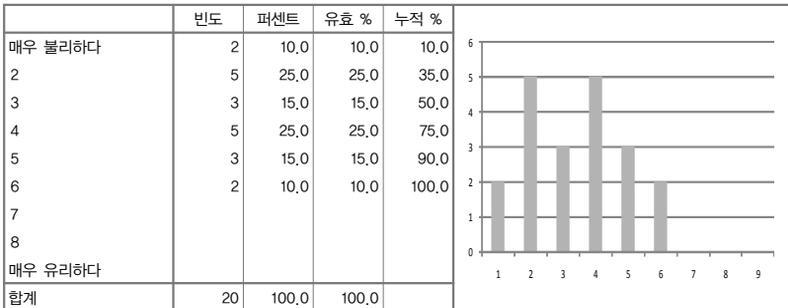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이다. 6명이 극단치인 1점에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에 13명(65%)이 있다. 나머지는 5점과 6점에 각각 4명과 3명이 답했다. 평균은 3.20, 표준편차는 1.93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은 4.41이었으며, 역시 러시아보다 일본이 통일에 비우호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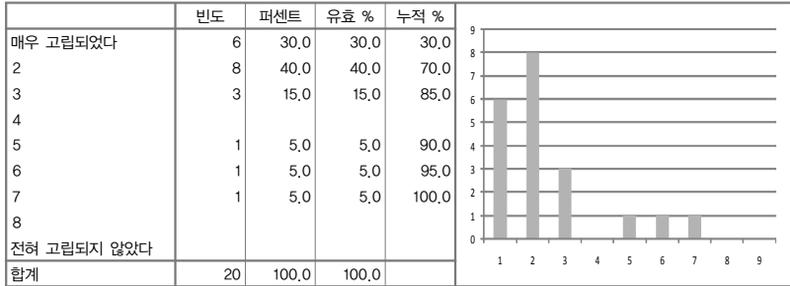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우호와 비우호로 답변이 나뉘고 있으나 비우호쪽이 더 많다. 4점 이하의 답변은 10명(50%)이며, 5점에 2명, 6~7점에 7명(35%)이 있다. 평균은 3.40, 표준편차는 1.536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5.37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많았다.

문35. 현재 마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2010년 8월)의 미·중관계는 15명(75%)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5점에 3명, 6점에 2명이 있다. 평균은 3.40, 표준편차는 1.536으로 빈도분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델파이 패널 역시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은 3.75였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은 다수가 고립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극단치 1점에 6명, 최빈값 2점에 8명이 답변하였으며, 1~3점까지 17명(85%)이 해당된다. 평균은 2.45, 표준편차는 1.701이다. 델파이 패널의 평균은 2.53이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3.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조사 요약

비패널 전문가는 델파이 패널과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서 모집되어 전 분야에 걸쳐 양자는 상이성보다는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패널 전문가의 통일시계 및 통일요인 전반에 대한 평가는 미세하게 델파이 패널보다 통일에 더 가깝게 평가하고 있다.

통일시계의 경우 델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정치 및 군사 분야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경제 및 사회 분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통일전반에 대한 시간은 델파이 패널에 비해 합의형의 경우 22분 빠르며, 흡수형의 경우 17분 빠르다. 특기할 점은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경제분야와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해 각각 1시간 10분과 55분이라는 큰 차이로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흡수형 통일의 군사부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델파이 패널보다 30분 더 늦다고 평가하였다.

통일요인은 상당부분 일치하는 문항이 많았다. 예외적으로 델파이 패널보다 낮은 평가를 보인 문항은 남한국민의 통일역량과 의지와 관련된 일련의 문항들과 북한주민의 체제지지와 관련된 문항이다.

대북사업자의 경우 사례수가 부족하여 극단치가 과장된 역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시계 12개 문항에 대한 답변은 다른 4개 집단과 차별적이다.

델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종합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해 대북사업자는 1시간 31분이나 빠르게 평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합의형 시계의 대부분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통일에 가깝게 점수를 주었다. 그 결과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점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점인 6시를 넘긴 6시 33분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I
II
III
IV
V
VI
VII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대북사업자의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가는 전 비교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 종합적인 흡수형 통일은 델파이 패널보다 15분 늦으며, 사회분야의 경우 29분이나 늦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경협과 밀접한 환경에서 합의형 통일에 대한 현상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뻐함을 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통일요인 설문은 경우 다른 집단과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문항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답변의 분포도 20명이라는 사례수에 비해 상당히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례수 부족으로 예외적인 몇몇 답변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V.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파악하고 이를 델파이 패널과 비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사에 위탁하였으며, 2010년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로 신뢰수준 $\pm 3.1\%$ 이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표집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이다.

설문지는 몇 가지 고려에 의해 기존의 2010년형 델파이 조사 문항 중 통일시제 2개와 14개 통일요인 문항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우선 비용과 시간 문제를 감안하였다. 델파이 조사 전 문항은 매우 길며 상당한 집중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화설문방식으로는 어려우며, 대규모 조사원을 동원한 면접조사를 통해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단독연구가 아니며, 통일예측시제의 전문가 패널 조사의 비교집단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 문항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별도의 연구주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설문문항은 2009년 델파이 조사 사후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통일요인으로 고려된 14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통상적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전문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짧은 전화통화 시간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항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한 모든 설문항은 5점 척도로 전환하였으며, 척도의 방향도 전화설문임을 고려하여 역순으로 배치하였다.

통일시간을 묻는 질문은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 두 가지 유형만을 조사하였다. 이 때 100점 척도는 10점 척도로 바꾸었다. 이 역시 설문대상의 비전문성과 전화조사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요인설문은 9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통일시제는 100점 척도에

I
II
III
IV
V
VI
VII

● 그림 V-1 국민 여론조사 통일시계 설계

다음은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15. 합의형 통일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한 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에 통일을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형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실 경우를 1, 합의형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

16. 흡수형 통일이란 북한이 더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남한이 흡수하게 되는 통일을 말합니다. 흡수형 통일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 흡수형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점

서 10점 척도로 변환되었으나, 통계적 비교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선 사례수가 1,000개로 모수통계기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표준화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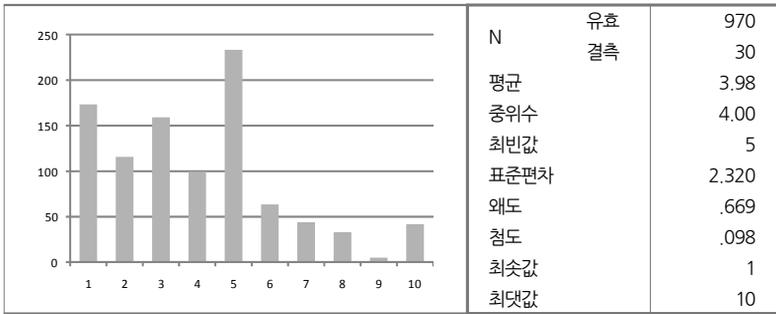
1. 통일예측시계: 국민 여론조사

통일예측시계 12개 분야 중 국민 여론조사는 종합적인 합의형 및 흡수형 시계만을 조사하였다. 조사방식은 각각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 합의형 통일시계



국민여론
4시 47분
패널+1:02



국민은 80%가 합의형 통일에 대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47분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평균 3.98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며, 텔파이 패널에 비해 1시간 2분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10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중간값, 즉, 6시 시점은 5.5다. 5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유효 응답자 중 80.7%가 답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은 5점으로 234명이며 24.1%(이하 유효 퍼센트임)에 해당한다. 국민 여론조사이며, 사례수가 많음에 따라 범위는 1점부터 1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장 적은 응답은 9점으로 5명이 응답하였다.

국민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극단값 1점과 10점에 다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다. 1점에는 174명(18%)이, 10점에는 4.3%에 해당하는 42명이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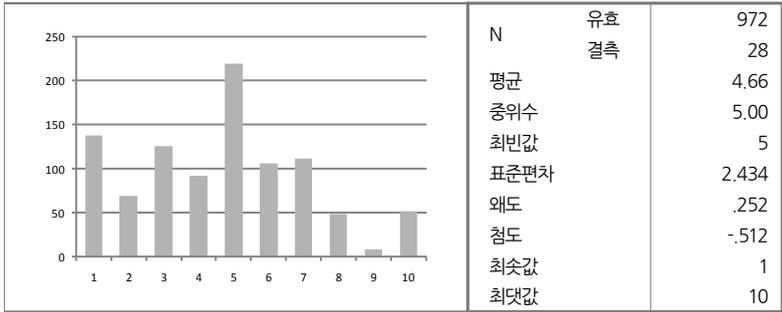
답변하였다. 이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교차표분석(cross-tabs)과 카이스퀘어(χ^2)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1점 응답자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0점 응답자의 경우 몇 가지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50~60대가 극단치 10점에 상대적으로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사무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많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0점을 부여하는 빈도가 높았다. 모두 카이스퀘어 분석의 유의수준(.05)을 만족하고 있다. 극단치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설문문항이 전화조사용으로는 매우 길고 어렵다는 점과 일부 응답자가 현재 상황이 아닌 기댓값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는 유효하다. 우선 사례수가 많아 각 항목별 오차는 상쇄될 것이며 (특히 1점과 10점), 전반적인 분포의 형태가 종형 구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점을 오차항으로 소거할 경우 평균은 3.71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시계로 환산하면 4시 27분이다. 한쪽 극단치의 소거로 20분이 더 늦춰지고 있다.

나. 흡수형 통일시계



국민여론
5시 36분
패널+16분



일반국민이 평가한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36분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에 비해 49분 빠르다. 흡수형이 합의형보다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델파이 패널과 동일하다. 평균은 4.66이며, 표준편차는 2.434이다. 흡수형 역시 범위는 1에서 10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5점으로 22.6%에 해당하는 219명이 응답하였다. 1점에서 5점 사이의 응답은 643명이 하였으며, 유효응답자의 66.3%에 해당한다. 가장 적은 응답은 9점으로 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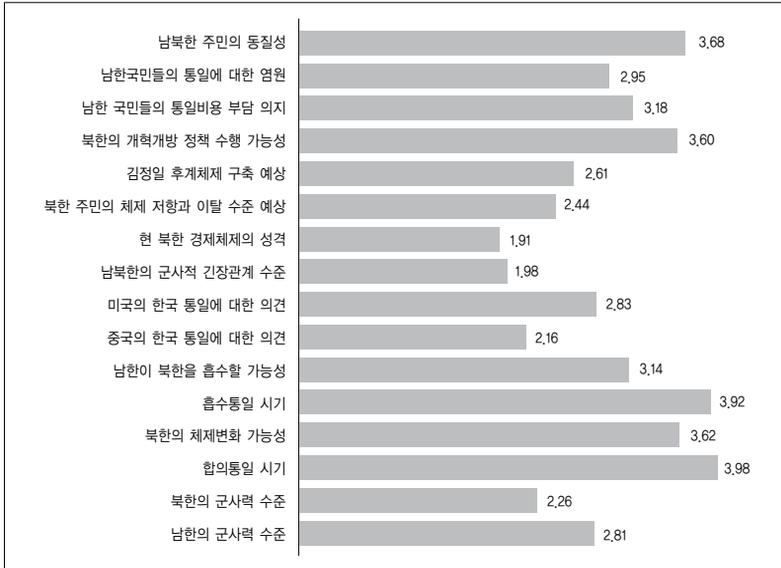
흡수형 통일시계 역시 1점과 10점의 극단치 응답이 많았다. 1점에 138명이, 10점에는 52명이 답하고 있다. 각각 14.2%와 5.4%에 해당한다. 이를 더 살펴보기 위해 합의형과 동일하게 교차표분석과 카이스퀘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합의형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즉, 1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이 임박한 경우(10점)로 답한 경우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연령이 많아질수록 10점을 선택하였다. 10점 응답자의 86.5%가 40대 이상이다. 소득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점 응답자만 분리하여 소득과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매우 높은 역관계(-.790)가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아질수록 10점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력 역시 낮을수록 10점 응답이 많았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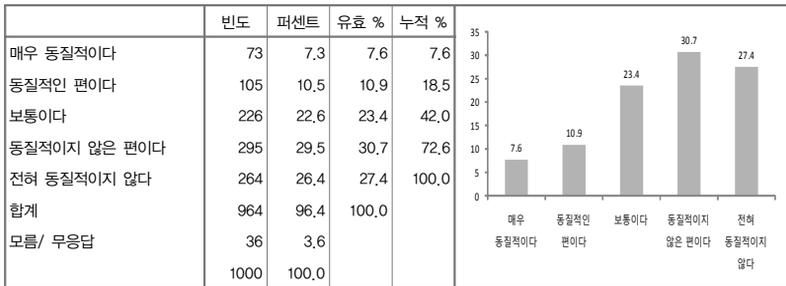
흡수형 통일의 경우도 극단치 10점을 소거하여 평균을 다시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평균은 4.36으로 시간환산 결과 4시 27분으로 밝혀졌다. 역시 극단치 제거로 인해 19분이 더 늦어지고 있다.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국민 여론조사

●그림 V-2 대국민 여론조사(평균)



문1. 선생님께서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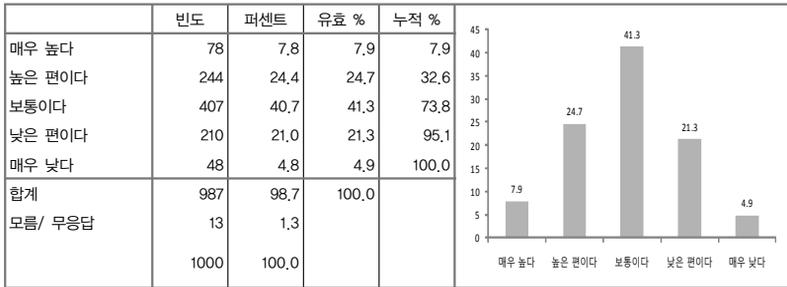


남북주민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유효 응답 58.19%가 '동질적

이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보통'에는 23.4%, '동질적이다'에는 18.5%가 답변하였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해당 질문은 문16으로 82.4%가 '동질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동질성에 대해 일반국민이 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남북주민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59.8%), 월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62.1%)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동질적이다'는 응답은 40대(24%), 블루칼라(2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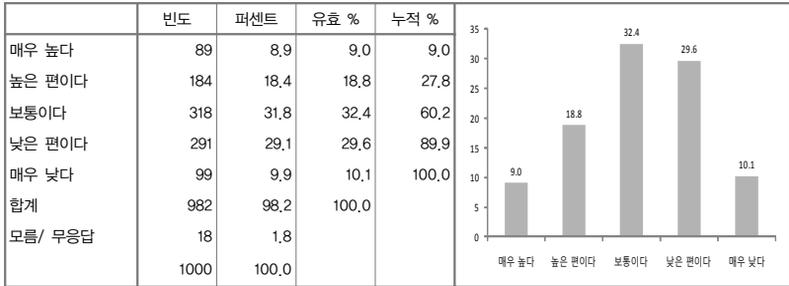
문2.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텔파이 조사의 문7을 변형한 것이다. 응답은 '보통이다'가 40.7%로 가장 많았다. '높다'는 32.1%로 '낮다'쪽에 응답한 25.8%보다 다소 많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반대로 낮은 쪽의 응답이 더 많았다.

이 문항 역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답변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60대 이상의 경우 44.6%가, 중졸이하의 경우 38.7%가 '높다' 쪽에 응답하였다. 소득의 경우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가장 높고, 401만원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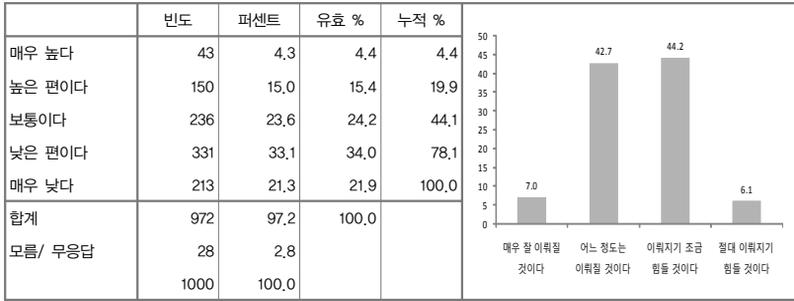
문3.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은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의지는 텔파이 조사 문14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국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도 상당한 수준이다. ‘낮다’에 답한 경우가 39.1%이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31.8%, ‘높다’에 27.3%가 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학력, 성별, 연령, 소득 등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47%, 여자 36%가 긍정적 답변을 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통일비용 부담의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높아질수록 비용부담의 의지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는 가정주부와 학생이 현저하게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소득과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의지는 역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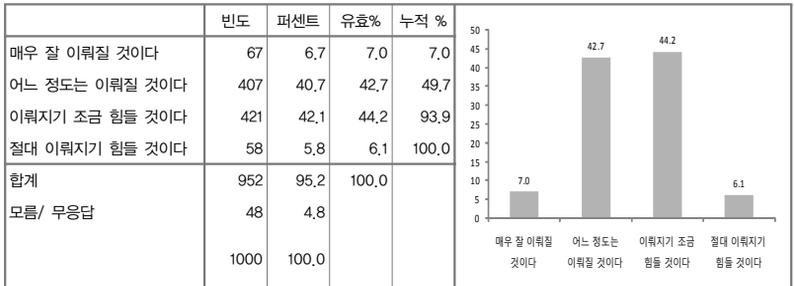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4.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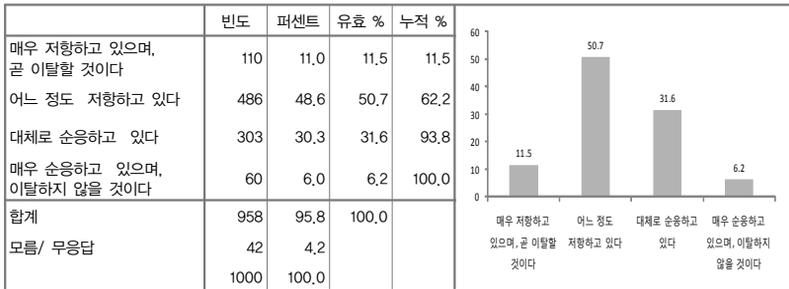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낮은 편이다’로 33.1%에 달한다. ‘낮다’와 ‘매우 낮다’는 54.4%이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3.6%, ‘높다’(‘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다’)가 19.3%이다. 델파이 조사에서 동일문항은 문13으로 86.3%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전 응답층에서 골고루 나왔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 계층은 광주/전라 거주자(29.1%), 대전/충청 거주자(27.4%), 19~29세(26.7%), 학생(31.5%) 등이다.

문5.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뒤를 잇는 후계체제 승계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은 델파이 조사의 문1과 동일한 문항이다. 국민들은 ‘이뤄진다’에 47.3%, ‘이뤄지기 힘들다’에 47.9%로 응답하였다. 즉, 양 응답이 정확하게 같은 수준으로 양분되고 있다. ‘후계체제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58.1%) 및 인천/경기(52.5%) 거주자가 많았으며, 월 소득 151~250만원(55.4%)에서 많았다. 반면, ‘이뤄지기 힘들다’는 응답은 서울 거주자(54.6%)와 월 소득 251~400만원(54.6%) 집단이 많았다. 그러나 가능-불가능의 편차가 크지는 않다. 동일 문항에 대해 델파이 패널은 매우 넓은 답변분포 속에서 구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6. 북한 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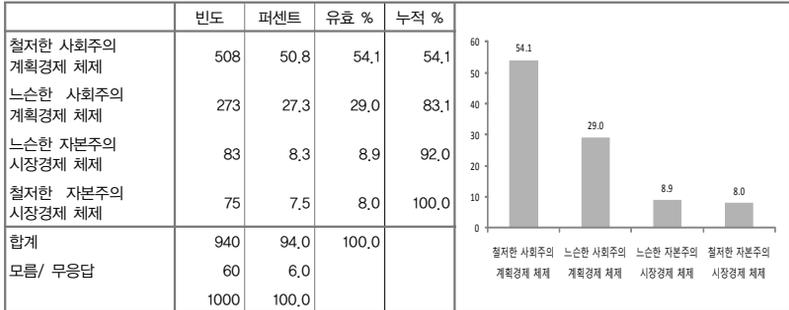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은 델파이 조사의 문22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은 ‘어느 정도 저항하고 있다’는 응답을 48.6%로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대체로 순응하고 있다’(30.3%), ‘매우 저항하고 있다’(11.0%), ‘매우 순응하고 있다’(6.0%)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결과와 대단히 유사한 분포를 가진 것이다.

답변분포는 연령층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응보다는 저항 쪽에 더 많은 답변을 하고 있다. 학력의 경

I
II
III
IV
V
VI
VII

우 낮을수록 저항 쪽에, 높을수록 순응 쪽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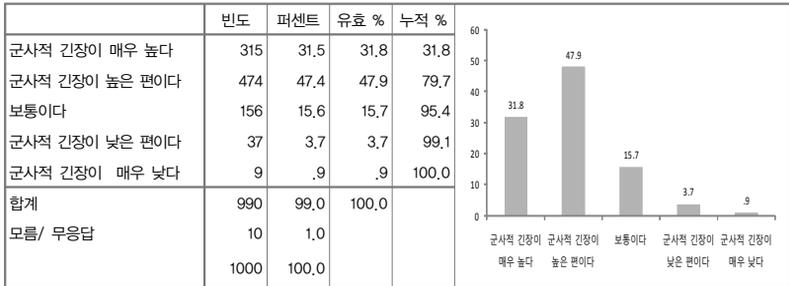
문7. 현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델파이 조사의 문12에 해당한다. 일반국민들은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해 과반 이상(50.8)이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평가하였다. ‘계획경제’에 대한 전체의 응답은 78.1%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 쪽의 응답은 15.9%로 나타났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가장 많은 답변은 ‘느슨한 계획경제’(3점과 4점)로 응답의 52.9%였다.

‘시장경제에 가깝다’ 응답은 지역별로 강원/제주,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이 많았다. 또한 30대가 상대적으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오차범위 이내이다. 학력과는 고졸과 중졸이하의 경우가 많았으나 역시 오차범위 이내이다. 소득은 월 150만원 이하의 경우 21.9%가 시장경제로 응답하였으며, 전체평균보다 6% 많은 답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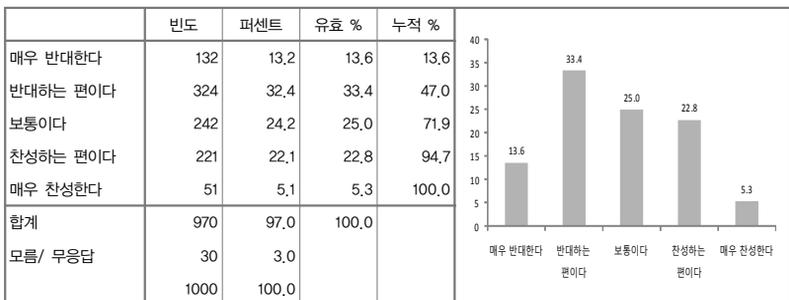
문8.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델파이 조사의 문25와 동일한 문항이다. 국민 대다수가 군사적 긴장이 ‘높다’에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높은 편이다’로 47.4%이며, ‘매우 높다’ 역시 31.5%로 높은 편이다. ‘군사적 긴장이 낮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하다. 델파이 패널 역시 거의 동일한 분포로 응답하고 있다.

이 문항과 응답자 특성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연령, 학력, 소득, 성별, 출신지역 등 모든 항목에서 독립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군사적 긴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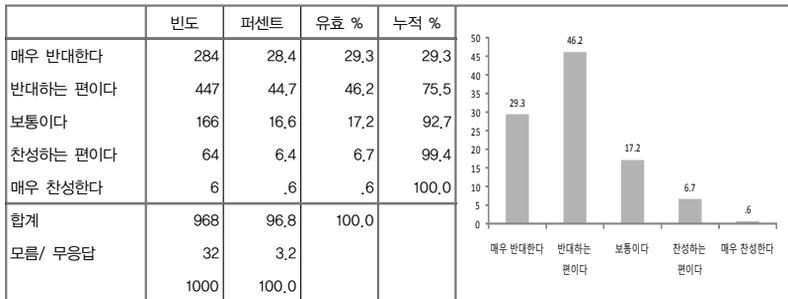
문9. 만일 한국의 통일이 임박했다고 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45.6%로 ‘찬성할 것’의 27.2%보다 다수이다. ‘매우 반대’는 13.2%, ‘반대하는 편’은 32.4%가 답변하였다. ‘중립적’ 의견도 24.2%에 이른다. 델파이 조사에서 동 문항은 문31로, 델파이 패널은 미국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국이 한국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69.0%),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55.4%)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67.9%) 및 화이트칼라(56.3%)가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았다. 소득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401만원이상: 53.4%)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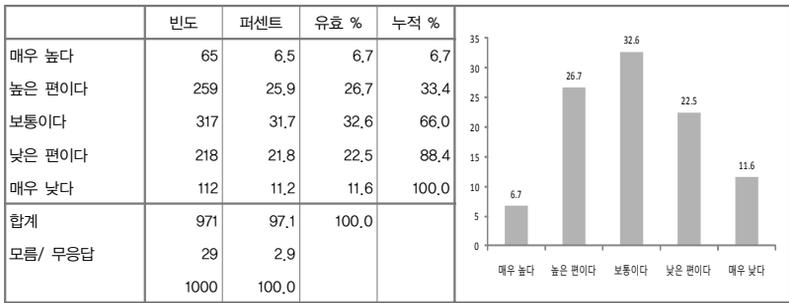
문10. 만일 한국의 통일이 임박했다고 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은 델파이 조사의 문30과 동일한 문항이다. ‘반대’에 해당하는 응답은 73.1%에 달하며, 이는 미국에 대한 태도 45.6%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국민은 미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보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에 해당하는 응답 역시 7.0%에 불과하다. 즉, 압도적 다수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반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학생이거나 화이트칼라일 경우일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비율을 보면 통계적 오차 범위 이내에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도 부정적 경향이 있었으나 거의 미미하다. 즉, 응답자의 특성과 크게 관계없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11. 북한이 더 유지되지 못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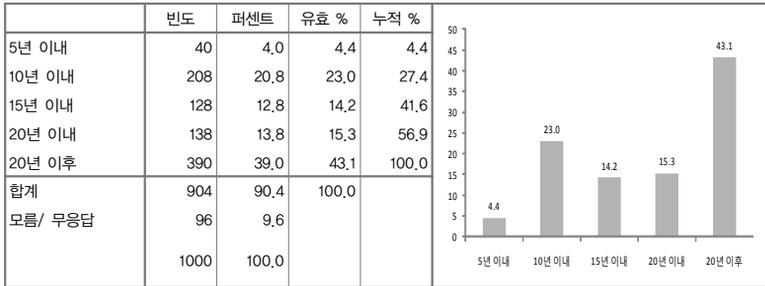
이 문항은 아래 문11-1과 함께 흡수형 통일시계의 비교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남한의 흡수가능성에 대해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31.7%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흡수가능성이 ‘높다’에 32.4%, ‘낮다’에 33.0%가 답변하여 미세하게 ‘낮다’가 많다. 평균은 3.06, 표준편차는 1.104로 빈도분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값은 위에서 평가한 일반국민들의 흡수형 통일시계 평균 4.66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⁰⁾

¹⁰⁾ 즉, 4.66은 중간점 5점에 다소 못 미치며, 3.06은 중간점 3점을 다소 초과한다. 두 측정단위의 방향은 반대이다. 따라서 두 평균은 모두 흡수가능성에 대해 중간점에 가까우나 미세하게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일반국민의 흡수형 통일시계 값 5시 36분과도 일치한다.

I
II
III
IV
V
VI
VII

지역, 연령, 성별, 학력, 재산 등의 응답자 특성과 흡수 가능성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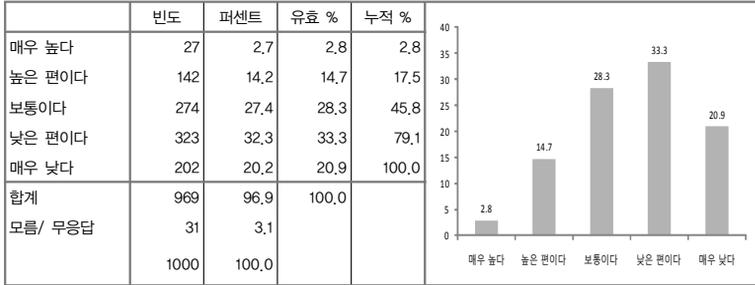
문11-1. 그럼, 이러한 흡수형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흡수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후’가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년 이내’로 20.8%가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아래 문12-1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통일의 유형별 근접성을 확인하기 위해 첨가된 문항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52.9%)하여 흡수통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20년 이후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무직/기타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10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생과 화이트칼라는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많았다.

문12.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체제변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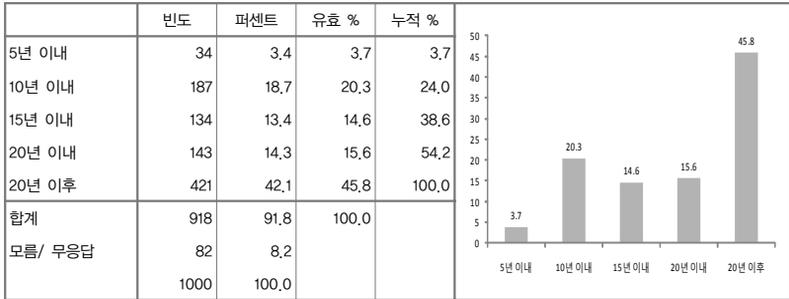
이 문항 역시 통일시계의 비교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합의형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질문했으며, 아래 문12-1에는 그 시기를 문의하였다.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 ‘낮은 편이다’에 가장 많은 32.3%가 답하였다. 다음은 ‘보통이다’로 27.4%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가 16.9%, ‘낮다’가 52.5%로 현저하게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평균은 3.55이며, 표준편차는 1.063이다. 이 값은 위 합의형 통일시계의 평균 3.98과 일관되는 점수이다.¹¹

합의형 통일의 비교문항인 문12와 흡수형 통일의 비교문항인 문11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합의형의 평균은 3.55, 흡수형은 3.06이다. 5점 척도에서 0.49의 차이는 통일시계 5시 36분과 4시 47분의 시간차인 49분에 비해 작으나 근접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¹¹ 합의형 통일의 중간점은 9점 척도 중 5점이며 이로부터 1.02만큼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이다. 문12의 평균 3.55는 5점 척도의 중간점 3점에서 0.55만큼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이다. 문12보다는 합의형 통일시계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세한 차이이므로 양자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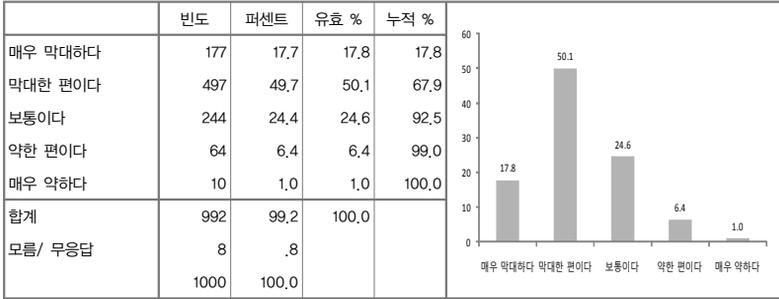
문12-1. 북한이 체제변화를 하면 남북한이 합의하에 통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인
 니다. 그럼, 이러한 합의형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합의형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20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42.1%가 ‘20년 이후’의 먼 미래라고 응답하였으며, 18.7%가 ‘10년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20년 이후’라는 응답은 19~29세(55.3%)의 경우, 대재이상(47.5%)일 경우, 학생(54.6%) 및 화이트칼라(50.2%)의 경우 다소 많은 응답이 있었다.

통일유형에 따른 통일의 시기는 흡수형 통일시기를 질문한 문11-1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흡수통일이 20.8%, 합의통일이 18.7%이다. 즉, 가까운 미래에 합의통일보다는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2.7%에 불과하다. ‘20년 이후’라는 응답은 흡수통일의 경우 39%, 합의통일은 42.1%이다. 이 답변 역시 통일의 요원함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합의통일이 흡수통일보다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역시 2.1%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설명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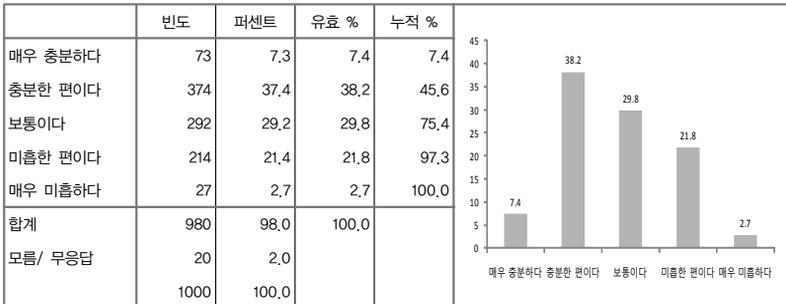
문13.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텔파이 조사의 문28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67.4%의 국민이 북한 군사력을 강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하다. 텔파이 패널은 북한 군사력에 대해 다소 높게 평가하고는 있으나, ‘낮다’는 평가도 23.5%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북한 군사력에 대해 상당한 비율로 강하게 보고 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1.6%)이, 연령으로는 50대(74.9%)가, 학력은 고졸(73.1%)일 경우, 그리고 직업별로는 주부(74%)가 북한의 군사력을 다소 더 강하게 보고 있다. 반면, ‘약하다’는 응답은 대재이상(9.0%)과 학생(11.8%) 층에서 많았다.

문14. 그럼, 현재 남한의 군사력 수준이 북한에 대응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44.7%로 가장 많으며, ‘보통이다’(29.2%)와 ‘미흡하다’(24.1%)가 뒤를 잇고 있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에 비교할 경우,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충분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미흡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극단치인 ‘매우 충분하다’가 7.3%에 불과하며, ‘미흡한 편이다’는 21.4%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문13의 각 항과 비교된다.

응답자의 특징은 ‘충분하다’에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55.1%로 특히 높았으며, ‘미흡하다’에는 30대(29.7%)와 주부(29.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동 문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27에 해당한다. 델파이 패널은 전반적으로 남한의 대북태세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 44.7%가 군사력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패널은 76.5%가 충분하다고 답변하였다.

Ⅵ. 탈북주민 조사

탈북주민은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한 독특하고 희소한 사례이다. 이들의 통일에 대한 시간 평가와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은 앞서 시행한 다른 연구의 대상 집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는 델파이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2010년 8월 30일에서 9월 11일까지 2주간 시행되었다. 설문문항은 피설문자가 비전문가임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는 일부 풀어서 작성하고, 쉬운 용어로 대체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부를 제작하여 『NK지식인연대』에 의뢰하였으며, 이 중 99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의뢰과정에서 피설문자의 선정은 되도록 탈북기간이 길지 않으며,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과 관련된 정보로부터 이격된 기간이 짧을수록 설문 내 북한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이 최근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델파이 조사지가 평균적 일반인이 답변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고려였다. 따라서 본 설문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설문답변이 북한에서의 경험을 상당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타 델파이 조사 집단과의 비교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99명의 설문대상 중 남성이 36명, 여성이 60명이었다. 연령층은 25세에서 62세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42.6세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시기는 1년에서 20년 사이로 평균 5.98년으로 나타났다. 탈북 3년 이내인 피설문자는 23명, 5년 이내는 56명이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36명, 전문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21명, 대학 재학 이상이 42명이었으며, 소학교(인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는 없었다. 통상적인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보다는 높은 편이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군인의 빈도가 70명으로 비교적 고급

I
II
III
IV
V
VI
VII

직업군 종사자가 많았다. 교차분석의 결과 학력과 직업의 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12개 분야 통일예측시계의 상대적 시간은 다른 비교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탈북주민 역시 합의형 통일보다 흡수형 통일이 더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군사부문보다는 경제·사회 분야가 더 통일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개별 5개 분야에 대한 통일시계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데 비해 통일전반을 묻는 두 개의 통일시계의 경우 유독 평가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시간으로 평가한 전문가 패널과 비교할 경우, 합의형 통일시계는 1시간 26분, 흡수형 통일은 1시간 20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용한 설문자 특성 문항 군을 통해 평균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학력과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흡수형 통일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통일시간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합의형 통일에 대해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평균 37점을 부과하였으나,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의 경우 50.3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중학교 중퇴·졸업자와 전문학교 중퇴·졸업자가 대학 재학 이상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모든 학력에서 전문가 패널보다 높은 점수를 부과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전문가 패널과 큰 격차를 갖게한 원인 중 하나는 응답자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차이도 종합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시간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²

¹² 흡수형 통일시계(종합)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5점가량 높게 평가했다. 6.5점은 47분에 해당한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여성이 평균 15분가량 높게 평가했다.

● 표 VI-1 학력과 통일시계 간의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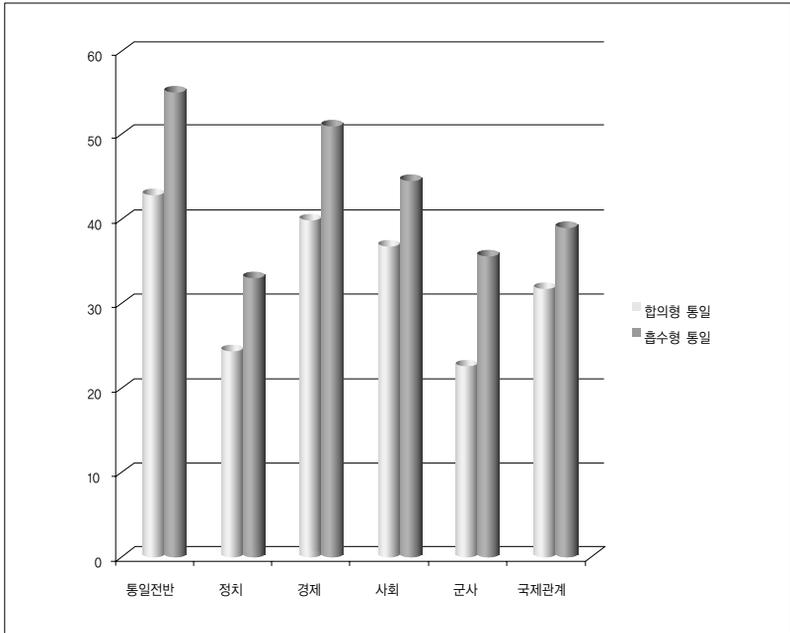
북한에서의 학력		합의형 통일시계(종합)	흡수형 통일시계(종합)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평균	50.343	57.743
	N	35	35
	표준편차	15.1792	19.8307
전문학교 중퇴 또는 졸업	평균	43.714	57.300
	N	21	20
	표준편차	24.7531	21.2482
대학 재학 이상	평균	37.071	52.833
	N	42	42
	표준편차	25.3939	23.5039
합계	평균	43.235	55.526
	N	98	97
	표준편차	22.6801	21.6839

각 통일시계 분야에 대한 탈북주민들의 답변 범위와 편차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점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각 시계별 시간에 대한 적절한 분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주민들은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에 2시 45분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도 2시 57분으로 매우 낮다. 이에 반해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은 6시 11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전 조사 분야 중 유일하게 6시를 넘기고 있다.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도 전문가 패널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탈북주민들은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전문가 패널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김정일 후계체제(문1)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북한을 극단적인 전체주의독재체제(문2)로 평가하였다. 북핵문제(문29)에 대해서도 북한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 답변이 가장 많았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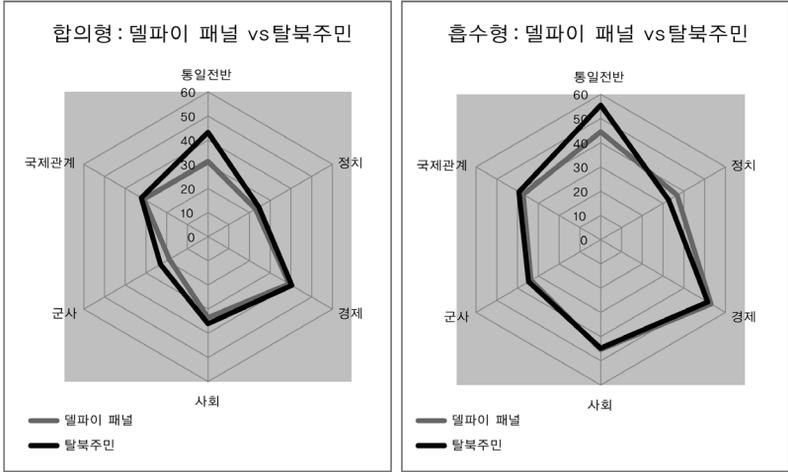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의 각 분야별 통일시계



남한의 통일역량과 통일인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남한의 경제역량(문9)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독특한 답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문항의 답변이 매우 넓은 범위를 가졌던 것에 반해 북한의 경제위기(문11)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극단 값 1점과 2점에 집중되는 답변을 하였다. 북한의 경제체제(문12)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문20)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산적인 답변분포를 보였다. 이는 탈북시점과 개인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VI-2 델파이 패널과 탈북주민의 통일시계 비교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문22)에 대한 답변도 매우 독특하게 나타났다. 다른 집단의 경우 쌍봉형 분포로 이산되지만 평균값은 모두 5점 이하인데 반해, 탈북자의 경우 평균 6으로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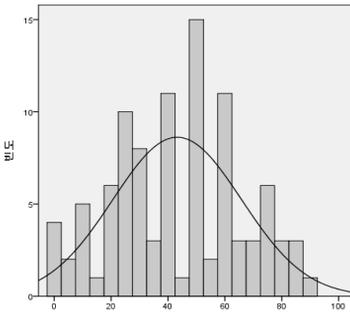
1. 통일예측시계: 탈북주민

가. 합의형 통일시계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합의형 통일
5시 11분
패널 +1시간 26분



N	유효 결측	99 1
평균		42.235
중위수		40
최빈값		50
표준편차		22.680
왜도		.019
첨도		-.776
최솟값		0
최댓값		90

탈북주민 역시 합의형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시계는 5시 11분이다. 이는 100점 척도에 따른 평균값 42.24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6시에 해당하는 50점이었으며, 12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40점과 60점에 각각 11명이 응답하였다. 히스토그램에 나타나듯이, 탈북주민은 중위수 40점을 기준으로 좌우 동형의 정규분포에 가까운 답변을 하였다. 또한 답변 범위는 최솟값 0에서 최댓값 90으로 대단히 넓은 편이며, 표준편차 역시 22.680으로 상당히 높다.

탈북주민의 합의형 통일시간은 위에서 살펴본 전문가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의 조사결과와는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합의형 통일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조사된 국민여론의 경우 4시 47분이었으며, 가장 통일이 멀어졌다고 판단했던 전문가 패널의 경우 3시 45분이었다. 이들 집단과의 시간차이는 각각 24분, 1시간 26분이다. 특기할 점은 탈북주민의 경우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과의 시간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하위분야의 통일시계의 경우는 다른 집단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흡수형 통일시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분야별 합의형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 분야
2시 57분	4시 51분	4시 20분	2시 45분	3시 52분
패널 +12분	패널 +9분	패널 +19분	패널 +31분	패널 +8분

5개 하위분야에 대한 합의시계는 다른 집단의 시간분포와 비율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즉, 탈북자들 역시 정치분야와 군사분야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 높은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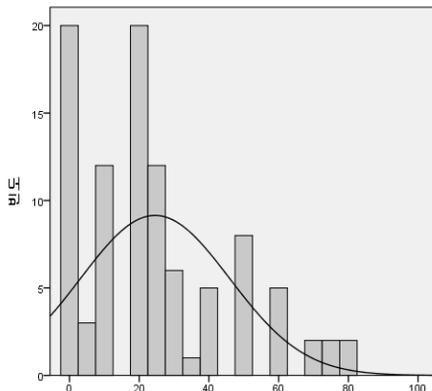
정치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2시 57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점 척도의 평균 24.55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표준편차는 21.368로 높은 편이며, 답변범위는 0점에서 80점 사이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표 VI-2 탈북주민 합의형 통일시계 통계량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분야
N	유효	98	98	99	97	96
	결측	1	1	0	2	3
	평균	24.551	40.388	36.091	22.969	32.219
	중위수	20.000	37.500	30.000	20.000	28.000
	최빈값	20.0	30.0	20.0	.0	10.0
	표준편차	21.3682	24.0466	25.0449	23.1667	26.1063
	왜도	.878	.327	.440	1.021	.529
	첨도	.061	-.892	-.840	.264	-.978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80.0	95.0	100.0	85.0	90.0
전문가패널과의 시간차		+12분	+9분	+19분	+31분	+8분

유효숫자 98명 중 44명이 10~25점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응답의 44.4%에 달하는 숫자이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와 유사하게 극단 값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정치분야의 경우 23명이 5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답변은 0점과 20점을 중심으로 몰려있으며, 나머지 점수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이다. 매우 부정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25점 이하의 응답은 총 67명(6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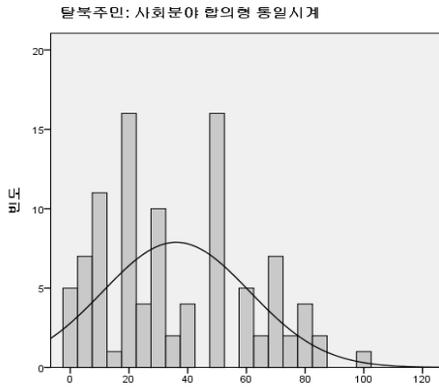
탈북주민: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탈북주민의 정치분야에 대한 통일시간 2시 57분은 전문가 패널의 2시 45분에 비해 통일에 대해 8분 더 가깝게 나타났다. 종합적인 통일시계의 경우 양자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차가 별로 없는 편이다.

경제분야의 통일시계는 4시 51분으로 나타났다. 100점 척도의 평균 40.39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응답범위는 0~95점으로 대단히 넓으며, 25~50점(다소 부정적) 사이에 47명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답변은 중위수 37.50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분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편차도 24.04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의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42분이었는데, 이에 비해 탈북주민은 9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시 양자 간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편이다.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20분으로 조사되었다. 100점 척도에서 평균은 36.09이며, 표준편차는 25.045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답변은 20점과 50점에 각각 16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최빈치를 중심으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언급은 총 71명이 하였다. 탈북자들의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전문가패널의 4시 1분에 비해 19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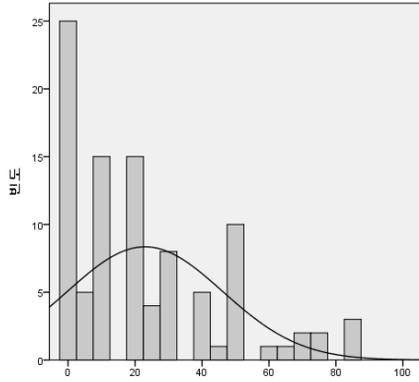


군사분야는 2시 45분으로 합의형 통일시계 중 가장 통일에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답변 평균은 22.97이며, 답변 범위는 0~85로 대단히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넓은 편이다.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수의 탈북주민들이 극단 값을 선택하고 있다. 총 24명이 0점을 부여하였으며, 10점 이하는 45명이나 된다. 반면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은 10명이 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간은 2시 14분으

탈북주민: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로 탈북주민은 이에 비해 31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에 대해서는 탈북주민의 시각이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값은 32.219로 이를 시계로 환산하면 3시 52분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10점으로 19명이 답변하고 있으나 30점에 13명, 70점에 11명이 답변함으로써 탈북 주민 간 의견차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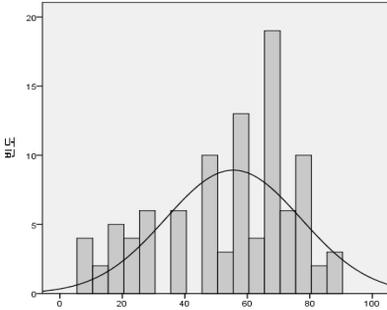
50점 이하로 응답한 수는 73명(76%)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무시 못할 숫자가 70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탈북주민은 이 분야 전문가 패널의 통일시계보다 8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흡수형 통일시계

○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



탈북주민
6시 40분
패널 +1시간 20분



N	유효 결측	97 2
평균		55.526
중위수		60
최빈값		70
표준편차		21.634
왜도		-.608
첨도		-.695
최솟값		8
최댓값		90

합의형 통일시계와 유사하게, 종합점수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에 대한 탈북주민의 응답은 전문가 패널에 비해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은 흡수형 통일이 6시 40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간은 다른 모든 비교집단이 6시(중간점) 이전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결과이다. 전문가 패널의 흡수형 통일시계 5시 20분과는 1시간 20분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차이는 통일시계 설문구조상 흡수형 통일에 대한 시간적 원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흡수형 통일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탈북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래에서 살펴볼 각 분야별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다른 비교집단과 급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균은 55.526이며, 70점에 19명, 60점에 12명이 응답하였다. 답변 범위는 8점에서 90점으로 매우 넓으며, 표준편차 역시 21.63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97명의 응답 중 51점 이상으로 응답한 탈북주민은 60명(61.9%)이었다.

○ 분야별 흡수형통일시계



흡수형 정치	흡수형 경제	흡수형 사회	흡수형 군사	흡수형 국제
3시 56분	6시 11분	5시 22분	4시 10분	4시 43분
패널 -29분	패널 -11분	패널 -4분	패널 +9분	패널 +14분

● 표 VI-3 탈북주민 흡수형 통일시계 통계량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관계분야
N	유효	98	98	97	95	95
	결측	1	1	2	4	4
	평균	32.724	51.469	44.763	34.695	39.347
	중위수	25.000	50.000	50.000	30.000	30.000
	최빈값	20.0	70.0	20.0	10.0	10.0
	표준편차	23.8353	24.8999	26.9613	27.2542	27.7699
	왜도	.733	-.059	.173	.470	.252
	첨도	-.458	-1.134	-1.171	-.899	-1.279
	최솟값	.0	4.0	4.0	.0	.0
	최댓값	100.0	100.0	100.0	100.0	95.0
전문가패널과의 시간차		-29분	-11분	-4분	+9분	+1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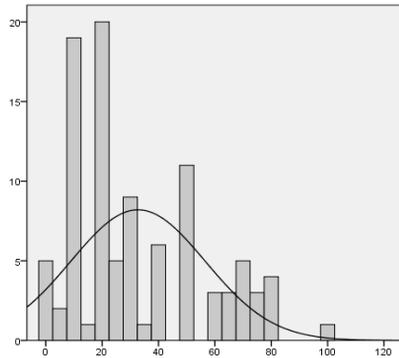
흡수형 통일시계의 각 하위분야 간 상대적 크기는 다른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경우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의 경우 통일에 더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군사분야와 국제관계분야는 오히려 통일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탈북주민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에 비해 답변의 분산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모든 분야가 95~100점 사이에 있다.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3시 56분으로 평가되었다. 평균은 32.724이며, 표준편차는 23.8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탈북주민의 이 분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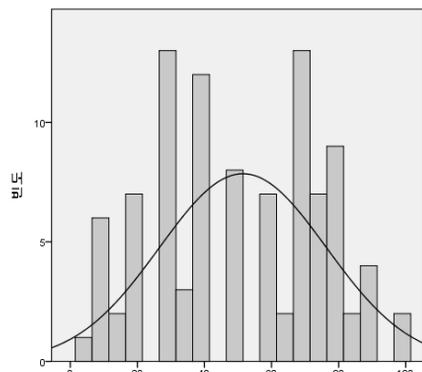
의 동 분야에 대한 4시 25분보다 29분이나 늦춰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낮은 점수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최빈값 20점에는 20명, 10점에는 19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낮은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25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의견은 51명(52%), 50점 이하에 응답한 탈북주민은 총 78명(79.6%)에 달한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은 대부분의 비교집단에서 유일하게 6시 지점을 넘긴 분야이다. 탈북주민 역시 예외가 아니며, 6시 11분으로 계산되었다. 이 시간은 전

탈북주민: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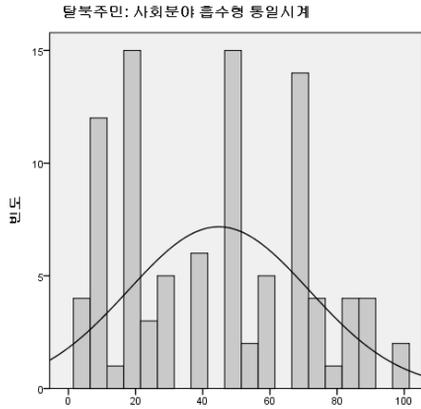
탈북주민: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가 패널의 6시 22분보다 11분 늦춰진 평가이다. 평균은 51.47이며, 표준편차는 24.90으로 매우 큰 편이다. 탈북주민의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가는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이루고 있다. 최빈값은 70점으로 13명이 답변하고 있으나, 30점과 40점에 응답한 경우도 각각 12명씩 된다. 즉, 30~40점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입장과 70점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 입장의 두 집단이 중위수 50의 좌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은 5시 22분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44.763이며, 표준편차는 26.96으로 매우 크다.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에 대한 답변은 매우 이산적인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빈값은 15명이 응답한 20점이지만, 14명이 50점과 70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이 10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형



태의 분포는 탈북주민의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답변의 범위 역시 4~100점으로 매우 넓다. 전문가 패널의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26분으로 탈북주민의 시계평가 12개 중 가장 작은 4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평균 34.70으로 이를 시계로 환산하면 4시 10분이 된다. 표준편차는 27.25로 매우 크며, 범위도 0에서 100까지이다.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의 분포는 0점에 13명, 10점에 15명, 20점에 10명을 고점으로 넓게 퍼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25점 이하의 응답자는 44명으로 46.3%에 해당한다. 전문가 패널은 같은 분야에서 4시 1분으로 평가하였다. 탈북주민의 경우가 9분 더 통일에 가깝다.

국제관계분야 흡수형 통일의 평균은 39.35로 시계 환산 값은 4시 43분이다. 표준편차는 27.77로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크다. 답변범위는 0~95점이며, 최빈값은 10점으로 17명이 답변하였다. 또한 30점과 50점에는 각각 10명이 답했다. 동일 분야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통일시계는 4시 29분이었는데, 탈북주민은 이에 비해 14분이 빠르다고 평가했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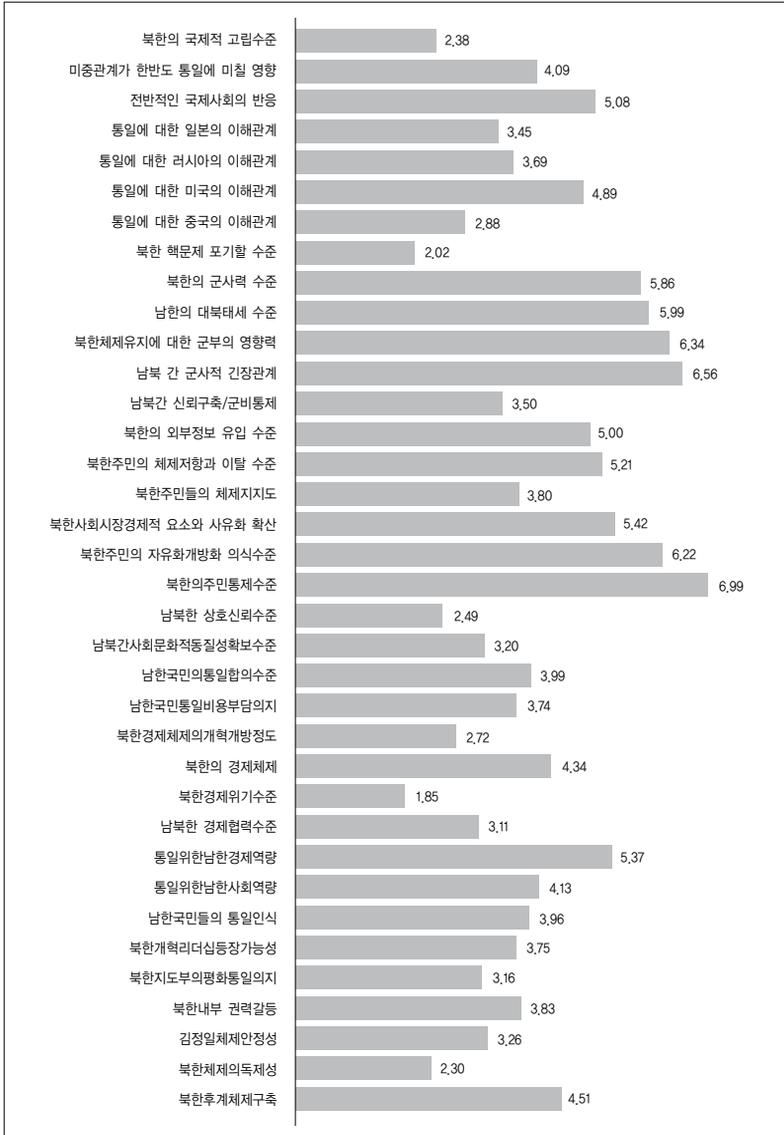
V

VI

VII

2. 통일요인 설문조사: 탈북주민

●그림 VI-3 탈북주민 설문조사(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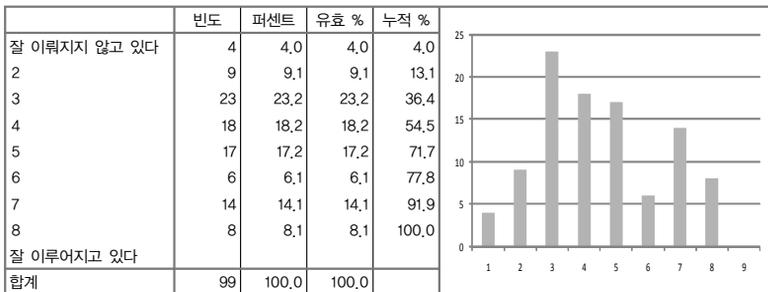


탈북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델파이 패널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문항을 단순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극단치가 나타나거나 전 항목에 고른 답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을 쉽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어려운 용어가 있거나 피설문자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체제를 묻는 문항(Q2)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답변이 두 명 있었는데, 탈북시기가 1년과 6년인 저학력 여성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례수가 증가할수록 극단치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북한 정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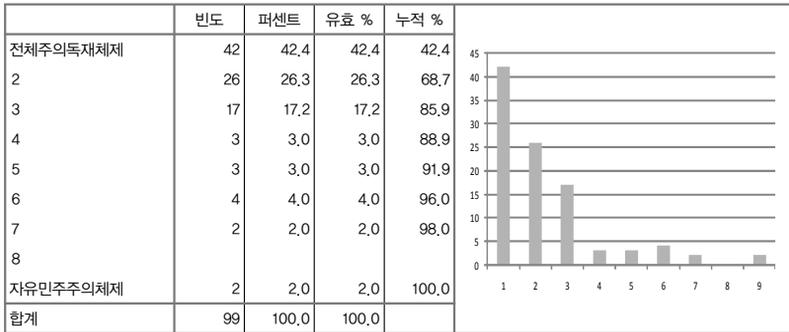
탈북주민은 대체로 델파이 패널에 비해 북한 정치분야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였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Q1),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Q3), 북한 내부의 권력 갈등(Q4),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Q6) 등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델파이 패널보다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탈북주민은 북한 후계체제 구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평균은 4.51이며, 표준편차는 1.929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부정적’(3점)이었으며, 23명이 응답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99명 중 54명인 54.5%이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28명(28.3%)이다. 킬파이 패널이 평균 5.8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다소 실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답변은 1점에서 8점까지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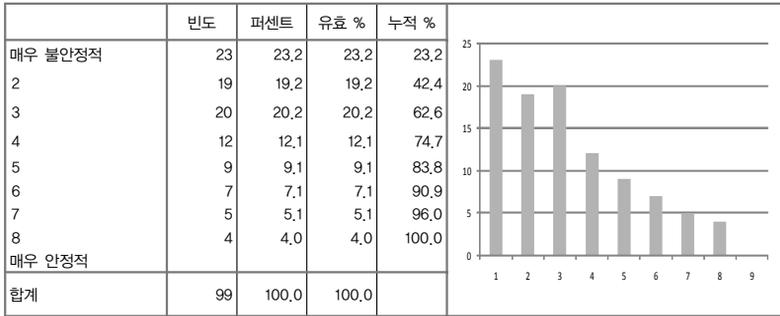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극단값 1점에 대한 응답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점 사이로 응답한 탈북주민은 85명(85.9%)에 이른다. 평균은 2.30이며, 표준편차는 1.752로 계산되었다. 답변의 집중성에 따라 첨도 역시 3.870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답한 두 명은 탈북한지 각각 1년과 6년에 이르는 61세와 42세의 여성이다. 이들은 대학재학 이상 및 중학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응답 역시 탈북주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계적 처리는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탈북주민들은 통일요인을 묻는 설문문항 대부분에 대해 8 또는 9의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뚜렷한 응답집중성이 예상되는 현 북한체제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탈북주민에 대한 설문의 해석은 국민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중심되는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한 두 명의 극단 값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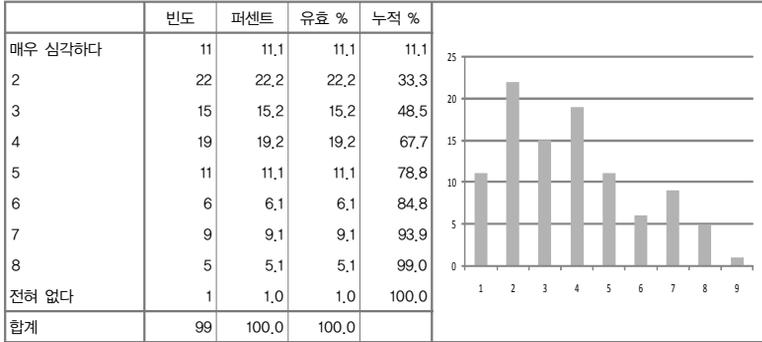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패널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북주민은 1점에 가장 많은 23명이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에 74명이 군집하고 있다. 평균은 3.26, 표준편차는 2.01이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4.43과 1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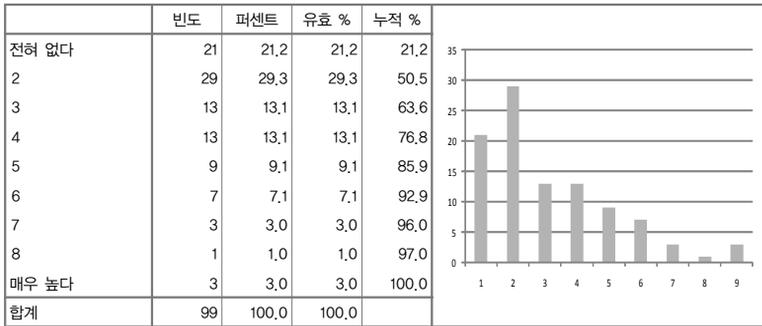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은 전문가 패널의 경우 뚜렷한 이산성을 보인 문항이다. 이에 반해 탈북주민의 경우 대체로 ‘불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극단값 1점에도 11명이 응답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7명이며, 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다. 권력갈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6점 이상에 대한 응답은 2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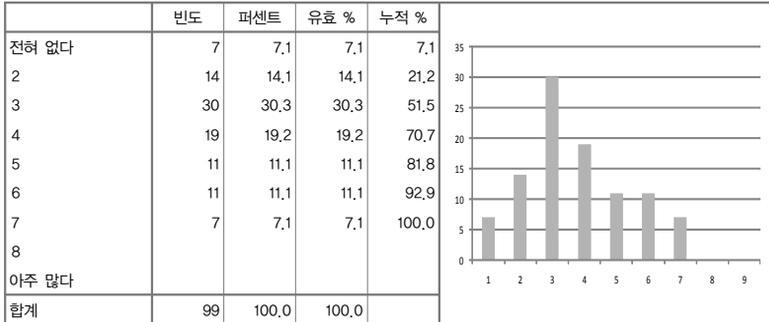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다. 최빈값은 2점으로 29명이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의 응답은 76명이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평균은 2.29로 평화통일 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6점 이상의 응답도 13명에 달한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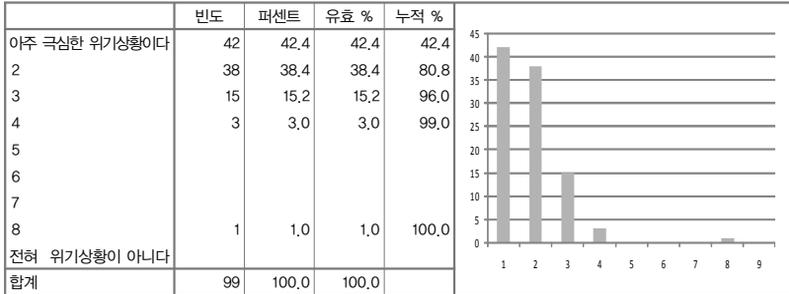
개혁리더십의 등장에 대한 평가는 평균 3.75, 표준편차 1.631로 3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4점 이하의 응답은 70명이 하였으며, 부정적 응답이 지배적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평균 4.29로 나타났으며, 이는 탈북주민들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북한 경제분야

경제분야 중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눈에 띈다. 탈북주민은 북한 경제위기를 극심한 위기상황(문11)으로 평가하였으며 극단치인 1점과 2점에 가장 많은 답변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문12)와 시장경제적 요소(문20)에 대한 질문도 특정 답변에 집중되는 경향이 없이 고른 답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의 경험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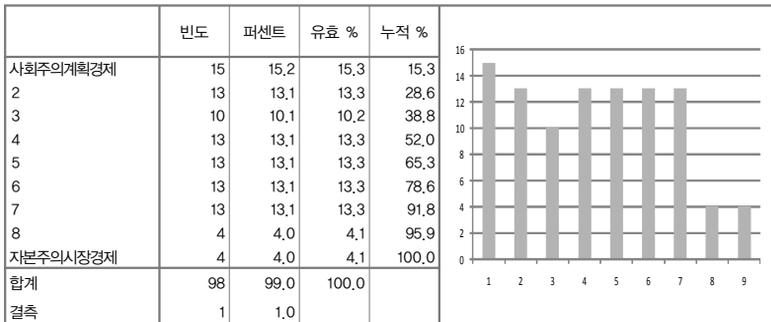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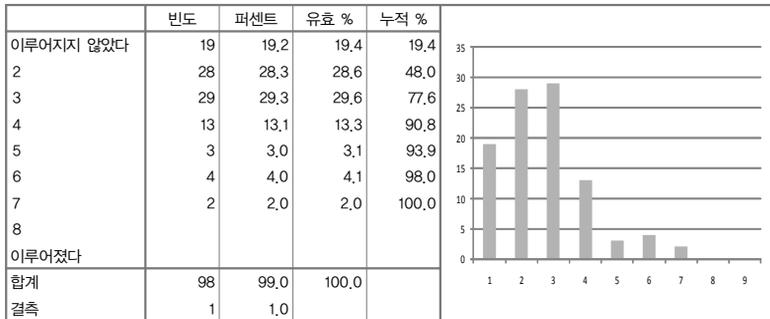
탈북주민의 설문문항 중 예외적으로 중심 집중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문항이다. 98명(99%)의 탈북주민이 4점 이하의 답변을 하여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단치인 1점에 가장 많은 42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80명이 1점과 2점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대부분의 답변이 8 또는 9의 범위에 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경향으로, 탈북 당시 북한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은 1.85이며, 표준편차는 1.02로 낮다. 또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척도인 12.154를 기록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평균은 2.76으로 낮은 편이지만, 탈북주민들의 경우 이보다 더 부정적이다.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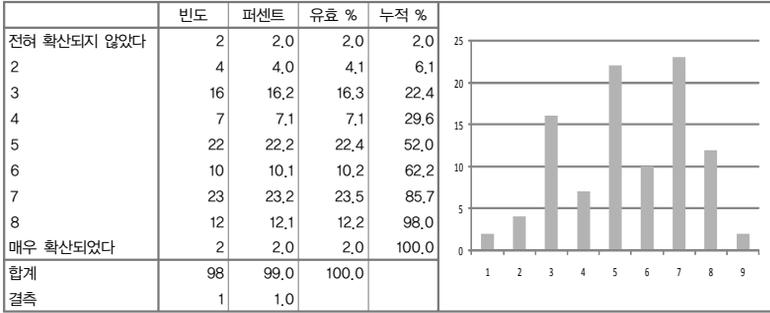
현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들은 계획경제-시장경제의 축선 상에서 뚜렷한 중심 집중도 없이 1점에서 7점에 대해 고른 답변을 하였다. 극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1점)에 가장 많은 15명이 답변하였으나 다른 답변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평균은 4.34(표준편차 2.342)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설문결과로만 볼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탈북 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에 따라 일부는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일부는 느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일부는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을 경험한 경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탈북 주민 중 90명이 4점 이하의 응답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2.72이며, 표준편차는 1.398이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2.280과 거의 같은 답변분포를 보이고 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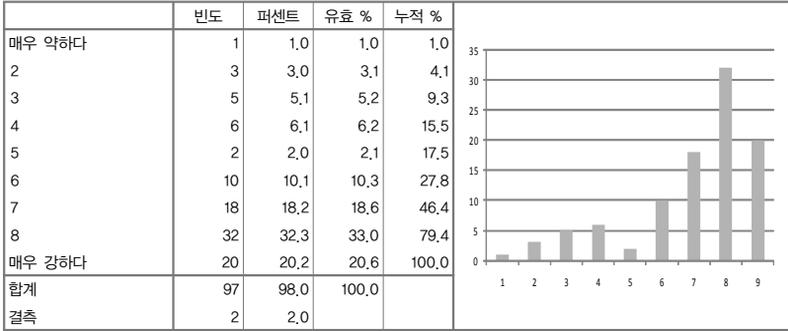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답변도 평균 5.42(표준편차 1.937)로 비교적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답변은 ‘확산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45명으로 부정적 응답의 29명보다 많았으며, 중간치에는 22명이 몰려있다. 위 도표를 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확산에 경도되고 있으나 다소 이산적인 답변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답변평균은 4.84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한 패널의 숫자는 다소 많았다. 탈북주민의 경우 긍정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북한 사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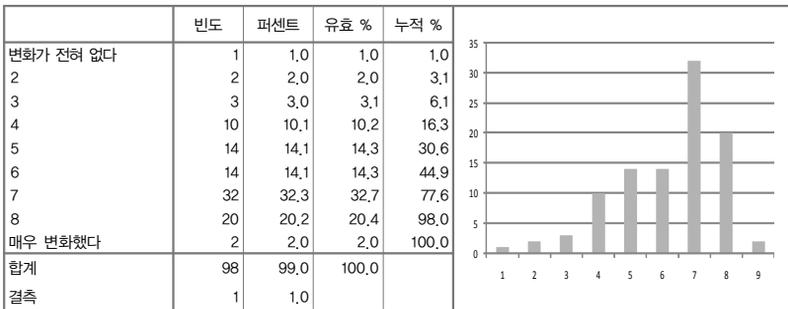
이 분야 역시 독특한 답변 분포가 나타났다. 주민 통제(문18)에 대해서는 델파이 패널과 유사하게 6점 이상의 ‘높다’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문19)과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문22)의 경우 델파이 패널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체제지지도(문21)는 더 낮게 평가하였다.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다’(8점)에 32명이 답변하였으며, 극단 값(9점)에도 20명이 있다. 답변은 1점에서 9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으나 6점 이상의 답변이 80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평균은 6.99이며 표준편차는 1.976이다.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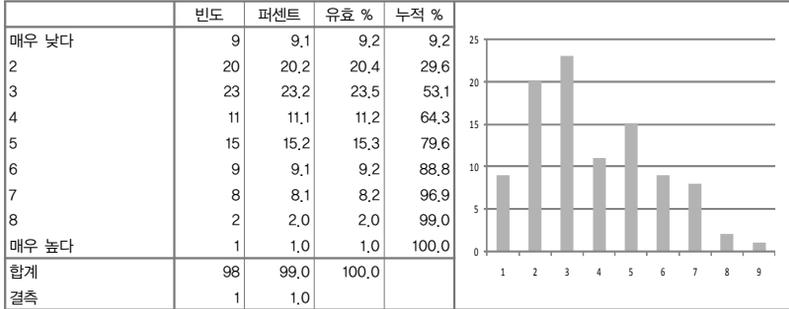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대한 답변은 탈북집단 주민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7점으로 32명이 답변했으며, 6점 이상에 66명이 집중되었다. 반면 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의견은 16명에 불과하다. 평균은 6.22이며, 표준편차는 1.647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답변은 전문가 패널과 상당히 대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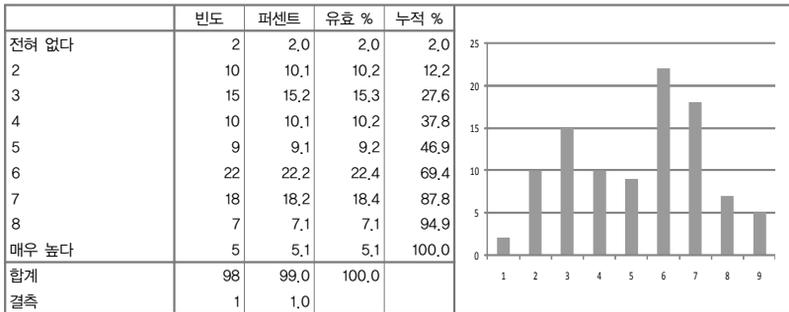
비된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답변이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으며 평균 4.65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았다.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들의 체제지지도는 ‘낮다’는 평가가 64명으로 다수이지만 6점 이상의 응답도 20명에 달하고 있다. 평균은 3.80, 표준편차는 1.926이다. 응답은 1점에서 9점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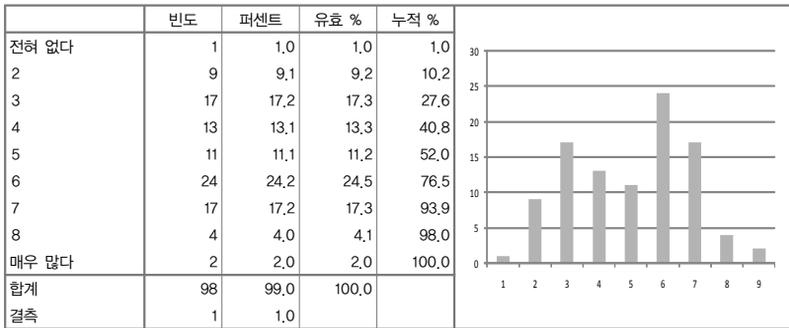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은 체제지지도를 묻는 문21과 대칭적 구도를 가진 문항이다(즉, 역관계).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변은 전혀 대칭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주민들

은 3점과 6점을 중심으로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으며, 이는 체제저항과 이탈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점 이하에 응답한 탈북주민은 37명이며, 6점 이상은 52명이다. 평균값 6.00 역시 체제저항과 이탈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음을 표시한다. 표준편차는 2.09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탈북주민의 응답결과는 통상적인 이 문항에 대한 답변과는 대조되며, 전문가 패널의 응답평균 3.98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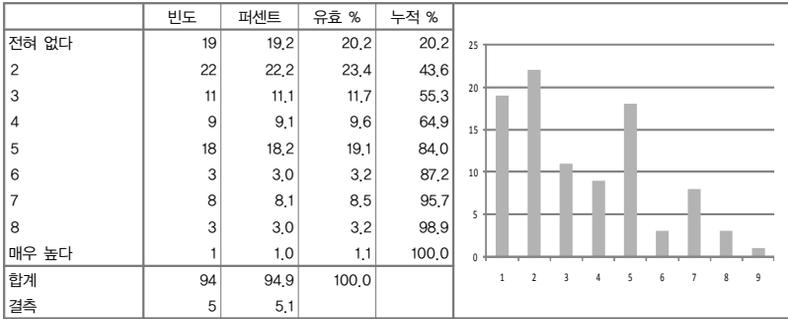
외부정보의 유입에 대한 응답도 5점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다. 탈북주민은 4점 이하에 40명이 답변하였으며, 6점 이상에 47명이 답했다. 답변은 3점과 6점을 중심으로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평균은 5.00이며, 표준편차는 1.867이다. 이 문항의 경우 전문가 패널의 결과(평균 4.94)와 유사하다.

다. 북한 군사분야

군사분야에 대해 탈북주민은 넓은 범위에서 답변이 나왔으나 대체로 델파이 패널과 동일한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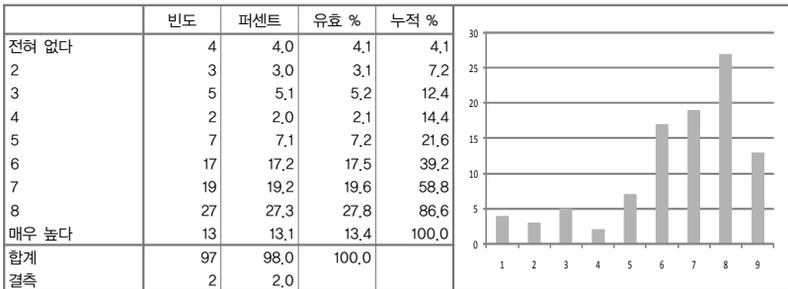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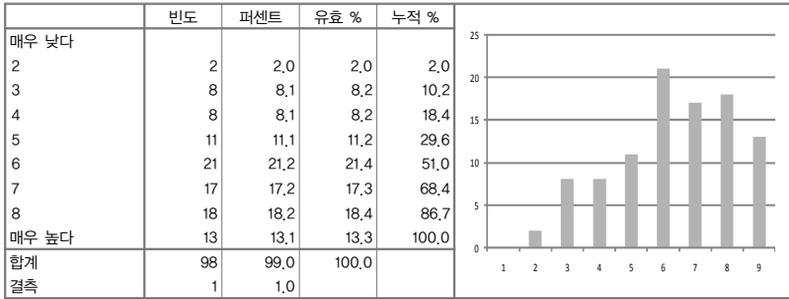
남북 간 군사적 신뢰에 대해서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응답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에 집중되고 있다. 64명이 4점 이하에 응답하였으며, 6점 이상은 15명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22명이 응답한 2점이며, 1점에는 19명, 중간점인 5점에는 18명이 답변하였다. 평균은 3.50이며, 표준편차는 2.129로 높게 나왔다. 본 문항의 경우 전문가 패널은 평균 1.72(표준편차 0.607)를 기록해 예외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던 항목이다.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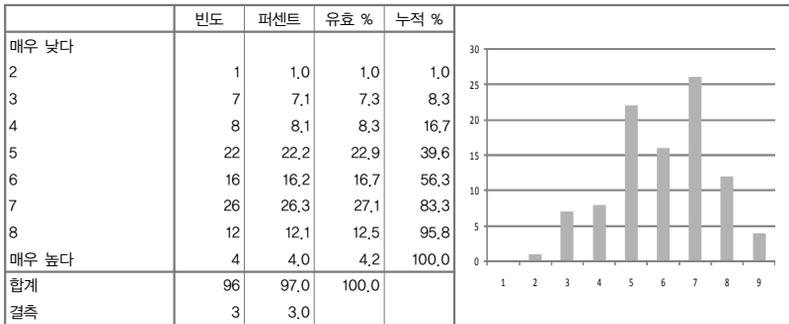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높다’는 답변(6점 이상)이 7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8점으로 27명이 해당한다. 평균은 6.56이며, 표준편차는 2.096이다.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군부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다’는 답변이 나왔다. 6점 이상에 답변한 응답자는 69명이며, 최빈값은 21명이 응답한 6점이다. 평균은 6.34, 표준편차는 1.877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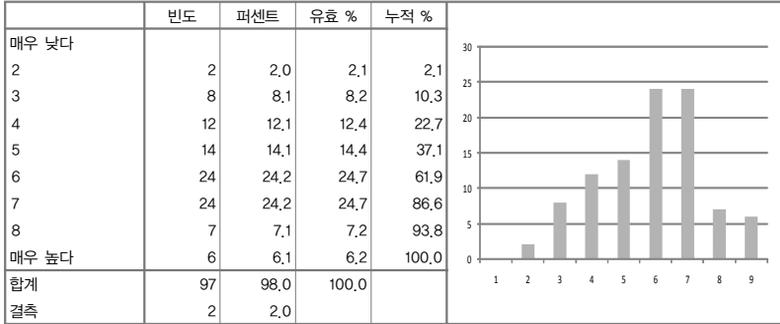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북주민은 남한의 군사력 수준을 대체로 높게 평가하였다. 58명이 6점 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며, 최빈값은 7점이다. 평균은 5.99이며, 표준편차는 1.59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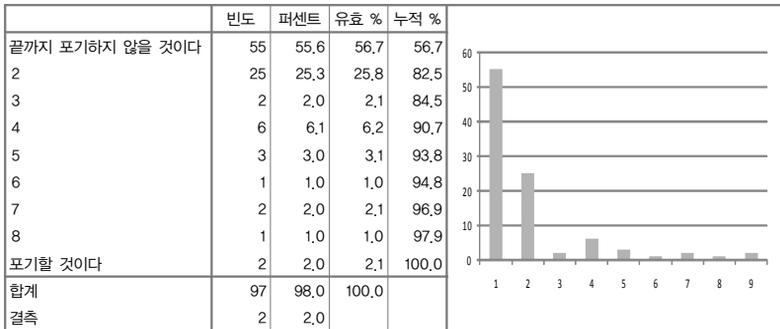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되었다. 61명의 응답자가 군사력 수준이 ‘높다’고 답변하였으며, 6점과 7점에 각각 24명씩 응답하였다. 평균은 5.86이며, 표준편차는 1.677이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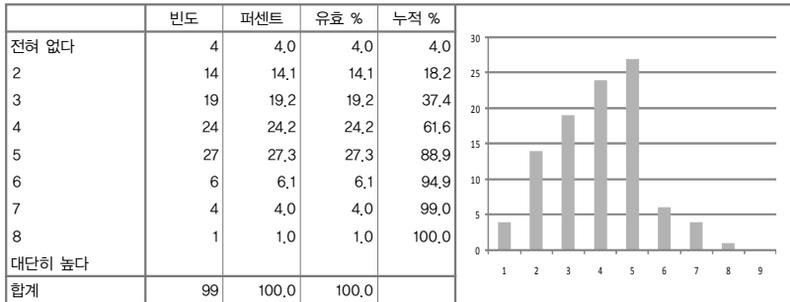
북핵에 대해서는 극단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절대 포기 안 할 것’(1점)에 55명이, 2점에 25명이 답변하였으며, 88명이 4점 이하에 응답하였다. 평균은 2.02이며, 표준편차는 1.791이다. 1~2점에 답변이 집중됨에도 표준편차가 큰 이유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소수답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첨도는 답변의 집중도를 반영하여 5.410을 기록

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평균은 2.76으로 탈북주민보다 높지만, 도표의 형태는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그리고 있다.

마. 남한의 역량 및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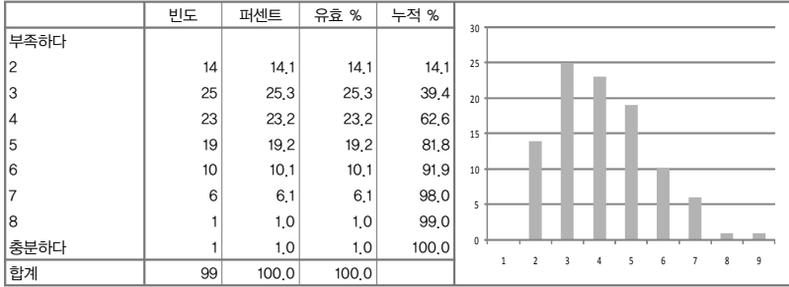
남한 국민들의 통일역량 중 통일인식(문7), 사회적 역량(문8), 통일비용 부담의지(문14),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문15)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역량(문9)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남북관계에 대한 문10, 문16, 문17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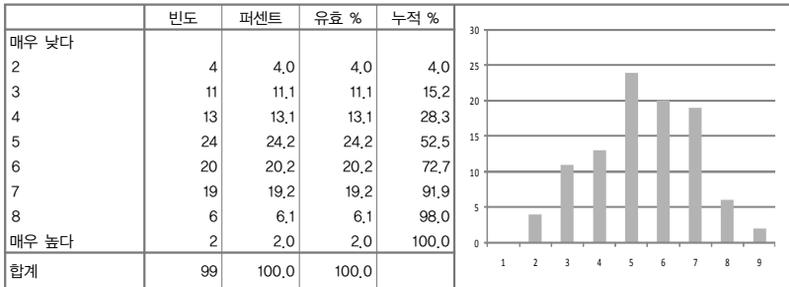
탈북주민들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균은 3.96이며, 표준편차는 1.477로 계산되었다. 99명 중 4점 이하의 응답은 61명이며, 중립적 응답(5점)은 27명이다. 5점에 응답이 집중됨으로 인해 평균값이 다소 높아졌다.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통일역량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답변 평균은 4.1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543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3점이며, 25명이 답변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에 62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18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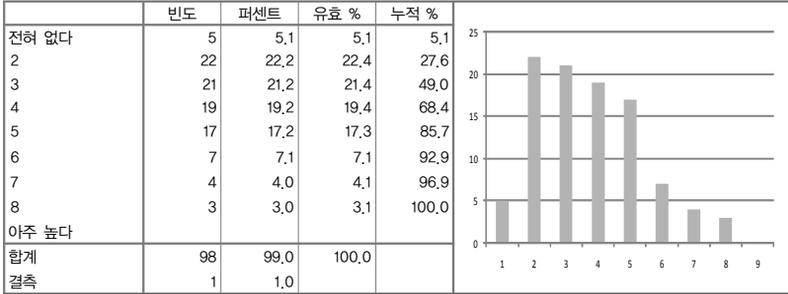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북주민들은 남한의 경제적 통일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중간점인 5점이며 24명이 해당된다.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47명이며, 4점 이하는 28명이다. 평균은 5.37, 표준편차는 1.261로 나타났다. 문7에서 문10과 문13, 문14, 문15는 남한의 통일대비 역량과 의지를 묻는 질문들이다. 탈북주민들은 이 중 경제적 역량에 대해서만 중간점 5점 이상의 답변을 하였다. 한편, 전문가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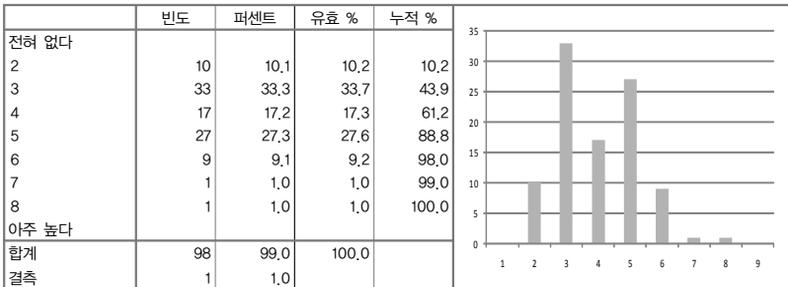
의 경우 남한의 경제적 역량에 대해 뚜렷한 의견대립을 보였으며, 평균은 4.92였다.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통일역량과 의지에 대한 질문군은 앞서 문9의 남한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문항 역시 4점 이하에 68명이 응답함으로써 상당수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은 3.74, 표준편차는 1.689이다. 이 문항 역시 문13과 같이 전문가 패널의 응답분포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은 3.7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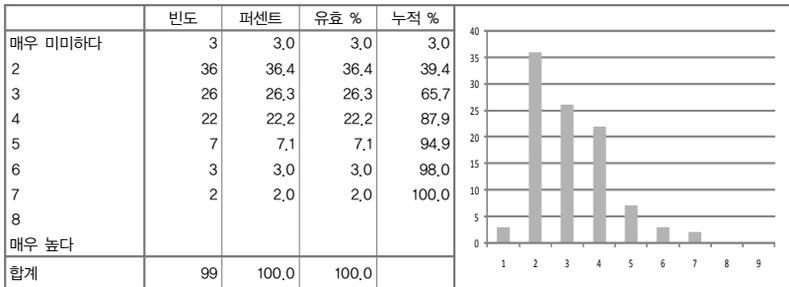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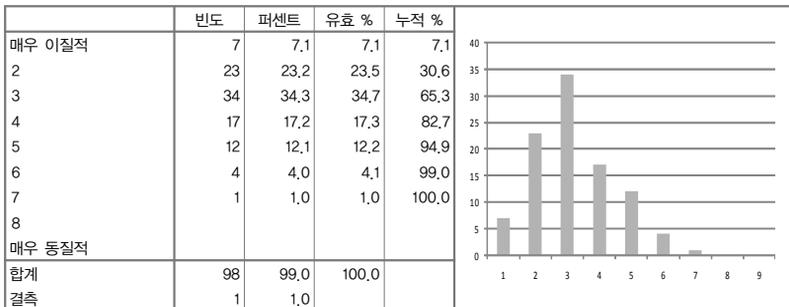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는 위 문14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점에서 4점까지의 답변이 61명에 달하고 있으며, 중간점(5점)으로 응답한 경우도 27명이나 된다. 평균은 3.99이며, 표준편차는 1.28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패널의 동일 문항에 대한 평균 3.96과 거의 같다.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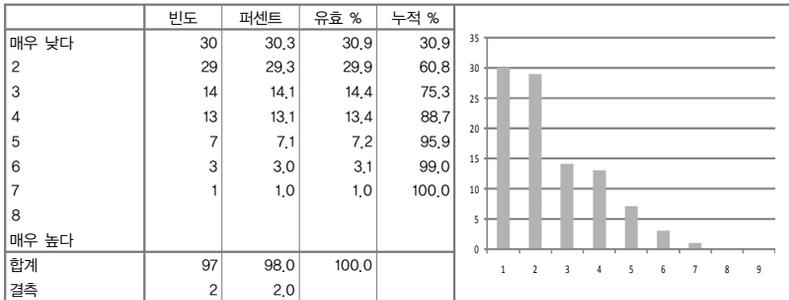
현 남북경협의 수준에 대해 36명이 ‘매우 부정적’(2점)으로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의 의견이 87명으로 압도적이다. 평균은 3.11이며, 표준편차는 1.261로 나타났다.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3점에 가장 많은 34명이 응답하였다. 최빈값을 중심으로 좌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3.20(표준편차 1.30)으로 계산되었다. 82명이 1점과 4점 사이로 답변하여 탈북주민은 ‘남북 간 이질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 역시 전문가 패널(평균 3.33)의 견해와 유사하다.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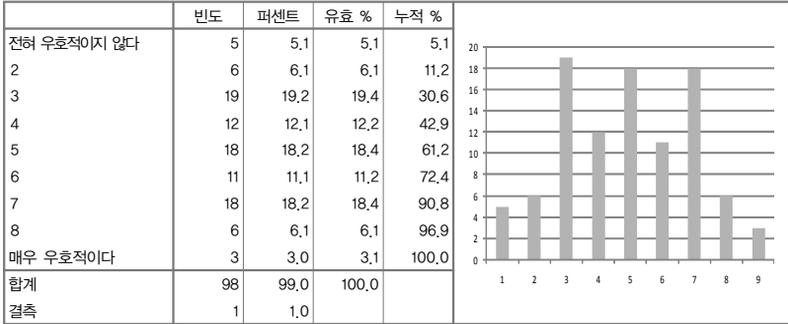
당국 간 신뢰수준에 대한 답변은 극단 값 1점에 가장 많은 30명이 몰렸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은 88명이며, 평균 2.49(표준편차 1.473)로 계산되었다. 극단 값 답변을 반영하여 평균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바. 국제관계분야

탈북주민은 주변 4개 국가 모두가 통일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 찬반의 숫자가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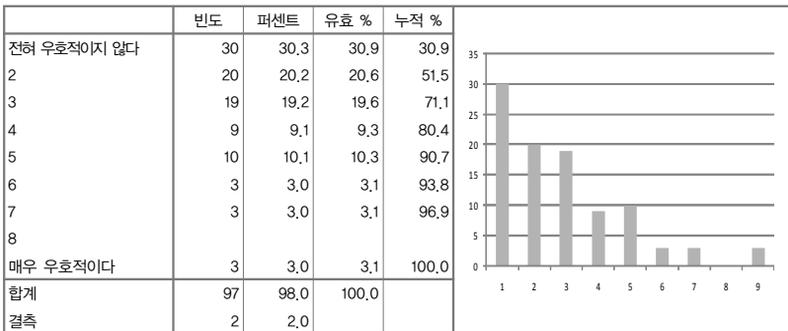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평균 4.89, 표준편차는 2.045로 계산되었다. 평균값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나 평균만으로 답변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답변은 3점과 7점을 기준으로 쌍봉형 형태를 띠면서 중간점 5점이 중심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42명, 중간점은 18명, 긍정적인 답변은 38명이다. 즉, 탈북주민은 미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2개 집단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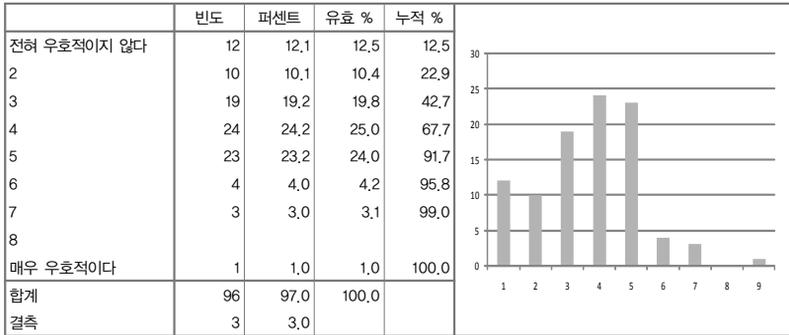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북주민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장 많은 30명이 극단치 1점에 응답을 하였다. 4점 이하에 78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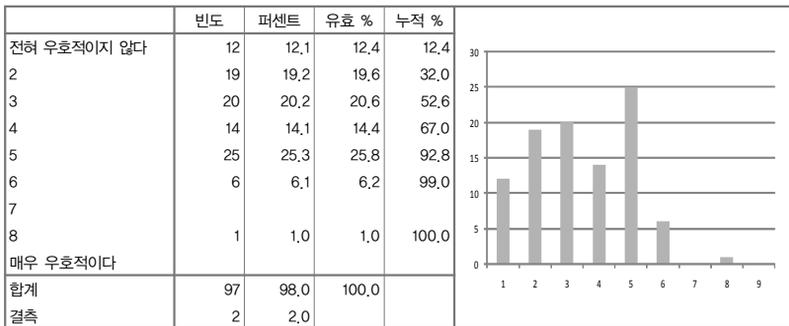
답변하였으며, 10명이 중간점(5점)을 선택하였다. 평균은 2.88이며, 표준편차는 1.965이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4점으로 24명이 해당되며 1점에서 5점까지 답변이 집중되었다. 평균은 3.69, 표준편차는 1.618로 나타났다.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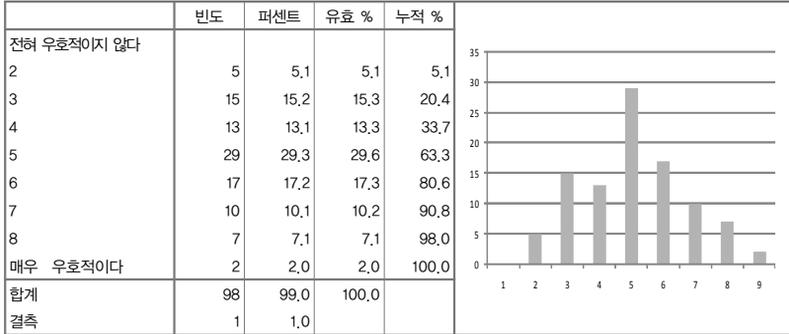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대부분의 패널리스트가 1점에서 5점 사이로 답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5점이다. 평균은 3.45, 표준편차는 1.581로 나타났다. 탈북주민의 경우 일본보다 러시아가 통일과 관련 미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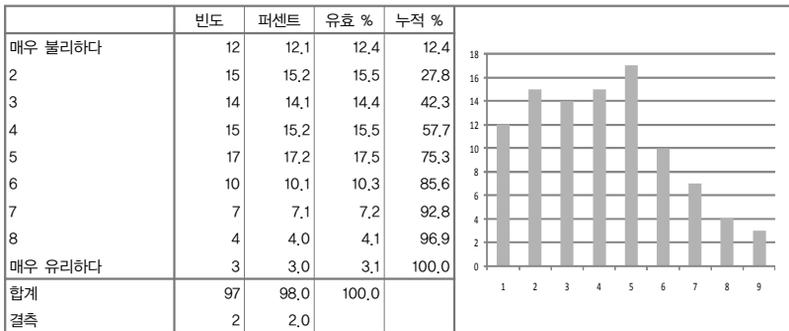
세하게 더욱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러시아보다 일본이 통일에 대해 미세하나마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탈북주민의 답변결과는 이와 반대이다.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반응은 중간점 5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평균 역시 5.08로 5점에 가까우며, 표준편차는 1.66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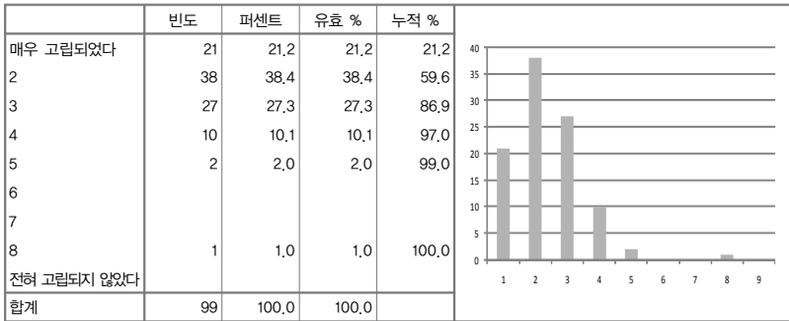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중관계가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4점 이하의 답변이 57명의

로 다수이며, 6점 이상의 응답은 24명이다. 최빈값은 중간점인 5점으로 17명이 응답하였다. 평균 4.09, 표준편차 2.141로 나왔다. 현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1점부터 5점까지 고르게 빈도가 나타났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대해서는 ‘고립되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4점 이하의 응답이 96명으로 압도적이며, 최빈값은 2점이다. 평균은 2.38이며, 표준편차는 1.140이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3. 2010년 탈북주민 설문조사 요약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12개 분야 통일예측시계의 상대적 시간은 다른 비교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탈북주민 역시 합의형 통일보다 흡수형 통일이 더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군사부문보다는 경제·사회 분야가 더 통일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개별 5개 분야에 대한 통일시계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는데 비해 통일전반을 묻는 두 개의 통일시계의 경우 유독 평가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시간으로 평가한 전문가 패널과 비교할 경우, 합의형 통일시계는 1시간 26분, 흡수형 통일은 1시간 20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VI-4 학력과 통일시계 간의 평균비교

북한에서의 학력		합의형 통일시계(종합)	흡수형 통일시계(종합)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평균	50.343	57.743
	N	35	35
	표준편차	15.1792	19.8307
전문학교 중퇴 또는 졸업	평균	43.714	57.300
	N	21	20
	표준편차	24.7531	21.2482
대학 재학 이상	평균	37.071	52.833
	N	42	42
	표준편차	25.3939	23.5039
합계	평균	43.235	55.526
	N	98	97
	표준편차	22.6801	21.6839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용한 설문자 특성 문항군을 통해 평균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학력과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흡수형 통일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통일시간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합의형 통일에 대해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평균 37점을 부과하였으나,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의 경우 50.3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중학교 중퇴·졸업자와 전문학교 중퇴·졸업자가 대학 재학 이상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모든 학력에서 전문가 패널보다 높은 점수를 부과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전문가 패널과 큰 격차를 갖게한 원인 중 하나는 응답자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차이도 종합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시간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³

각 통일시계 분야에 대한 탈북주민들의 답변 범위와 편차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점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각 시계별 시간에 대한 적절한 분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주민들은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에 2시 45분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도 2시 57분으로 매우 낮다. 이에 반해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은 6시 11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전 조사 분야 중 유일하게 6시를 넘기고 있다.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도 전문가 패널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탈북주민들은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

¹³ 흡수형 통일시계(종합)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5점 가량 높게 평가했다. 6.5점은 47분에 해당한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여성이 평균 15분 가량 높게 평가했다.

를테면, 전문가 패널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김정일 후계체제(문1)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북한을 극단적인 전체주의독재체제(문2)로 평가하였다. 북핵문제(문29)에 대해서도 북한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남한의 통일역량과 통일인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남한의 경제역량(문9)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독특한 답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문항의 답변이 매우 넓은 범위를 가졌던 것에 반해 북한의 경제위기(문11)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극단 값 1점과 2점에 집중되는 답변을 하였다. 북한의 경제체제(문12)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문20)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산적인 답변분포를 보였다. 이는 탈북시점과 개인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문22)에 대한 답변은 탈북주민의 조사결과가 매우 독특하게 나타났다. 다른 집단의 경우 쌍봉형 분포로 이산되지만 평균값은 모두 5점 이하인데 반해, 탈북자의 경우 평균 6으로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VII. 요약 및 결론

2010년 델파이 조사는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권력승계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는 등 복잡하고 다소 긴장된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는 델파이 조사 자체의 지수도출 완성뿐만 아니라 각 비교집단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측정·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

새로 시행한 비교집단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연구에 1개 집단 또는 2개 집단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던 대상이다. 특히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에 대한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조사는 희소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즉, 사례수와 집단 확장을 통해 집단 간 통일요인과 통일시계 간 관계도출 및 인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 일반국민 및 기타 관심집단의 통일시각과 설문결과를 통해 유용한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5개 집단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09년부터 조사에 참여해 온 델파이 패널의 인식과 여타 집단과의 차이이다. 델파이 패널은 장기간 북한·통일·안보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2009년 조사과정을 통해 패널 간 통일시계 및 통일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바 있는 상대적으로 균일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새로 포함된 집단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우선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델파이 패널 구성을 위해 표집되었던 동일한 목록에서 선정된 구성원이다. 그러나 비교적 전공과 관심분야가 다양한 편이다. 대북사업자의 경우 매우 희소한 사례연구이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남북교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탈북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의 경험이 공존하는 사례로 채택되었다. 이들에 대한 통일관련 설문조사

I
II
III
IV
V
VI
VII

역시 희소한 사례로 연구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 여론조사
의 경우 델파이 패널과 일반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살펴보기 위
하여 시행하였다. 단지 전화여론조사의 한계로 인해 전 설문문항을 측
정할 수 없어 축약된 문항에 대해 조사되었다.

끝으로 2010년 조사과정에서 경제분야와 일부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
의 통일시계 각 분야가 중간점인 6시 이전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 집단
에 따라 시간의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집단
이 현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표출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5개 집단에 대한 통일시계와 통일이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합의형 통일시계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
3시 45분	4시 7분	5시 16분	4시 47분	5시 11분
0분	+22분	+1시간 31분	+1시간 2분	+1시간 26분

합의형 통일에 대해 델파이 패널은 2009년 조사보다 34분 늦춰진 3시
45분으로 평가하였다. 즉, 2009년 10월 시점보다 2010년 8월 시점이 합
의형 통일에 대해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시계의 설계상 3시
45분은 합의형 통일 가능성에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 명부에서 선정된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4시 7분으로 합의형 통일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시간 역시 텔파이 패널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합의통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간이다. 텔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와의 집단비교를 위해 간략한 t-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 결과 두 집단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구별되지 않는 집단으로 평가되었다.¹⁴

대북사업자의 경우 대단히 예외적인 시간이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집단이 시간의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로 흡수형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북사업자의 경우 합의형 통일시간이 흡수형 통일시간보다 빠르다고 답변하였다. 즉 합의형 통일시계는 5시 16분,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5분으로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보다 합의형 통일 가능성이 11분만큼 빠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시간은 대북사업자의 환경이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단히 민감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평가가 아닌 기뻐움을 평가한 피설문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대북사업자 역시 텔파이 패널과의 집단차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별개의 집단임이 판별되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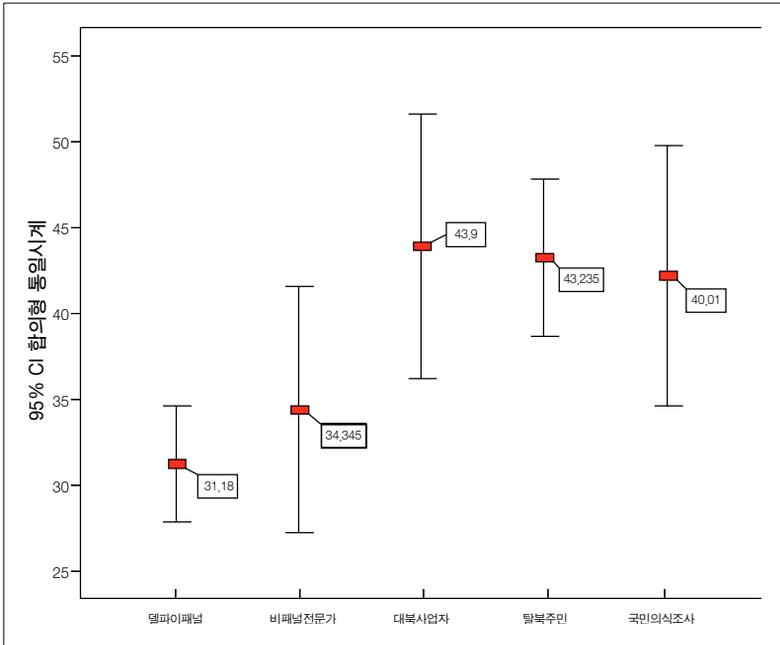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통일시간은 4시 47분으로 텔파이 패널보다 1시간 빠른 편이다. 통일시계에서 1시간의 차이는 10점 척도에서 한 칸의 크기보다 조금 작다. 예를 들면, ‘약간 부정적’과 ‘부정적’의 차이 정도이며, 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여론조사의 통일시간이 텔파이 패널보다 빠른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며 북한관련 정보에

14.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_{값} = -0.813$, $p = .421$ 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_{값} = -3.144$, $p = .004$ 로 유의수준 0.05에서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VII-1 합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통상적으로 노출된 일반국민이라는 점과, 짧은 시간에 종결되는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사례수가 크고 척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10점 척도) 51개의 사례와 100점 척도로 이루어진 델파이 패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개략적인 추세비교를 위해 간단히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100점 척도로 변환한 뒤, 평균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델파이 패널과 국민여론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¹⁶ 한편, 흥미로운 점은 국민여론과 대북사업자간의 평균비교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파악되었다.¹⁷

¹⁶-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값 -4.833, p=.00으로 p=.05 수준에서 두 집단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의 경우 대북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시간인 5시 11분으로 정리되었다. 텔파이 패널보다 1시간 26분이나 통일에 가깝다는 평가이다. 탈북주민의 합의형 통일시계가 빠르게 나타난 원인도 이들의 경험적 배경과 결합하여 현재 상황보다는 기뻐함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흡수형 통일시계 역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텔파이 패널과의 집단차를 검증하였으나, 역시 상호 구별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¹⁸ 한편 평균이 비슷한 대북사업자의 합의형 통일시계와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 두 집단은 상호 유사한 집단으로 판단되었다.¹⁹

전체적인 5개 집단의 비교는 통상 분산분석을 이용한다. 집단에 따라 합의형 통일시계(즉, 평균)의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²⁰ 그 결과 텔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고, 나머지 세 집단이 유사한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집단 간 구별이 가장 뚜렷한 경우는 텔파이 패널과 탈북주민 집단으로 나타났다.

5개 집단의 시각적 비교를 위하여 평균-오차 도표를 작성하였다.²¹ 아

¹⁷-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값 1.035, p=.313으로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독립적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¹⁸-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값 -4.251, p=.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¹⁹- t-검정 결과, 등분산이 아니며, t값 .153, p=.879로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독립적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²⁰- 분산분석의 경우 집단 간 등분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각 집단 간 관계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모두 확인하였다.

²¹- 여기에서 국민 여론은 편의상 10배로 전환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평균값은 아니다. 각 집단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작업을 거쳐야 하나 통일시계를 위한 환산값으로서의 평균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로 인해 현 도표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래 도표에서 가운데 사각형은 평균지점을 가리키며, 위와 아래로 뻗은 선은 오차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국민여론의 경우 편의상 10배수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개략적인 비교만을 할 수 있다.

도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비패널 전문가는 텔파이 패널의 오차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명부에서 표집된 집단임이 재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북사업자와 탈북주민에 대한 오차 표 역시 유사하다. 두 집단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텔파이 패널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조사 대상 집단 중 가장 낮은 3시 45분으로 계산되었으며, 오차 범위내의 동일집단으로 분류된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이보다 22분 빠른 4시 7분으로 평가하였다. 대북사업자는 합의형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5시 16분으로 평가하였으며, 5시 11분으로 평가한 탈북주민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 흡수형 통일시계



텔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
5시 20분	5시 37분	5시 5분	5시 36분	6시 40분
0분	+17분	-15분	+16분	+1시간 20분

텔파이 패널은 합의형 통일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도 늦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흡수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56분보다 36분 후

퇴한 5시 20분으로 나타났다. 통상 합의형 통일시계와 흡수형 통일시계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동시에 후퇴했다는 점은 두 가지 유형의 후진요인이 함께 작동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텔파이 패널보다 17분 빠른 5시 37분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간은 흡수형보다 1시간 30분이 빠른 것이며, 그만큼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을 더 높히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텔파이 패널과 매우 유사하며,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두 집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앞서 언급했듯이 대북사업자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예외적으로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11분 늦은 5시 5분으로 나타났다. 통상 2010년 시점에서 동일한 집단이 합의형 보다 흡수형의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역시 텔파이 패널과의 평균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유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²³ 흡수형 통일 단일 시계만 보았을 경우 텔파이 패널과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여론의 경우 합의형 통일보다 49분이 빠른 5시 36분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텔파이 패널보다 16분 빠른 시간이다. 합의형 통일에서 텔파이 패널과 큰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여론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인구비로 조사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설계 당시부터 텔파이 패널보다 통일에 더 가깝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조사에 의해 국민여론은 텔파이 패널에 비해 합의형은 1시간 26분, 흡수형은 16분가량의 시간차를

²² t-검정 결과 두 집단은 등분산이며, t값 -0.566 , $p=0.573$ 이다. 유의수준 $.05$ 보다 크므로 두 집단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²³ t-검정준 $.05$ 보다 크므로 두 집단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탈북주민은 흡수형 통일에 대해 델파이 패널보다 1시간 20분 빠른 6시 40분으로 평가하였다. 합의형 통일의 시간차가 1시간 26분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일관된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델파이 패널과의 t-검정 결과 두 집단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델파이 패널에 대한 2010년 델파이 조사결과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시계는 각각 3시 45분과 5시 20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합의형은 34분, 흡수형은 36분 통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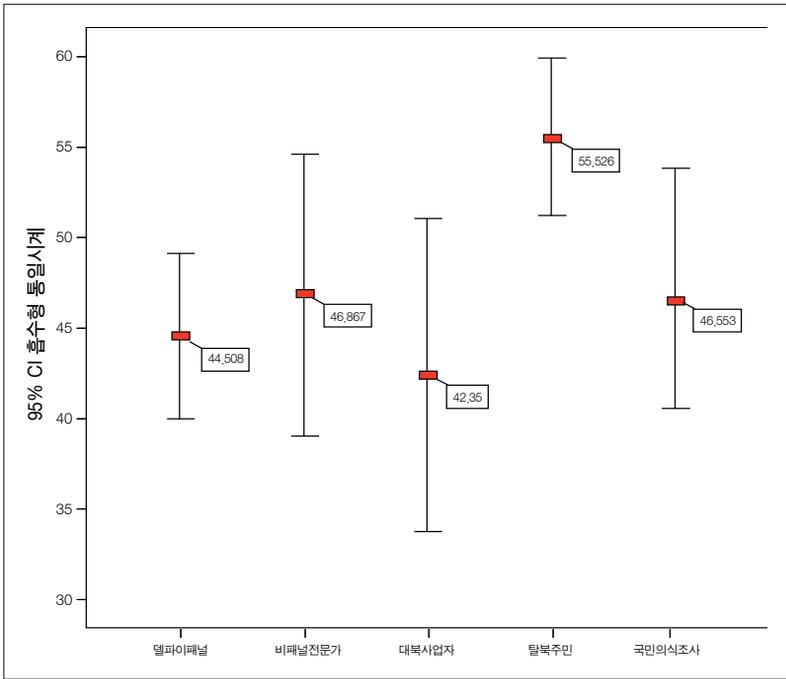
요약하면,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국민여론, 탈북자의 순으로 통일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의 통일시계는 델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1시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집단차는 평균-오차 도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흡수형 통일의 경우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이 큰 시간차 없이 유사한 평균에 있으며,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탈북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다.

통일이 한 부문의 통합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시계 역시 5개의 하위분야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즉, 통일 시계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하위분야가 예외 없이 12시(또는 100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각 분야별 통일시계는 우리에게 어떤 통일 분야가 진전되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를 제시해준다. 아래 방사형 도표는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통일은 대체로 각 5개 분야의 평균을 이루는 지점에 있으며, 경제분야와 사회분야가 통일에 가깝다. 반면에

²⁴ t-검정 결과 두 집단은 등분산이 아니며, $t_{값} -3.476$, $p=.001$ 이다. 유의수준 .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림 VII-2 흡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유난히 비정상적으로 통일의 방향과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합의형과 흡수형의 유형을 가리지 않으며, 이례적인 결과를 제시했던 대북사업자의 경우도 같다.

끝으로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 역시 각 항목별로 집단 간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의 사업으로 진행될 본 연구의 부가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2010년 통일예측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일시계는 물론이고 다수의 통일요인에서 매우 넓은 범위의 답변이 나왔다. 때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균질적인 정보와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 델파이 패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일예측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정확한 통일예측시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결과의 축적을 통해 설명력 높은 모형과 지수를 꾸준히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

1. 2010년 전문가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 요약

열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합수 형	합의 형 2	합수 형 2	합의 형 3	합수 형 3	합의 형 4	합수 형 4	합의 형 5	합수 형 5	합의 형 6	합수 형 6
1	42	51	30	40	70	85	50	60	10	20	50	50
2	45	55	40	55	50	65	45	65	30	40	50	55
3	25	30	15	19	30	35	28	31	17	20	25	28
4	40	60	35	50	50	75	40	60	30	40	45	65
5	25	30	10	20	30	40	30	30	20	20	20	20
6	25	50	25	50	35	50	15	50	25	50	15	50
7	30	50	20	40	40	60	40	60	20	40	30	50
8	40	55	15	35	45	65	30	55	25	35	25	35
9	20	20	10	30	25	30	25	15	5	15	15	10
10	25	55	25	51	30	60	25	55	15	45	25	45
11	25	15	10	5	35	35	20	20	5	5	20	10
12	60		40	20	40	20	60	20	40	20	60	20
13	35	45	30	30	45	50	40	40	20	50	30	50
14	20	23	15	16	23	28	29	26	10	17	17	19
15	45	20	30	20	50	20	50	20	20	25	50	10
16	40	60	30	60	60	70	60	80	20	70	60	70
17	45	35	45	45	50	55	40	35	20	20	50	25
18	45	40	40	30	50	40	50	50	40	50	40	30
19	35	40	30	40	45	50	40	45	25	30	35	35
20	45	50	30	20	60	60	70	60	30	40	50	40
21	40	50	40	40	45	55	40	40	15	20	35	30
22	22	70	20	58	30	75	22	55	20	56	24	65
23	30	45	20	40	40	50	30	40	20	30	30	30
24	30	60	20	40	40	60	20	50	10	60	20	60
25	20	70	10	60	20	80	30	60	10	40	30	80
26	10	10	5	5	15	15	15	10	5	10	10	10
27	25	65	25	65	35	70	35	65	15	35	30	30
28	30	30	20	20	20	50	30	30	20	10	30	30

연1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 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29	5	25	0	5	15	40	10	30	0	0	0	10
30	30	50	20	25	40	70	30	60	15	20	25	40
31	20	30	20	30	30	40	25	40	10	20	20	20
32	45	60	10	50	70	70	50	30	30	30	20	20
33	20	40	20	30	30	50	10	30	10	20	30	40
34	20	15	10	10	30	20	15	25	10	10	15	10
35	20	50	10	40	30	50	30	60	5	50	15	50
36	63	70	58	67	68	78	62	74	64	61	65	69
37	20	30	20	20	30	40	30	30	10	10	20	10
38	20	20	15	15	30	30	20	25	10	10	25	20
39	40	60	30	50	50	70	50	70	30	40	30	50
40	20	40	10	30	40	60	20	40	0	10	30	30
41	30	60	30	60	40	70	30	60	20	50	30	60
42	30	55	10	50	30	60	28	70	10	65	25	30
43	32	39	30	38	36	39	31	35	29	34	34	38
44	24	52	10	50	30	65	20	55	9	45	25	55
45	40	60	30	60	50	75	50	75	25	40	45	50
46	32	46	25	35	50	60	30	50	10	30	45	55
47	15	25	0	0	20	30	20	10	0	20	20	10
48	46	44	45	40	52	45	48	40	40	55	45	40
49	20	70	10	60	30	80	15	75	5	80	30	50
50	38	55	30	60	40	65	35	58	30	51	30	51
51	41.2	45.4	40	45	46	50	42	43	38	46	40	43
합계	1590	2225	1168	1874	1995	2705	1710	2312	952	1710	1585	1903
평균	31.18	44.51	22.90	36.75	39.12	53.04	33.53	45.33	18.67	33.53	31.08	37.31
표준편차	11.93	16.13	12.58	17.68	13.25	17.87	14.13	18.26	12.49	18.50	13.72	18.66
중간값	30.00	48.00	20.00	40.00	40.00	55.00	30.00	45.00	20.00	34.00	30.00	38.00
최대값	63.00	70.00	58.00	67.00	70.00	85.00	70.00	80.00	64.00	80.00	65.00	80.00
최소값	5.00	10.00	0.00	0.00	15.00	15.00	10.00	10.00	0.00	0.00	0.00	10.00
분 환산	224	320	165	265	282	382	241	326	134	241	224	269
시계 환산	3:45	5:20	2:45	4:25	4:42	6:22	4:01	5:26	2:14	4:01	3:44	4:29

2.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통일예측시계 조사 요약

가. 비패널 전문가

연번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 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1	62	45	52	35	75	50	62	40	50	26	62	45
2	5	25	2	30	10	40	3	30	1	10	5	15
3	50	70	50	60	75	70	65	70	50	60	45	55
4	30	80	30	80	60	90	40	60	40	80	70	80
5	60	65	40	50	60	70	70	70	50	70	70	60
6	15	30	10	20	20	20	15	20	10	20	50	60
7	30	60	30	70	50	80	20	30	10	20	30	60
8	10	25	10	20	20	30	20	30	10	0	30	30
9	40	50	35	45	55	60	45	55	10	30	40	45
10	25	25	10	10	20	20	10	10	5	10	10	10
11	5	20	2	30	10	40	5	10	5	10	2	10
12	25	45	15	35	40	70	30	65	20	20	15	35
13	40	55	30	60	50	70	50	70	25	40	25	50
14	75	50	65	40	80	55	70	55	60	40	80	50
15	40	55	20	30	60	70	50	60	20	20	40	40
16	36	56	30	60	40	60	30	50	25	40	55	70
17	25	30	20	25	30	50	30	30	10	20	30	20
18	25	20	20	10	70	40	50	30	10	10	60	40
19		70	25	70	50	80	25	60	30	60	50	70
20	23	40	25	35	30	45	35	35	20	20	30	25
21	10	10	5	5	25	30	10	15	5	5	5	5
22	55	30	55	20	65	50	45	30	40	20	50	30
23	40	70	25	25	75	90	50	75	25	25	25	75
24	25	75	20	70	55	75	35	70	20	45	60	65

열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 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25	60	50	55	50	65	60	60	50	50	50	60	40
26	50	75	25	75	75	90	50	50	25	50	50	75
27	60	70	60	70	90	90	60	70	30	40	60	50
28	10	20	10	10	20	30	10	20	5	5	10	20
29	25	20	25	20	30	25	25	20	20	15	25	20
30	40	70	10	10	60	70	70	80	10	20	20	50
합계	996	1406	811	1170	1465	1720	1140	1360	691	881	1164	1300
평균	34.34	46.87	27.03	39.00	48.83	57.33	38.00	45.33	23.03	29.37	38.80	43.33
표준편차	18.93	20.92	17.68	22.80	22.81	21.88	20.81	21.41	16.59	20.45	21.88	21.43
중간값	30.00	50.00	25.00	35.00	52.50	60.00	37.50	50.00	20.00	20.00	40.00	45.00
최댓값	75.00	80.00	65.00	80.00	90.00	90.00	70.00	80.00	60.00	80.00	80.00	80.00
최솟값	5.00	10.00	2.00	5.00	10.00	20.00	3.00	10.00	1.00	0.00	2.00	5.00
분 환산	247	337	195	281	352	413	274	326	166	211	279	312
시계 환산	4:07	5:37	3:15	4:41	5:52	6:53	4:34	5:26	2:46	3:31	4:39	5:12

나. 대북사업자

열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2	흡수 형2	합의 형3	흡수 형3	합의 형4	흡수 형4	합의 형5	흡수 형5	합의 형6	흡수 형6
1	49	41	45	41	80	85	55	55	41	21	60	60
2	35	20	30	20	40	20	40	20	40	20	30	20
3	30	70	20	70	60	90	40	90	0	40	30	60
4	60	50	60	45	65	40	65	50	55	50	55	45
5	51	53	15	51	20	53	25	53	15	51	15	52
6	38	22	20	20	60	40	40	20	40	10	30	20
7	70	40	80	20	90	60	70	40	60	20	50	40
8	25	30	15	20	40	45	20	30	15	15	35	40
9	61	47	50	25	80	65	65	25	45	60	65	60

열1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2	흡수 형2	합의 형3	흡수 형3	합의 형4	흡수 형4	합의 형5	흡수 형5	합의 형6	흡수 형6
10	28	52	20	30	40	70	30	50	20	50	30	60
11	50	70	20	51	51	65	55	70	20	50	35	55
12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3	10	21	10	21	10	21	10	21	5	21	10	21
14	30	5	20	1	40	10	40	10	20	1	30	1
15	50	70	25	25	75	65	50	25	30	60	40	75
16	50	51	50	51	50	51	50	51	50	51	50	51
17	25	25	25	25	25	75	25	50	25	25	25	25
18	50	50	45	45	55	55	50	50	40	40	55	55
19	76	25	51	10	90	40	76	25	26	10	26	10
20	40	55	10	60	70	70	30	40	5	20	10	20
합계	878	847	661	681	1091	1070	886	825	602	665	731	820
평균	43.90	42.35	33.05	34.05	54.55	53.50	44.30	41.25	30.10	33.25	36.55	41.00
표준 편차	16.48	18.44	19.34	18.16	22.46	21.13	17.59	19.49	17.64	18.67	16.11	20.33
중간값	49.50	48.50	25.00	27.50	53.00	54.00	45.00	45.00	28.00	32.50	32.50	47.50
최댓값	76.00	70.00	80.00	70.00	90.00	90.00	76.00	90.00	60.00	60.00	65.00	75.00
최솟값	10.00	5.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0.00	1.00	10.00	1.00
분 환산	316	305	238	245	393	385	319	297	217	239	263	295
시계 환산	5:16	5:05	3:58	4:05	6:33	6:25	5:19	4:57	3:37	3:59	4:23	4:55

3. 2010년 탈북주민 통일예측시계 조사 요약

열1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 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1	30	70	10	10	30	30	20	20	10	10	0	10
2	30	60	20	10	40	30	20	20	10	10	10	10
3	60	80	10	20	40	30	30	10	10	10	0	0

연번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4	60	70	20	10	30	30	20	20	10	10	0	10
5	40	60	10	10	30	40	10	20	10	10	10	10
6	40	80	0	10	20	40	10	20	10	10	0	0
7	30	25	10	10	35	35	20	5	5	0	0	5
8	25	40	5	5	20	35	5	10	0	5	0	5
9	10	8	0	0	5	4	5	4	0	0	0	0
10	60	60	0	0	30	30	10	15	0	0	20	15
11	70	70	30	60	80	70	60	70	30	50	70	75
12	60	70	20	40	60	70	70	75	20	35	70	70
13	50	60	70	60	40	50	50	70	40	40	70	80
14	90	70	60	30	80	80	100	100	50	40	30	20
15	60	70	40	50	50	60	70	70	60	80	70	70
16	65	70	50	65	70	75	60	70	50	60	70	70
17	51	60	20	30	60	65	65	70	20	30	70	60
18	60	65	40	50	50	50	70	60	40	40	70	70
19	50	70	40	40	50	80	50	60	30	40	40	90
20	70	60	60	50	70	60	60	50	50	60	70	60
21	5	65	0	10	10	40	5	10	0	0	10	5
22	15	15	10	10	15	15	10	10	0	0	10	10
23	1	20	1	0	10	10	5	20	0	0	0	20
24	40	70	10	40	80	80	50	50	50	50	60	50
25	0	30	0	0	20	30	0	10	0	0	0	0
26	10	10	0	10	10	20	10	10	0	10	0	10
27	5	20	2	5	10	20	5	10	0	0	5	10
29	10	20	2	10	20	30	10	10	0	0	10	20
30	10	20	0	2	10	20	0	5	0	0	5	10
31	50	60	0	20	20	40	20	10	0	15	10	10
32	35	70	30	40	50	60	40	50	20	40	10	30
33	40	60	20	50	40	60	20	40	10	30	20	40
34	40	50	20	30	40	40	20	40	10	20	20	30
35	20	60	0	20	15	15	20	10	0	10	10	15
36	10	80	5	20	0	30	5	10	0	10	0	10
37	20	80	0	20	10	20	10	20	0	10	0	10
38	40	70	0	30	30	40	20	20	0	15	10	10

연번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39	40	70	0	20	10	40	10	5	10	0	10	5
40	0	70	0	50	0	100	0	100	0	50	0	50
41	45	40	20	30	50	60	50	50	30	50	80	80
42	30	40	25	25	30	40	35	30	10	20	25	35
43	50	30	0	20	0	20	50	50	0	10	20	5
44	40	30	30	20	40	10	10	30				
45	50	20	20	20	70	70	50	50	20	20	30	50
46	20	15	20	15	35	20	30	20	19	15	18	10
47	25	50	25	25	50	50	50	70	25	70	50	50
48	51	50	10	10	50	50	50	50	20	20	30	30
49	53	52	60	70	70	60	80	55	51	70	51	51
50	30	60	30	60	10	50	30	60	10	60	40	60
51	50	90	10	100	40	80	20	60	0	100	50	80
52	25	75	25	70	30	80	25	90	5	80	10	70
53	20	65	25	65	25	75	25	85	10	75	10	65
54	30	70	25	68	30	70	20		4	85	10	65
55	60	50	20	20	20	10	30	30	50	50	30	30
56	75	80	50	25	60	70	30	20	70	75	80	90
57	25	50	25	20	25	35	30	25	20	30	30	35
58	25	75	25	75	25	75	50	75	10	25	10	75
59	25	75	25	75	25	75	30	90	10	75	25	75
60	60	80	60	70	70	90	70	90	20	20	40	50
61	75	30	35	20	80	40	75	40	30	10	80	20
62	75	75	51	50	25	28	75	70	75	75	26	29
63	63	63	50	50	13	75	36	26	63	50	36	51
64	75	76	50	51	75	65	65	55	85	75	76	85
65	75	70	75	70	50	70	50		50	50	25	50
66	80	70	70	65	95	80	80	70	70	65	70	65
67	60	40	20	10	75	50	60	50	20	20	30	30
68	70	75	20	30	80	80	60	70	30	35	70	60
69	65	70	30	35	70	80	70	75	20	30	65	70
70	20	60	5	10	30	70	15	60	5	20	20	60
71	60	60	50	40	40	40	40	50	40	50	60	60
72	50	50	40	30	30	30	40	40	40	40	50	50
73	25	10	25	10	25	10	30	25	25	10	25	10

연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 2	흡수 형 2	합의 형 3	흡수 형 3	합의형 4	흡수 형 4	합의 형 5	흡수 형 5	합의 형 6	흡수 형 6
74	25	25	20	20	30	40	20	40	20	20	10	5
75	77	86	75	80	55	90	80	85	85	85	90	90
76	55		25	40	30	70	50	50	45	45	50	70
77	85	85	80	80	80	85	80	85	50	70	85	
78	85	83	80	80	85	85	85	85	75	75		80
79	85	90					85	90	85			
80	50	50	40	30	20	30	30	20	50	40	60	60
81	52	52	20	25	25	20	20	20	25	25	50	20
82	26	51	25	26	50	75	26	51	25	51	26	51
83	25	70	25	50	50	100	25	70	50	70	25	50
84	20	25	10	20	40	10	20	50	0	0	30	50
85	1	80	0	50	20	90	5	70	0	95	30	95
86			10	10	30	70	10	50	5	50	10	30
87	50	70	0	50	0	70	0	70	0	70	50	80
88	50	75	10	80	15	70	1	80	1	60	30	30
89	40	80	20	20	50	50	20	20	0	0	10	10
90	78	80	0	10	30	40	20	20	20		10	
91	80	50	60	30	70	80	40	70	30	70	50	50
92	34	50	20	20	50	51	50	30	20	30	30	20
93	50	59	50	75	75	76	50	76			75	76
94	30	40	10	10	80	70	50	50	30	30	30	30
95	60	30	20	20	50	30	50	30	20	20	20	20
96	50	46	30	20	70	90	70	70	30	20	50	30
97	30	10	50	10	30	10	10	10	0	10	70	10
98	40	30	20	10	70	60	70	50	10	10	30	20
99	40	40	20	20	80	70	50	40	20	30	30	30
100	35	25	20	20	40	30	30	20	40	40	10	10
합계	4237	5386	2406	3207	3958	5044	3573	4342	2228	3296	3093	3738
평균	43.23	55.53	24.55	32.72	40.39	51.47	36.09	44.76	22.97	34.69	32.22	39.35
표준편차	22.68	21.68	21.37	23.84	24.05	24.90	25.04	26.96	23.17	27.25	26.11	27.77
중간값	40.00	60.00	20.00	25.00	37.50	50.00	30.00	50.00	20.00	30.00	28.00	30.00
최대값	90.00	90.00	80.00	100.00	95.00	100.00	100.00	100.00	85.00	100.00	90.00	95.00
최소값	0.00	8.00	0.00	0.00	0.00	4.00	0.00	4.00	0.00	0.00	0.00	0.00
분 환산	311	400	177	236	291	371	260	322	165	250	232	283
시계 환산	5:11	6:40	2:57	3:56	4:51	6:11	4:20	5:22	2:45	4:10	3:52	4:43

4. 2010년 델파이조사 설문지

2010년 통일예측시계 패널 델파이 조사

기간: 2010년 8월 20~31일

대상: 전문가 패널

조사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기(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연락처: 02)9012-582, frankykim@kinu.or.kr

안 내

본 설문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일예측시계
적절한 점수를 괄호 안에 넣어 주십시오.
2. 설문조사
9점 척도표 상자 안에 “o” 또는 “v”표를 넣어 주십시오.
3. 개방형 질문
분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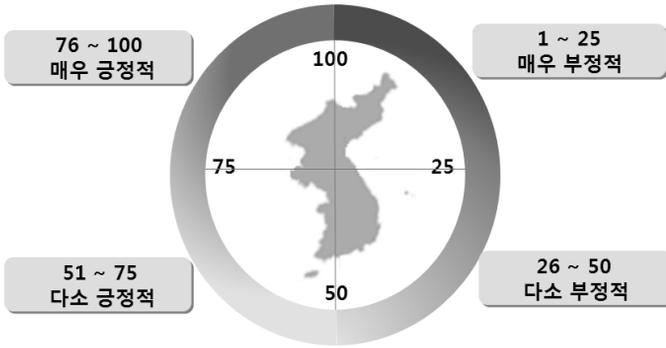
※ 작성 후 저장하신 뒤 위 메일주소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 엄격히 보호됩니다.

가. 통일예측시계

(1) 합의형 통일시계¹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100점(통일)까지의 범위에서 선생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시) 정치적 측면 (합의형): (50) 점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가)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나)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다)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라)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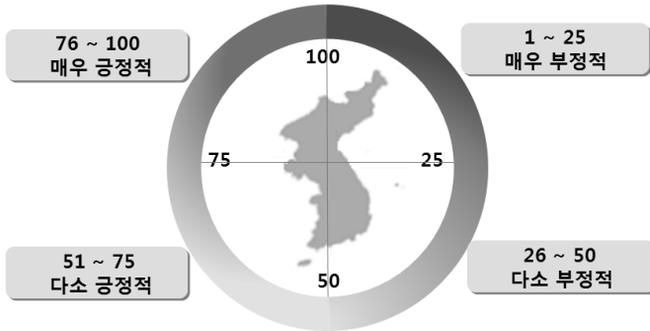
(마)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바)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¹ 합의형 통일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인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임.

(2) 흡수형 통일시계²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100점(통일)까지의 범위에서 선생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현재의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시) 정치적 측면 (흡수형): (50) 점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가) 흡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별 흡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나) 정치적 측면 (흡수형): () 점

(다) 경제적 측면 (흡수형): () 점

(라) 사회적 측면 (흡수형): () 점

(마) 군사적 측면 (흡수형): () 점

(바) 국제관계 측면 (흡수형): () 점

²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

나. 2010년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항

아래 설문은 2009년 델파이 조사에서 <전반적인 통일요인>으로 제시된 항목입니다. 2010년 8월 현재의 시점에서 각 요인별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주의독재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안정적

매우 안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외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대단히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미하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극심한 위기상황이다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주의계획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미하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극심한 위기상황이다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주의계획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질적 매우 동질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약하다 매우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

매우 변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확산되지 않았다

매우 확산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리하다

매우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고립되었다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다. 2010년 전문가 패널 개방형 질문

아래는 2010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만 드리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누락된 항목 없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향후 1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향후 1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향후 1년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문항을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 2010년 전문가 패널 워크숍 결과 요약

가. 북한내부정치변화		
체제 정당성 (16)	체제 안정성 통제력 (13)	9월 당대표자회를 기점으로 하는 당-군관계, 체제 안정성 여부, 체제이완, 당대표자회 개최, 당-국가체제 복원, 김정일 권력 및 국정 통치능력 약화, 체제결속 강화 위한 대남 군사적 긴장, 내부체제단속 강화, 정권 통치능력 약화로 인한 감시와 통제에 의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반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고조, 민란 분위기 고조, 주민생활 통제 풀어놓게 됨
	통치 이념(3)	신군정지 강화, 강성대국 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 불만세력을 염려한 사상학습
군사-정치적 요인(102)	김정일의 건강/유고(22)	김정일의 건강이완으로 인한 정체의 혼신/지체, 김정일 건강,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약화, 김정일의 건강변수, 김위원장의 건강 유지 여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따른 통제력, 김정일 건강의 불투명성,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 건강과 권력 및 국정 통치능력 약화, 갑작스런 김정일의 유고, 김정일의 건강문제, 김정일의 건강 상태, 김정일 급격한 건강 약화, 김정일의 건강이상, 김정일의 건강 문제, 김정일 건강 문제, 김정일 건강 문제, 김정일 '유고'를 걱정하는 단계, 김정일의 건강문제
	후계구도 정책화(42)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에 따른 신/구 정책 조율,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후계자 구도, 후계구도 수립, 후계체제 관련 권력구도 변화, 권력승계 과정의 진행속도와 갈등 여부, 후계체제 구축의 원만한 진행, 후계체제 구축과정의 불안정성, 후계문제, 후계체제 등장, 후계구축, 후계체제 문제의 안정적 해결, 후계구도 구축의 안정성 여부, 포스트김정일 지도체제 공식적 등장, 김정은이 후계체제 가시화, 후계체제 구축 과정, 후계체제 수립, 3대 세습의 권력이양과정, 장성택의 권한행사, 김정은은 후계체제 안정적 정착, 김정은은 후계체제 안정적 정착,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한 내부여건 조성, 김정은의 후계자 지체, 후계자의 권력양안, 후계자의 권력 장악력, 김정은은 후계자의 권력강화 능력, 북한 권력 세습 과정, 권력승계의 권력구조와 인물 개편, 권력 이양의 순조로움, 후계자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대외정책, 후계구도 수립에 필요한 통제력, 후계체제의 가시화, 권력이양, 권력승계 진행, 후계자 구출 문제, 김정은으로의 후계의 안정성, 후계구도의 확립, 권력승계 작업과 일정, 후계체제의 무능력으로 불안정성 증가, 후계세습, 후계체제 안정화 과정에서 김정일의 역할권 령구도의 결정, 후계구도의 틀, 후계구축과정의 안정성 여부

복한 군사정치적 요인(102)	정치적 리더십 (78)	권력갈등(14)	당/군관계 재정립에 따른 혼신, 간부들간의 경쟁/미찰, 권력투쟁,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갈등 여부, 내부의 권력갈등, 내부의 권력갈등, 권력 최고상층부의 균열(권력투쟁), 권력간 압투, 당과 군의 최상층 지배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갈등, 부한 상층에서의 권력갈등, 새로운 권력구조 구축의 여부, 기존 권력 그룹(김정일 후계그룹)과 도친세력과의 갈등 관계,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 후계 리더십과 기존 엘리트 리더십의 조화 또는 불안정성
	해 관련(4)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지속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8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군사력 과시, 국방의중심 상층권력의 핵무기에 대한 강-은 세력 투쟁 가능성
복한 경제요인(35)		대외관계(4)	미북 관계 개선여부, 대외정책(특히 대남정책) 강경론특세, 대외관계 개선 위한 노력, 대남 무력도발
		경제난-경제회복여부(28)	경제난 지속, 주민들의 생활향상 여부, 자연재해 등 경제난 가중, 경제위기, 수해,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 경제위기의 지속, 경제난 심화, 식량난, 경제난 극복, 북한 경제 상황 및 식량난 심화 가능성, 흉작으로 주민생활 공핍, 경제문제, 경제상황의 악화, 경제난, 식량난, 악화되는 경제상황, 경제난 극복 여부, 경제적 어려움, 경제회복, 북한의 경제 위기의 심화, 북한의 식량-에너지 부족, 경제난 지속 가운데 화폐개혁의 실패,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 회복 여부, 경제적 어려움, 경제난 극복, 화폐개혁 이후 당국의 시장에 대한 대처, 예상치 못한 제해제난의 피해
복한 사회요인(7)		외부지원(3)	외부로부터의 지원 대폭 감소, 대중국 의존도 심화,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북중협력 대외개방)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시강요소 확산)(4)	화폐개혁 실패로 실리 강조시장 확대, 시장의 확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경제 정책의 수정
복한 사회요인(7)	사회 의식 (6)	북한주민의 불만(5)	일반 주민 및 하층 군인들의 불만 고조, 정치적 상징조직의 효력 없음, 민란 분위기 고조, 주민들의 불만 확산, 제해제난 피해에 대한 중앙의 대처능력 미비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확산
		사회통합(1)	사회적 통합도 위축
		외부정보 유입(1)	외부 정보의 유입

나. 국제정세변화		
국제정세 요인(111)	미중관계(32)	<p>미중관계(군사/정치적) 경쟁과 (경제/사회문화) 협력, 미중관계, 미중간의 경쟁, 미중간의 경쟁이 한반도 긴장 고조, 미중관계의 대결구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미중의 원활한 긴장시스템 구축 여부 중요, 미중관계의 추이, 미중관계의 악화로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의 대립구도가 강화,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 상황,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오히려 북중관계를 강화시킬 것임,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간의 대립배도 지속 가능성, 한미 대 북중 관계의 대립 구도, 미중간의 군사갈등, 미중관계의 긴장, 신중함 미중간 전략적 논의,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간 갈등이 회합의 국면으로 전환, 미중갈등, 미중관계의 변동성, 미중과 경쟁관계 강화되면서 북중 대, 한미 대립체제 형성, 미국과 중국 간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 조율, 미중갈등의 양-질면에서의 증가, 미중 경제적, 군사적 갈등정도, 대립적인 미중간의 관계</p>
	대내외정책상황 (8)	<p>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오바마정부의 대외정책 조정 여부, 이라크에서 미군 철군, 미국의 대불량국 정책, 미국대선, 미국의 테러전쟁 강화, 미국의 테러전쟁 마무리 여부, 미국의 중간 선거 영향, 미국의 이라크 완전 철군에 대한 북한의 해석</p>
	미국 (25)	<p>미국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강/온 대립, 북미간의 관계변화, 북미관계의 향방, 북미협상 여부, 북미 직접대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변화, 한미의 대북안보정책, 북미관계의 진전,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 전개 가능성,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p>
	한미관계(6)	<p>미국의 국내경제위기 지속되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 한미 군사훈련, 한미관계, 한미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장, 오바마-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현상 가시화로 인한 한미 대북공조체제 약화</p>
중국 (24)	대내외정책상황 (6)	<p>중국의 빠른 경제 및 사회변화는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 중국의 발언권, 중국의 금부상과 미국의 견제, 중국 경제 상황 요인으로 북한 경제 타격 가능성 증가, 중국의 창지투개방산도구역 실행과정, 미국의 대이란 압박정책</p>

	중국 (24)	북중관계(16)	<p>재현된 지역에서의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도부 및 주민들 사이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북중간 경제협력의 진전으로 북한경제의 중국경제로의 종속 심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 노력 지속화,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지원 규모, 북중관계, 중국의 북한상황에 대한 우려로 정치경제적 지원을 노골화, 북중관계 강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여부, 북중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강화, 북중관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집중, 북중관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조중조약” 근거에 의한 군사적 개입 준비, 중국의 대북태도 변화</p>
		한중관계(2)	<p>한중관계, 한중관계 악화 가능성</p>
국제정세 요인(111)		북핵(21)	<p>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대북제재의 지속 여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 지속,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 6자회담 재개 여부, 6자회담 조기 재개 여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핵문제 해결 움직임이 지속될 것, 6자회담 재개 문제, 6자회담, 6자회담 재개 여부와 협상 구면 재개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태도, 3차 핵실험 등 핵 활동 진전여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과정, 6자회담 속개와 결과, 북한의 핵실험과 그로 인한 파장, 미국의 핵비확산 전략, 3차 핵실험,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북한 핵문제의 진전 양상, 6자회담 기동, 미국의 중간선지 이후 대북/핵 정책 조정, 6자회담</p>
국제 정세 (9)	국제환경(8)	<p>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시아의 관계의 불안정성,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대 강국의 경쟁과 힘초, 중동지역의 테러 격화, 러시아의 재등장 여부, 4강의 정책변화, 미국일 본중국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강경화, G20정상회의의 전후 한반도 정세</p>	
		유엔 및 국제기구의 역할(1)	<p>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지속 여부</p>

다. 주요요인	
국제정세 요인(16)	6자회담 재개시 한미/한중관계, 미국의 대북제재, 미중갈등, 한미 군사훈련, G20 회의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여부, 한미동맹(한미연합훈련 등), 중국의 북한 정권 변화 여제 의지, 미부 관계의 개선, 6자회담 재개여부, 6자회담의 재개여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 미중관계에 따라 6자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의 여부, 미중관계, 중국의 대북지원 정도, 6자회담의 재개와 핵문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은 정책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
남북관계요인 (30)	남북정협, 남북대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남북관계 진면증단, 정상회담 추진성사 여부, 대북 심리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립,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북의 움직임,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상회담 제안 및 북한의 수용,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정상회담, 남북간의 긴장 지속여부, 남북간 경색 및 긴장국면 조성,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성사,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해결 모색, 남북관계의 돌발변수,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한에 경제지원 및 호의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6자회담의 재개와 국제사회의 호응, 남북한 정치권력 지형 변화
	소통 (30)
남한요인(31)	지원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남남갈등, 통일논의 확산과 북한/친북세력의 반발, 2012년 대선을 앞둔 남북문제 의 정책/정치쟁점화, 남한사회의 내부갈등(남남갈등), 남한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 남한 정부의 정치적 필요성, 대북 대규모 식량지원 여부, 남북관 계 복원을 위한 남측의 움직임, 남한 정부 내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 또는 교체, 한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 G20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외교안보부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 변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여부, 임기종반 이후 한국 정부의 국내정치적 고려, 우호적인 대북정책,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우호정책),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변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강경도도를 변경하는나의 여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한국내부에서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남한의 대북정책 일부 수정,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조정,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헌안, G20 회의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남한요인(31)	정치상황(4)	국내정치 현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향방, 한국의 대선경구 준비 등 정치적 요인, 대선 경쟁구도 기열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약화 현상 가속화,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의 한국정치 구조 불안정
북한요인(50)	해 군사요인(15)	북한의 부분적 군사도발의 가능성, 북핵문제 교착,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의 대남 도발 여부, 북한의 군사, 정치적 도발, 북핵문제, 북한핵실험 등 추가 상황악화조치, 북핵문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지속 여부, 북한 핵문제, 제3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대남긴장 조성행위, 권력체제 유지 위한 대외적 긴장 조성(핵실험, 미사일 도발, 비대칭전력활용, 국지도발 등)의 길 선택과 대규모 군사분쟁 비화 등 안보상황의 위기 가능성, 북핵문제
	경제(6)	북한의 식량난 심화, 경제난의 극복, 북한의 경제난, 북한의 현실정세의 악화, 경제난(식량, 수재 등) 극복을 위한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의 방향, 북한 경제 악화
	김정일의 건강/유고(8)	김정일 건강,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김정일의 유고,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 건강문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남북관계 기대구조 붕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정치적 리더십(22)	후계구도 정착화(8)	북한의 후계자 승계문제, 3차 로동당 대표자대회 이후의 북한권력계승체제의 안정성, 북한의 3대세습의 권력이양에 서 초래되는 상황, 권력승계의 원만한 진행여부, 후계구도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 북한 후계구도 인척과정, 후계체제의 구축을 둘러싼 북한의 내부 문제, 김정으로부터의 후계구도의 과정
	인정성(6)	9월 당대표자 대회, 북한 내부정세의 변화, 북한의 내부 불안정, 북한 내부정세, 북한의 태도변화, 당 대표자대회 이후 정책기조 및 반응
	대외정책(7)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의 강경정책, 북한의 호응, 권력승계를 위한 각종 대내외 정책의 변동/호신 가능성, 북한의 대남정책 상황, 중국 의존의 외교와 대남·대의 관계 적대시 등의 지속 여부, 국지적인 물리적 긴장관계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관련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및 선언들

6. 2010년 비패널 전문가 및 대북사업자 텔파이조사 개방형 설문 요약

가. 비패널 전문가

가. 북한내부정치세변화		
체제 정당성 (7)	체제 안정성 통제력(5)	지도층의 변화에 따른 체제 강화, '혈통'의 강도가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시킬 것인가 여부, 집단지도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북한 권력기구의 대인민 통제 약화, 당대표자회의
	정치 노선 및 이데올로기의 강조, 사회주의체제에 더욱 강화	정치 노선 및 이데올로기의 강조, 사회주의체제에 더욱 강화
북한 군사·정치적 요인(54)	김정일의 건강/유고 (8)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김정일의 외병 가능성, 북한의 금면사태(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할 가능성, 김정일의 사망, 김정일의 건강 정도, 김정일의 건강 문제, 김정일의 건강상태, 김정일의 건강 악화 혹은 사망
	후계구도 정착화(20)	권력 세습, 조속한 후계체제 구축, 김정인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 작업 안정성, 장성택의 조정자적 역할과 군부의 지지 여부, 후계 계승으로 집단지도체제 대두, 후계자의 성공적 지명 및 정당성 확보 여부, 김정은장성택 김정희의 권력 조합 상황여부, 후계구도, 김정은 측근세력의 부상, 후계구도의 안정적 정착, 후계 세습의 성공 가능성, 후계자 구도 측면, 권력세습, 권력승계와 체제 정비 여부, 후계체제 안정화 문제, 후계체제정도, 후계체제, 후계체제 확립, 후계 세습체제의 진행 과정, 권력승계
군사행 관련(4)	권력갈등 (13)	군부의 세대 교체에 따른 약간의 긴장 조성, 당과 군 사이의 갈등, 권력승계 과정에서 파벌대립 조짐, 대외적으로 자체내 지지세력 확보 경쟁 물음, 권력층 내부의 갈등, 김정은 후계에 대한 군부세력의 내부 반발, 김정은 후계체제 구도에 대한 내부 반발 표출, 권력기관 간의 임무 가능성,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북한 권력층의 불만확대, 대외개방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 내부의 권력안투, 내부의 권력갈등
	대외관계(2)	군사 분야(핵 포함)의 지속적인 강화, 대남대러 도발소규모 무력 도발 가능성, 핵문제, 핵문제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후계체제 관련한 태도, 주변국들이 북한내 세력 조정 가능성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후계체제 관련한 태도, 주변국들이 북한내 세력 조정 가능성

북한 경제요인(20)	경제난 지속과 식량난,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난과 식량난, 북한의 경제난, 경제난 극복 문제, 경제난 해소, 식량난, 경제난, 경제난, 경제상황의 악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경제난, 경제적 위기, 피폐해진 경제상황	경제난 지속과 식량난,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난과 식량난, 북한의 경제난, 경제난 극복 문제, 경제난 해소, 식량난, 경제난, 경제난, 경제상황의 악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경제난, 경제적 위기, 피폐해진 경제상황
	외부지원(1)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경제적 지원
북한 사회요인(4)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시장·요소 확산(7))	경제분야의 점진적인 개혁·개방 추진,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주민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시장주의 요인 증대, 부분적인 경제개방조치 단행, 북중경제 협력과 그 사회경제적 변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여부(개혁, 개방 등), 제한적인 개혁개방시도
	사회 의식(3)	북한 주민들의 동요, 일반민중과 군부의 불만
	사회통합 (1)	양극단적인 북한주민들의 생각
	외부정보 유입(1)	자본주의 문화 유입 증대에 따른 주민의 인식 변화

나. 국제정세변화		
국제정세요인 (61)	미중관계(14)	향후 미중관계,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미중간의 관계 변화, 미중관계 전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 회복문제, 우호적인 미중관계, 미중관계, 미중간의 이해 일치, 미중의 타협 여부, 중국과 미국의 타협 여부, 미중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미중간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 (11)	일본과의 우호적 정책 강화, 미국의 동북아정책 혼신, 미국의 세계진략,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미일관계
	대내외정책 상황(6)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방의 참여요구, 북핵포기와 금융제재 등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 북미 관계,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북미관계 개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여부

국제 정세요인 (61)	중국 (13)	대내외정책 상황(8)	대민과 관계 개선, 중일간 영토 관련 긴장감 제거, 중국의 군사력 증가, 중국의 힘 증대,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 변수, 중국의 대북 전략, 중러관계, 중국의 영향력
		북중관계 (4)	북-중 정상회담,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압력 기증, 북중 관계, 북중관계 발전
	북핵(13)	한중관계 (1)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6자회담의 진전, 6자회담의 조기 개최, 6자회담 재개, 6자회담 재개, 6자회담, 북한 핵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적 합의의 도출 여부, 6자회담의 재개, 6자회담 재개 희망,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핵문제 개선, 한반도 비핵화 진전, 핵을 고집하는 북한과 포기 압력, 북핵문제의 진행과정, 북핵문제
	국제정세(10)	러시아의 중간적 역할 증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이란의 핵문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문제, 대북 강경책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국가나 정치 세력의 존재 여부, 주변4강의 경쟁 강화, 북일관계 개선,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 형성, 한반도 영향국가들의 이해관계	

다. 주요요인

국제 정세요인 (9)	국제관계환경(9)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 미중관계 악화, 미중관계, 한미관계 유지 여부, 오바마 정부의 불투명한 대북정책과 정책혼신, 미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한 지지도, 국제정세 변화,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이해관계
남북관계요인 (13)	남북회담 교류(10)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과거 합의사항에 대한 교동정리(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및 200만 KW대북중대계 안 등), 북한의 핵폐기 원칙과 절차남한의 대북지원에 관한 협의 및 논의구조, 현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 정도, 정상회담 개최 여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남북경제협력(개성공단 확대 발전,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남북대학을 통한 대북지원
	수동 (13)	친안함 사건 관련 (3)

남한요인 (24)	대북정책(18)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5.24조치의 실행여부(남북한 교역관계, 인도적 지원관계, 경제협력, 현정부의 대북 문제 태도,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여부 및 규모, 남한 정부의 양보, 정부의 대북강경기조의 유지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자세 유지여부, 이명박 정부의 정치권 대북정책 변화(대북지원 재개, 남북경협 확대 등),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남한 정부의 현 대북정책의 계속 여부, 남한의 지원,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 정부의 대북 정책,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내외의 남남갈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여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내외적 상황(6)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락, 남한 내부 동향(경제성장, 국민의신용할 정도), 경제성장여부, 국민들의 의식, 남북대지 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가능성
북한요인 (45)	해군사요인(9)	북한의 핵, 6자회담 개최 가능성,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및 미국 등 주변강국과의 정치군사적 외교관계, 북핵문제 재부상, 무력 도발의 가능성 차단, 핵문제의 수용여부, 핵문제 해결, 북핵문제, 해결할
	경제(10)	경제적 어려움, 경제난과 식량난 악화, 경제상황, 식량난 등 주민생활의 황폐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악화에 부, 경제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 경제난 타개, 경제난, 북한의 경제적 상황
		김정일의 건강/유고(5)
	정치적 리더십(22)	후계자 구축노력, 김정일의 후계체제 작업을 둘러싼 내부상황, 북한의 후계구도의 속도와 인척여부, 북한의 후계 문제, 북한 내부의 권력이양, 김정일 후계 구도, 권력 세습 문제, 후계체제확립,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 후계문제, 김정일의 권력승계
안정성(6)		당과 군부간의 갈등, 주민들의 충성심 저하, 북한내부의 혼란, 권력투쟁, 북한 내부의 안정 여부, 북한 권력구도의 안정성 여부
대외정책(4)		국제관계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노력, 북미접촉 재개, 북미대화 재개, 중국과 북한의 관계 유지여부

나. 대북사업자

가. 북한내부정세변화			
북한 군사-정치적 요인(32)	체제 안정상 통제력(2)	북한 정권 내부의 결속력 약화, 체제 내부 결속	
	통치 이념(2)	군부를 중심으로 통제 심화, 2012년 약속한 강성대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초조함	
	정치적 리더십 (19)	김정일의 건강/유고 (5)	김정일의 건강 이상,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그에 따른 통제력 약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북한의 권력승계,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인한 불안(사망할 경우 내부혼란, 자체붕괴 위험)
		후계구도 정착화(9)	북한 후계자 승계 관련 진통, 김 부자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와 권력구조 형성, 후계구도에 따른 북한 권력내부의 반향, 권력승계, 성공적인 후계체제의 강화여부, 권력승계 과정, 후계자 군히기를 위한 북한 권력엘리트의 이동, 북한의 권력승계, 김정은 권력승계 성공여부에 따른 혼란 또는 안정
		권력갈등(5)	후계구도와 군부간의 갈등고조, 김정은 후계 지목 이후 군부내 개혁 세력이 주도하는 변화, 권력승계시 소외되는 군부의 대립 및 쿠데타, 권력투쟁 가속화, 후계자 정권이양 과정상의 불안(권력투쟁 등)
	군사 및 핵 관련(5)	능동적인 6자회담 참석, 6자회담 결과에 따른 정세 변화, 천연담 문제, 핵 문제, 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테토리	
	대외관계(4)	북한 난민의 유출로 인한 주변국들의 대립, 권력이양에 대한 주변 열강의 승인, 후계자 구축을 확고히 하기위한 중국과의 대외 정책, 장자인 남한의 이량	
	경제난-경제회복여부(1)	자연재해 및 미국의 경제규제	
	외부지원(2)	경제협력력을 통한 북한의 자립경제 체제 유지, 현재의 경제난	
	북한 경제요인(7)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시장요소 확산)(4)	새로운 집권층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 개방, 시장영향력의 확대, 주민들의 시장의존도 가중, 시장의 개방화

북한 사회요인(4)	사회 의식(4)	북한주민의 불만(4)	식량부족 심화에 따른 인민 동요, 친근·대적인 사회주의 병폐에 대한 개혁적 심리 기증,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민심의 불안정,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국민 감정 악화	
나. 국제정세변화				
국제 정세요인 (26)	미국(5)	미중관계(4)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수,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적 성향강화, 미국-남한-중국-북한 양자구도,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을 놓고 벌이는 알력	
		미국(4)	대내외정책 상황(1)	미국의 중간선거와 그에 따른 미국 중심주의의 외교정책
			미북관계 (2)	금융체제와 6자회담 복귀를 시행함으로써 대화 시도하려는 의도, 미국의 대북체제
	중국(5)	한미관계(1)	아프칸 정세의 불안감 증대로 부드림계 한반도 정책 유지	
		북중관계 (4)	중국의 북한내 권력 세습 용인 여부, 북한과 중국의 밀착정도, 북중의 우호적 관계 강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중관계(1)	우호적인 한중 협력 관계	
	북핵(4)	북핵(4)	북핵(4)	김정일 정권의 6자회담 개최여부와 실리찾기, 6자회담 재개 여부, 북한의 핵실험, 북한 핵에 대한 압력
			국제 정세(9)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비우호적 태도(특히 중국의 간섭), 북한 권력승계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권다툼, 북일 관계의 호전, 대북제재,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개입(특히 중국)으로 인한 혼란, 러시아의 북한 무력위협에 반대, G20 개최에 따른 대한민국의 외교적 양보 요구,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비우호적 태도, 남한 정부의 태도

다. 주요요인

국제정세요인 (6)	국제관계·환경(6)	중국의 대 북한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일본 민주당 정부의 정권 안정 여부, 북중한미 동맹관계 정도에 따른 변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중미 등의 주변 강대국의 남북관계 주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양해공작 등)
남북관계요인 (5)	소통(5)	정상회담,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감정적 자극으로 위하감 조성
	남북회담 갈등요소(2)	개성공단 유지 발전, 개성공단 유지
남한요인(43)	천안함 사건 관련(1)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인한 남북정색
	대북정책(11)	대북관계 의지와 추진이 결실함, 현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강경 노선의 변화 여부, 남한정부의 의지, 북한 체제 붕괴 대비해야 함, 한국의 대북 정책 긴장완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 정부차원의 대북특사,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지원, 남한 정부의 강경 대북기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남한정책, 현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요인(16)	정치상황(2)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조기 약화 가능성, 남한의 정치적 변수
	핵 군사요인(2)	6자회담의 성사 여부, 핵문제
	경제(3)	경제난, 식량난, 북한의 경제악화
	정치적 리더십 (10)	김정일의 김정일 건강 후계구도 정착화(7) 안정성(2)
대의정책(1)		대중국 의존도 강화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은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외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홍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